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 숙련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개념도 연구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김 현 령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 숙련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개념도 연구 -

지도교수 김 창 대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김 현 령

김현령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김 동 일 (인)

부위원장 신 윤 정 (인)

위 원 최 한 나 (인)

위 원 김 수 임 (인)

위 원 김 창 대 (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의 즉시성(immediacy) 개입의 여러 방식 중에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에 주목하였다.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란 상담사가 지금-여기에서의 상담관계 및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사의 내적·외적 경험을 치료적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사는 이러한 개입을 통해 내담자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고, 상담이 꽉 막힌 교착상태를 풀어갈 수 있으며, 내담자가 자기성찰, 알아차림, 정서적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하정, 2016; Ginot, 2007; Jurist, 2008; Seligman, 2007). 그러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잘못 사용되면 상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초심상담사들이 특히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개입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시 무엇을 고려하여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절차적 지식과 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직화된 구조적 지식을 밝히는 것이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판단하는 순간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요인들이 어떤 절차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경력 10년 이상이면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의 역전이 개념과 활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숙련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숙련상담사 13인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팀 3인이 합의를 통해 면담 전사자료에서 532개의 기초진술문을 추출하였고, 핵심어 코딩 및 분류를 통해 78개의 대표진술문으로 종합하였으며, 숙련상담사 10인으로부터 대표진술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을 받아 피드백을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70개의 대표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후 면담

참여자 13인 중 12인과 대표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숙련상담사들의 인식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원은 3개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1차원(X축)은 고려대상 축으로 '상담사 요인 고려 — 내담자 요인 고려'로 나타났고, 2차원(Y축)은 준비도 판단 축으로 '인지적 준비도 판단 — 정서적 준비도 판단'으로 나타났으며, 3차원(Z축)은 개입목적 축으로 '내담자 통찰 추구 —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로 나타났다. 즉, 숙련상담사들은 적극적인 성찰을 통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숙련상담사들은 상담의 두 주체인 상담사 또는 내담자 요인을 살펴보고(1차원), 상담의 두 주체가 각자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인지적 또는 정서적으로 준비된 상태인지를 고려하며(2차원), 셋째로 즉시성 개입이 개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내담자의 통찰을 추구하거나 진솔한 상담관계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 타당하고 효과적인 개입인지를 고려하여(3차원) 즉시성 개입을 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진술문들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원 및 2차원 공간상에 표현한 개념도를 통해 각 군집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7개 군집은 각각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 '군집 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으로 명명되었다.

숙련상담사들이 70개 대표진술문 목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전체 내용별 및 군집별로 살펴보면,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는 상담사의 역전이가 내담자

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어야 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상담사가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면서 역전이 감정을 조절하고 담아낼 수 있는 상태여야 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하는지 여부와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하는 개입목적은 즉시성 개입 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인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숙련상담사들의 생생한 인식을 통해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연구결과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상담학 분야에서 개념도 연구방법론이 진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념도 결과를 R을 사용하여 3차원 공간상에 3D 인터랙티브 시각화로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3차원 평면의 지각적 왜곡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3차원 개념도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역전이, 즉시성, 상담사의 의사결정, 숙련상담사
학 번 : 2015-31122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Ⅱ. 이론적 배경 ····· 7
1. 즉시성 개입 ····· 7
1) 즉시성의 정의 ····· 7
2) 즉시성 개입에 대한 이론적 설명 ····· 10
3)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 ····· 13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 16
1) 역전이의 정의 ····· 16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 ····· 19
3. 상담사 전문성 발달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 21
1) 상담사 전문성 발달에 대한 이론적 설명 ····· 21
2) 상담사 전문성 발달과 즉시성 개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 25
3) 상담사 전문성 발달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 26

Ⅲ. 연구방법 ····· 29
1. 개념도 연구 ····· 29
2. 연구 참여자 ····· 31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 31
2) 예비연구 참여자 ····· 33
3) 아이디어 산출 과정 참여자 ····· 34
4) 진술문 구조화 과정 참여자 ····· 37
5) 연구 참여자에 대한 안정성 배려 및 연구윤리 준수 ····· 37

3. 연구 절차 ····· 39
1) 개념도 준비: 예비연구 ····· 39
2) 아이디어 산출 과정 ····· 44
3) 진술문 구조화 과정 ····· 55
4) 개념도 분석 과정 ····· 57
5) 개념도 해석 과정 ····· 59
4. 개념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 60
1) 개념도의 신뢰도 확인 ····· 61
2) 개념도의 타당도 확인 ····· 62

Ⅳ. 연구결과 ····· 65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내용 ····· 65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인식 구조 ·· 70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차원 ····· 70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군집 ····· 83
3.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중요도 ·· 102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내용별 중요도 ····· 102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 108

Ⅴ. 논의 ····· 110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내용 ····· 110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인식 구조 ··· 114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차원 ····· 114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군집 ····· 120
3.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중요도 ·· 124
4. 상담사 교육에의 시사점 ····· 126

Ⅵ. 결론 및 제언 ····· 131
1. 연구의 의의 ····· 131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33

참고문헌 ····· 137

부록 ····· 157
<부록 1>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 자료 ····· 158
<부록 2> IRB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 159
<부록 3>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질문지 ····· 165
<부록 4> 면담 질문지 ····· 167
<부록 5> 기초진술문 추출 과정 예시 ····· 169
<부록 6> 대표진술문 적절성 평정 자료 ····· 171
<부록 7>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자료 ····· 173
<부록 8> 개념도 시각화를 위한 R 코드 ····· 177
<부록 9> 대표진술문 묶음별 기초진술문 목록 ····· 180
<부록 10> 대표진술문 목록의 3차원 좌표값 ····· 195

Abstract ····· 197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 35
〈표 2〉 연구 절차 개요 ····· 40
〈표 3〉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 결과 (N=3) ····· 42
〈표 4〉 면담 질문 개발 과정 ····· 43
〈표 5〉 연구팀이 합의한 기초진술문 추출 범위 ····· 48
〈표 6〉 기초진술문 묶음별 대표진술문 작성 예시 ····· 53
〈표 7〉 비유사성 행렬표 작성 예시 ····· 58
〈표 8〉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관한 대표진술문 ·· 66
〈표 9〉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합치도 기준 ····· 73
〈표 10〉 차원별 합치도, 설명량 및 설명량의 변화량 ····· 73
〈표 11〉 1차원(X축)의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 76
〈표 12〉 2차원(Y축)의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 79
〈표 13〉 3차원(Z축)의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 81
〈표 14〉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군집 ····· 91
〈표 15〉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군집별 진술문 ·· 91
〈표 16〉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에 대한 고려 요인에 대한
내용별 중요도 (내림차순) ····· 102
〈표 17〉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내림차순) ····· 109

그 림 목 차

[그림 1] 즉시성과 자기개방 개념의 관계 ····· 10
[그림 2] 차원의 수에 따른 스트레스 플롯 ····· 72
[그림 3]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차원×2차원) ····· 75
[그림 4]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차원×3차원) ····· 75
[그림 5]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2차원×3차원) ····· 76
[그림 6]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3차원 ····· 84
[그림 7] Ward 방법의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 85
[그림 8] 중심값 연결법의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 86
[그림 9] 평균연결법의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 87
[그림 10]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개념도 ····· 96
[그림 1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1차원×2차원) ····· 96
[그림 1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1차원×3차원) ····· 97
[그림 13]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2차원×3차원) ····· 9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정적인 변수로서 상담관계를 활발하게 연구해왔는데(Duncan et al., 2009), 상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사의 개입으로서(Hayes & Gelso, 2001) 상담사의 즉시성(immediacy)이 강조되어 왔다. 즉시성은 상담사가 회기 중에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지금-여기의 상호작용이나 지금-여기의 상담관계에 대해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Egan, 2015; Hill, 2012; Wheeler & D'andrea, 2004; Hill et al., 2014). 상담사의 즉시성은 Carkhuff 등(1977)이 최고 수준의 상담사 조력 행동이라고 하였을 만큼, 내담자가 자신의 관계패턴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패턴을 학습하며 교정적인 체험을 하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Carkhuff et al., 1977; Hill, 2012; Safran & Muran, 2000).

즉시성은 여러 상담이론에서도 중요한 치료적 개입으로서 다루어져왔다. 정신역동이론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일으키는 전이를 해석하고(Greenson, 1967)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선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내담자를 깊은 탐색과 통찰, 성장으로 이끄는 것(Gordon, 1965; Mitchell & Black, 1995; Winnicott, 1949)을 즉시성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게슈탈트 상담이론에서 상담사가 지금-여기의 상담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증진하는 것(Perls, 2013),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 상담사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내담자에게 진솔성 있게 표현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것(Rogers, 2007), 그리고 실존주의 상담이론에서 상담사가 상담과정과 상담관계에 대해 느끼는 점을 내담자에게 솔직하게 개방할 때 참만남이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Yalom, 2002) 모두 상담사의 즉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시성은 상담관계의 질을 높이고 상담성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상담사가 즉시성을 사용했을 때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즉시적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고(Kasper et al., 2008; Hill et al., 2008), 상담사를 더 가깝게 느끼고 덜 방어적으로 되며(Kasper et al., 2008),깊은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게 되고(Hill et al., 2008),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견디고 탐색하는 능력이 증진되고(Mayotte-Blum et al., 2012), 교정적인 관계경험을 갖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서영석 등(2012)의 연구에서도 상담사가 즉시성을 많이 쓸수록 내담자의 회기평가가 긍정적이었고 특히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했을수록 즉시성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즉시성은 강력한 상담개입인 동시에 상담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Shafran 등(2017)에 따르면 즉시성이 초반에 사용되면 작업동맹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되었고, 다른 연구에서도 적은 빈도이지만 내담자가 상담사의 즉시성을 이상하다고 느끼고 압박을 경험하거나(Kasper et al., 2008) 내담자의 개방과 탐색에 방해를 주기도 하였다고 알려졌다(Hill et al., 2018).

이처럼 상담관계를 통해 상담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즉시성 개입은 여러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Egan(2015)의 분류에 따르면 즉시성은 전반적인 상담관계를 돌아보며 상담관계가 내담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거나(관계 즉시성), 회기 중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금-여기 상호작용에서 일어난 것을 다루거나(사건초점 즉시성), 상담사가 내담자와 상담관계에 대한 감정을 개방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자기관여 진술). 관계 즉시성과 사건초점 즉시성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지금-여기의 경험에 대해 관찰한 바를 공유하고 다루는 것에 가깝다면, 자기관여 진술은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담사가 관여되어 자신의 지금-여기 경험을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개입은 내담자가 자신의 관계 패턴과 그로 인한 영향을 가장 생생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에 다른 방식의 즉시성보다 특히 강력하며, 또 그만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서영석 등, 2013; 하정, 2016; Bion,

1957; Gabbard, 1995; Hayes & Gelso,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즉시성의 세 번째 유형인 자기관여 진술, 즉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개방하는 형태의 즉시성 개입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여러 상담이론 중에서 정신역동적 관점이 상담사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서의 즉시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역동적 관점에 토대를 두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라고 명명하였고,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지금-여기에서의 상담관계 및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사의 내적·외적 경험을 치료적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상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담사가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개방할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를 인간적으로 느껴 깊은 작업동맹을 형성할 뿐 아니라(Hayes & Gelso, 2001). 내담자가 회피했던 자기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내담자의 핵심 역동에 다가갈 수 있다(하정, 2016). 뿐만 아니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특히 상담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상담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유용한 것으로 강조된다.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상담이 꽉 막힌 상황을 공감적인 상호작용으로 전환시켜 공감적인 성찰적 공간을 형성하고(Ginot, 2007; Jurist, 2008; Seligman, 2007)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성찰, 알아차림, 정서적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Ginot, 2009),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전이와 상담사의 무의식적인 역전이가 엮여서 발생한 분석 내 행동화 상황에서는 상담사의 즉시적 개방이 꽉 막힌 교착 상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유일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으로 작용한다(Ginot, 2007). 그러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강력한 동시에 자칫하면 상담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상담사가 미해결된 주제에 기인한 역전이를 개방하는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를 덜 매력적이고 덜 신뢰로우며 상담사가 충분한 상담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Yeh & Hayes, 2011).

이처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상담에 매우 유용하면서도 실

제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개입이다. 특히 초심상담사는 역전이가 무엇인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언적 지식을 습득하였지만 그 개입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지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심상담사들은 자신의 감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Wheeler & D'andrea, 2004) 역전이 반응이 내담자의 역동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도 자꾸 역전이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고되었다(Hill, 2012). 반면 숙련상담사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절차적 지식 및 그러한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직화된 상위의 구조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Hill et al., 2008; Kasper et al., 2008; Kivlighan, 2008; Kraiger et al., 1993). 상담사의 개입 판단은 매우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인지과정으로서, 상담사의 전문성이 발달할수록 절차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보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개입 시점과 방식에 판단이나 의사결정 역시 자동화되기 때문이다(Kivlighan, 2008; Kraiger et al., 1993).

따라서 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절차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Hayes와 Gelso(2001) 역시 상담사 교육을 위해 즉시성 개입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상담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서영석 등(2012)도 즉시성을 단순히 빈번하게 혹은 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시성의 내용과 타이밍 또는 즉시성이 사용되는 맥락이 상담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관련한 요인들로서 Henretty와 Levitt(2010)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역전이를 개방할 때 내담자와의 작업동맹, 자아강도, 내담자의 경계설정 수준, 역전이를 개방하는 의도, 개방에 대한 상담사의 감정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Myers와 Hayes(2006)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서 작업동맹에 주목하

여, 작업동맹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역전이 개방을 할 때 회기의 깊이가 얕게 평가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Yeh와 Hayes(2011)는 상담사의 개인적 주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주목하여, 상담사가 미해결된 개인적 주제와 관련된 역전이를 개방할 경우 내담자의 상담사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판단하는 순간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요인들이 어떤 절차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사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과 지식을 다차원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으로서(Goodyear et al., 2005; Kane & Trochim, 2007),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하기로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된 지식이 어떤 잠재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각각의 요인들, 즉 절차적 지식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또한 그 지식들이 어떤 잠재적인 구조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사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의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인식은 어떤 차원과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연구문제 3. 숙련상담사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의 중요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먼저 즉시성 개입의 개념, 즉시성 개입과 상담성과의 관계 및 상담사 발달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전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과 상담성과의 관계 및 상담사 발달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에 대한 숙련상담사의 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즉시성 개입

1) 즉시성의 정의

상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사 요인(Hayes & Gelso, 2001)으로서 상담사의 즉시성은 상담사가 회기 중에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지금-여기의 상호작용이나 지금-여기의 상담관계에 대해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Egan, 2015; Hill, 2012; Hill et al., 2014; Wheeler & D'andrea, 2004). 다시 말해, 상담사가 내담자에 대해,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상담사 자신에 대해, 또는 상담관계 그 자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내담자에게 개방하여 다루는 것(서영석 등, 2012)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사의 즉시성은 Carkhuff 등(1977)이 최고 수준의 상담사 조력 행동이라고 언급하였을 만큼, 내담자가 자신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패턴을 학습하고 교정적인 체험을 하도록 조력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알려져 있다(Carkhuff et al., 1977; Hill, 2012; Safran & Mura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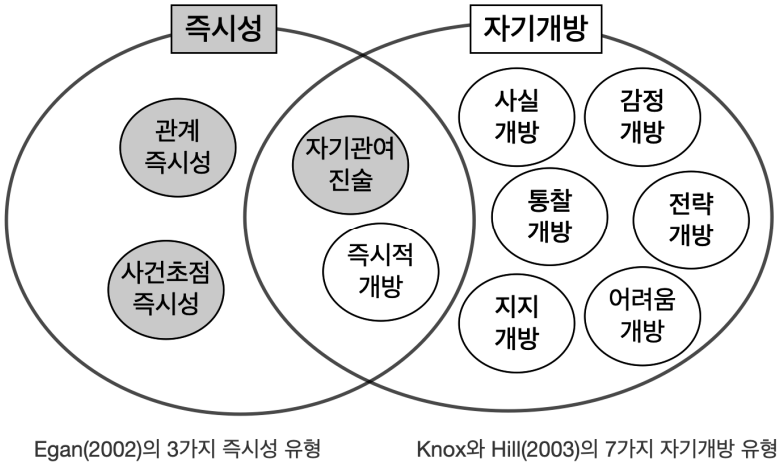
즉시성의 정의는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점차 진화되고 유형화되어 왔다. Ivey와 Ivey(1999)는 즉시성을 내담자와 그 순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being in the moment with the client)이라고 정의하였고, Yalom(2002)은 지금(이 상담회기 중에)-여기(상담사와 내담자가 함께 있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즉시적 사건으로 명명하였으며, Wheeler와 D'andrea(2004)는 즉시성을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지금-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내담자와의 과거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즉시성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로서 Hill(2012)은 즉시성을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 내담자 또는 상담관계에 대해 즉시적인 감정을 개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Kuutmann과 Hilsenroth(2012)는 Hill(2012)의 정의를 수정하여 상담회기 중에 지금-여기의 상담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일 뿐 아니라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사나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즉시성 개입은 상담사가 상담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현재형으로 언급함으로써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강한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개입으로(Hill, 2012), 메타커뮤니케이션(metacommunic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윤재호, 정남운, 2009; Kiesler, 1988; Li, Jauquet, & Kivlighan, 2016).

여러 이론가들은 즉시성의 유형을 분류하여 즉시성의 개념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Egan(2015)은 즉시성을 1) 내담자와의 전반적인 상담관계에 대해 다루고 상담관계가 내담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관계 즉시성(relationship immediacy), 2) 회기 중의 구체적인 상황, 지금-여기 상호작용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다루는 사건 초점 즉시성(event-focused immediacy), 그리고 3) 상담사가 내담자에 대한 감정이나 상담관계에 대한 감정을 개방하는 자기관여 진술(self-involving statement)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Kuutmann과 Hilsenroth(2012) 또한 즉시성을 지금-여기의 상담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작업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작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것을 함께 고려할 때, 즉시성은 첫째로 회기

중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 특정한 일이나 내담자 모습 등에 대해 다루는 것(예: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00씨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 어떤 마음인가요?)과 둘째로 상담사가 관여되어 내담자나 상담관계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것을 개방하여 다루는 것(예: 00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무력감이 들어요, 우리의 대화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데 00씨는 어떠신가요? 등)으로 변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Egan(2015) 등 선행연구들의 즉시성 분류는 서로 완전하게 배타적인 분류는 아니며 상담의 맥락에 따라 서로 겹칠 수 있고, 한 즉시성에서 다른 즉시성으로 연결되면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즉시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Egan(2015)의 유형 중 자기관여 진술, 즉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개방하는 형태의 즉시성 개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의 즉시성에 비해 상담사가 관여되어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경험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하정, 2016; Bion, 1957; Gabbard, 1995; Hayes & Gelso, 2001).

한편 선행연구에서 즉시성과 종종 혼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로 상담사의 자기개방(self-disclosure)이 있다. 자기개방과 즉시성은 함께 묶어서 연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이 중첩되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Hill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즉시성과 자기개방 정의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즉시성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초기의 상담사 자기개방 개념은 상담사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는 상담사 진술(Hill & Knox, 2002)로서 사실, 과거의 감정, 과거의 통찰, 과거의 전략, 지지, 어려움 개방, 즉시적 개방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Knox & Hill, 2003) 그 중 마지막 유형인 즉시적 개방(disclosure of immediacy)이 지금-여기의 상담관계에 대한 개방으로서 즉시성 개념과 동일하다. McCarthy Veach(2011)가 상담사의 자기개방을 비즉시적 자기개방(non-immediate self-disclosure)과 즉시적 자기개방(immediate self-disclosure)로 구분한 분류에서도 즉시적 자기개방이 이에



[그림 1] 즉시성과 자기개방 개념의 관계

해당한다.

즉시성 역시 기본적으로는 모두 상담사의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개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의 상담사 자기개방 연구들은 본 연구의 관심사인 지금-여기에서의 상담사의 경험보다는 주로 상담사의 사적 정보와 경험을 개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최근에는 즉시성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개방을 상담회기 바깥의 상담사 삶에 대한 언어적 개방이라고 정의하는 추세이므로(Hill, Knox, Pinto-Coelho, 2018),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가 지금-여기에서 상담관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는 개입을 명명할 때 자기개방보다 즉시성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방의 개념에 포함된 요소들인 상담사의 개인적인 정보나 경험에 대한 개방은 제외하고, 지금-여기의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사 경험에 대한 개방으로 한정하여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상의 개념들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해볼 때, 본 연구에서의 즉시성 개입은 [그림 1]의 즉시성과 자기개방의 교집합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즉시성 개입에 대한 이론적 설명

상담사가 지금-여기에서 상담관계에 대해 경험하는 생각, 느낌, 신체적 감각 등을 내담자에게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개방하여 개입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 상담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이론들과 즉시성 개입을 연결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역동적 상담이론에서는 내담자가 일으키는 전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Greenson, 1967)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생각, 감정, 신체적 감각 등의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선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담관계의 진솔성과 협력적 분위기를 증진하고 내담자를 깊은 탐색과 통찰, 성장으로 이끄는 것(Gordon, 1965; Mitchell & Black, 1995; Winnicott, 1949)을 강조한다. 대상관계학파의 Winnicott(1949)은 내담자가 유발하는 감정과 태도, 반응 경향성은 내담자의 중요한 타자가 내담자에게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lein(1946)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이 확장되면서 상담사의 역전이 경험은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이에 대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상담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다(Gordon, 1965). 물론 상담사의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개방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신역동 이론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많은 일군의 정신역동 이론가들은 역전이 경험을 선별적으로 개방하는 즉시성 개입을 통해 상담관계의 진솔성과 협력적 분위기를 증진하고 깊은 탐색과 통찰로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Mitchell & Black, 1995).

대인관계적 심리학자인 Sullivan(1953)은 상담에서 내담자의 행동만을 분리하여 바라보지 않고 내담자의 행동을 대인관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 내담자가 상담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패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인과정(Interpersonal Process) 접근의 이론가 Teyber(2006) 역시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는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재현되기 때문에, 상담사가 이에 대한 즉시성을 사용함으로써 내담자의 대인관계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교정적 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관계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Teyber(2006)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암묵적인 상호작용을 수면 위로 드러내어 다루는 것을 과정 언급(process comment)이라고 명명하며 중요한 개입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과정 언급이 즉시성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게슈탈트 상담이론의 창시자인 Perls(2013)는 상담사의 지금-여기에서의 알아차림이 개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증진하고 내담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김정규(2015)에 따르면 상담사와 내담자는 나-너 관계(I-Thou relationshio)로 표현되는데, 상담사와 내담자 각자의 순간순간 지금-여기의 알아차림과 접촉을 통하여 서로의 진실을 발견하고 나누고 교류해가는 과정, 또 상담사의 지금-여기의 감정에 대한 개방을 통해 내담자가 경험하는 관계성이 치료적인 요인이 된다.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 강조하는 일치성(congruence) 또는 진솔성(genuiness) 역시 즉시성과 맞닿아있다. Kolden 등(2011)은 일치성의 두 가지 요소로서 첫째로 상담사가 자신에 대한 온전한 알아차림을 통해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과 둘째로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경험을 내담자에게 신중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는데, 후자의 일치성이 즉시성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Watson 등(1998) 또한 진솔성을 상담사가 자신의 내적 경험과 일치되게 맞닿아있는 내적 측면과 그것을 내담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는 능력인 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진솔성이 즉시성 개입과 연결된다. 즉, 인간중심상담 이론가들은 상담사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 뿐 아니라 상담사의 경험을 내담자에게 일치된 표현으로 전달하는 과정 또한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치성과 진솔성의 효과에 관하여 Rogers(2007)는 상담사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내담자에게 진솔하게 표현하여 상담사 자신의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표현을 일치시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만나지 못했던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접촉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실존주의 상담이론 역시 상담사와 내담자의 인간적이고 진실한 대면적 관계, 즉 지금-여기에서의 참만남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바라보고 있다. Yalom(2002)은 즉시성을 지금-여기에 대해 지금-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상담사가 상담과정과 상담관계에 대해 느끼는 점을 내담자에게 솔직하게 개방할 때 참만남이 일어나고 내담자가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통찰할 수 있게 됨을 강조하였다. Yalom(1995)은 특히 이러한 즉시성은 집단상담에서 지금-여기에서 집단원들간의 상호작용과 지도자와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담사가 지금-여기에서 내담자와의 상담관계에 대한 경험을 개방하는 것은 여러 상담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지만, 게슈탈트 상담이론, 인간중심상담이론, 실존주의 상담이론에서는 상담사의 즉시성을 상담사의 기본적인 태도와 역량으로 바라보므로 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관계 자체가 치료적 요인이 되는 측면이 더 부각되는 반면, 정신역동적 상담이론에서는 즉시성을 상담관계를 활용하여 내담자에게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통찰과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사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더 강조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역동적 관점에 따라 정신역동적 관점의 개념인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즉시성개입을 이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라고 명명하였고,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지금-여기에서의 상담관계 및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사의 내적·외적 경험을 치료적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후술하였다.

3)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

즉시성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Carkhuff 등(1977)이 즉시성 개

입을 최고 수준의 상담사 조력 행동으로 언급하였을 만큼 많은 이론가들이 즉시성 개입의 효과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문헌에 따르면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이 상담관계에서 재현되는 경우 상담사의 즉시성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관계 패턴 및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도전하고,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숨겨진 의사소통을 더 직접적이게 할 수 있다(Hill, 2012; Safran & Muran,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즉시성은 상담관계의 질을 높이고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인되었다(서영석 등, 2012; Hill et al., 2008; Kasper et al., 2008; Mayotte-Blum et al., 2012). 먼저 회상을 통해 즉시성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제 진행된 단기상담 사례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상담사가 즉시성을 사용했을 때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즉시적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고(Hill et al., 2008; Kasper et al., 2008), 내담자가 상담사를 더 가깝게 느끼고 덜 방어적으로 되며(Kasper et al., 2008),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게 되고(Hill et al., 2008), 즉시성을 통해 내담자에게 교정적인 관계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다(Hill et al., 2008). 4년간의 장기사례를 분석한 Mayotte-Blum 등(2012)에서도 즉시성을 통해 상담사와 내담자가 상담관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내담자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견디고 탐색하는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확인되었다. 즉시성 개입과 관련하여 수행된 질적연구들을 메타분석한 Hill 등(2018)은 즉시성 개입을 통해 상담관계가 향상되고 내담자의 정신건강 기능이 향상되며 내담자가 통찰을 얻는 등의 긍정적인 후속 과정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즉시성과 상담성과의 관계를 양적으로 검증하고자 노력한 연구를 몇 편 살펴보면, 국내에서 28명의 내담자 사례로 상담사의 즉시성이 상담회기 평가 및 작업동맹에 미친 영향을 다층모형으로 검증한 서영석 등(2012)에 따르면 상담사가 회기 중에 즉시성을 사용한 빈도가 높을수록

상담회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했을수록 즉시성의 효과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Shafran 등(2017)의 연구에서는 16명의 내담자의 364회기에 대해 위계적 선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상담사가 즉시성을 사용했을 때 내담자가 회기의 질을 높게 인식하였고 즉시성이 후반에 사용되면 작업동맹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은 상담이 어려움에 봉착한 문제상황에서 즉시성 개입이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상담관계에 오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성이 유용하게 작용하였고(Rhodes et al., 1994) 작업동맹이 결렬되었을 때 즉시성을 활용하는 것이 작업동맹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으며(Safran et al., 2001), 초기 작업동맹을 낮게 평정한 내담자들에게 상담사가 상담관계에서의 감정들을 내담자의 방어기제와 연결시키는 즉시성 개입을 통해 작업동맹이 증진되고 상담성과로 이어졌음이 확인되었다(Foreman & Marmar, 1985).

그러나 즉시성은 강력한 상담개입 도구인 동시에 자칫하면 상담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Kasper 등(2008)의 연구에서 내담자가 상담사의 즉시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상담사가 즉시성을 사용할 때 다소 이상하다고 느끼고 압박을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보고된 바 있다. Hill 등(2018)의 즉시성 질적연구에 대한 메타연구에서도 비록 적은 빈도이기는 하지만 즉시성 개입 이후 내담자의 개방과 탐색에 방해를 받고, 상담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Shafran 등(2016)에서도 즉시성이 상담 초반에 사용된 경우 작업동맹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eh와 Hayes(2011)의 경험연구에서도 상담사가 자신의 해결된 주제에 기인한 역전이를 개방하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를 매력적이고 신뢰로우며 충분한 상담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상담사의 미해결된 주제에 기인한 역전이를 개방하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를 덜 매력적이고 덜 신뢰로우며 상담사가 충분한 상담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Hill(2012)은 즉시성은 매우 강력한 개입으로서 내담자에게 강력한 치유로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잘못 개입할 경우 내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개입이기도 하므로 세심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Egan(2015)의 세 가지 즉시성 방식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인 자기관여 진술, 즉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개방하는 형태의 즉시성 개입에 주목하였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의 즉시성에 비해 상담사가 관여되어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경험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으면서도, 특히 사용하기 어려운 개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서영석 등, 2013; 하정, 2016; Bion, 1957; Gabbard, 1995; Hayes & Gelso, 2001).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반응을 정신역동적 관점에서의 역전이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반응을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개입을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먼저 역전이의 정의를 살펴본 후,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과 상담성과, 상담사 발달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전이의 정의

Freud(1910)가 역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역전이 개념은 계속 변화되어왔다. Freud는 정신분석이론의 미래에 대해 고찰하는 글에서 정신분석이론의 혁신 중 하나가 분석가가 역전이를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역전이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Freud, 1910). Freud에 따르면 역전이는 환자가 분석가의 무의식적 감정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가는 자신의 콤플렉스와 내적인 저항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치료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가가 깊이 있는 자기분석과 교육분석을 통해 역전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Freud, 1910; Freud, 1912). 즉, Freud는 상담사의 역전이가 병리적인 것이고 상담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Freud의 관점은 이후 미국정신분석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Moore와 Fine(1990)의 책에 역전이는 분석가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후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Heimann(1950)은 상담사가 마치 최상의 조건에서 외과수술을 시행하는 외과의사처럼 치료 중에 감정의 동요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Freud(1912)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경험하는 감정들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역전이를 상담사가 내담자에 대해 경험하는 모든 감정으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상담사가 감정의 동요 없이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요되는 감정 때문에 액팅아웃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 채로 감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Heimann(1950) 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분석 전문가들이 상담사의 역전이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Little, 1951; Racker, 1953; Tower, 1956) 내담자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Balint, 1950; Fairbairn, 1943).

이와 같이 확장된 역전이 개념을 토대로, 대상관계이론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의 발달과 함께 역전이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장되었다. Klein(1946)은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분리시켜 상담사에게 투사하여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무의식적인 경험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명명하였고, Bion(1957)은 그것이 내담자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대인관계적인 상호작용이라고 개념을 확장하였다. 즉, 투사적 동일시가 내담자의 투사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상담사의 내적 갈등이 활성화되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Gabbard, 1995) 역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자아심리학에서는 내담자의 전이와 상담사의 역전이가 서로 맞물려버린 상황에서 상

담사가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분석 내 행동화(enactment)라고 정의하면서(Jacobs, 1986), 분석 내 행동화로 상담의 교착상태가 발생하면 상담사와 내담자는 모두 그것이 상대방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귀인하게 되는데 사실은 상담사의 미해결된 내적 갈등이 내담자의 특성 및 전이와 만나 자극을 받아 상담사의 역전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McLaughlin, 1991; Roughton, 1993).

나아가 최근의 상호주관성 이론에서는 역전이를 상담사와 내담자가 함께 만들어낸 상호 생성물(joint creation)로 인식하고 있다(Gabbard, 1995). 상담사와 내담자는 각자 동등한 주체로서, 상담사의 역전이가 단순히 내담자에 의해 자극을 받아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상담사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비롯된 여러 감정과 행동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며(Aron, 1991; Lachmann, 2000), 따라서 역전이가 아닌 상담사의 주관성(subjectivity)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Minolli & Tricoli, 2004).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상담사의 역전이는 반드시 내담자의 전이에 의해 유발된 반응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담사가 먼저 역전이 반응을 주도할 수도 있는 양방향성이 있고(Aron, 1991, Natterson & Friedman, 1995) 전이와 역전이는 내담자와 상담사의 상호 영향이라는 점이 강조된다(Atwood & Stolorow, 2014; Hoffman, 1983; 1994). 상담사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세계를 통해 내담자의 경험세계를 이해할 때(Atwood & Stolorow, 2014) 상담사와 내담자가 깊이 연결되고 내담자의 자기이해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상담사의 역전이 개념이 변화되어 온 이상의 과정을 종합해볼 때, 역전이에 대한 정의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Freud가 역전이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과 달리 이제 역전이는 상담에서 항상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상담사의 미해결된 내적 갈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역전이를 상담 중에 내담자의 특정한 관계방식과 행동으로 인해 자극을 받으면서 상담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적 ·

외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가 상담 중에 내담자의 특정한 관계방식과 행동으로 인해 자극을 받으면서 상담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적·외적 반응, 즉 상담사의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개방하는 개입을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으로 명명하였고,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지금-여기에서의 상담관계 및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사의 내적·외적 경험을 치료적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치료적 목적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즉시성 개입을 하는 것이 상담사의 반응적인 역전이 행동이 아니라 상담사의 개입 의도와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응임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상담사가 즉시성 개입을 활용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도 이처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상담사가 관여되어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경험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하정, 2016; Bion, 1957; Gabbard, 1995; Hayes & Gelso,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상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담사가 역전이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개방할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를 더 인간적으로 느껴 깊은 작업동맹을 형성할 뿐 아니라(Hayes & Gelso, 2001). 내담자가 부인하고 회피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내담자의 핵심 역동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된다(하정, 2016).

뿐만 아니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특히 상담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상담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용한 것으로 강조된다(Foreman & Marmar, 1985; Ginot, 2007; Jurist, 2008; Rhodes, Hill, Thompson, & Elliott, 1994; Safran, Muran, Samstag, & Stevens, 2001; Seligman, 2007). 상담이 꽉 막힌 상황에서 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하면 교착된 상호작용이 공감적인 상호작용으로 전환되어 공감적인 성찰적 공

간을 형성하고(Ginot, 2007; Jurist, 2008; Seligman, 2007)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성찰, 알아차림, 정서적 통합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된다(Ginot, 2009). 나아가 내담자의 전이와 상담사의 역전이, 즉 상담사와 내담자의 미해결과제가 서로 엮여서 발생하는 분석 내 행동화 상황에서는 상담사의 즉시적 개방이 꽉 막힌 교착 상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유일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되기도 한다(Ginot, 2007).

이렇게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 상담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자신의 역전이를 민감하게 자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능동적으로 자각하고 그러한 반응이 상담과정과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최명식, 2005).

역전이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전이 관리 능력이 좋은 상담사들은 상태불안 등의 부정적인 역전이 반응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Gelso, Latts, Gomez, & Fassinger, 2002; Peabody & Gelso, 1982; Robbins & Jolkovski, 1987), 상담사의 역전이 관리 능력이 상태불안을 덜 경험하게 함으로써 작업동맹이 향상되고(김택준, 신희천, 2016), 상담사의 자기 성찰을 높임으로써 반응적인 역전이 행동을 낮추도록 작용한다고 나타났다(전경옥, 하정, 2015). 반면 상담사의 역전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 상담사가 우울,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내담자에 대한 회피행동을 보이고(Latts & Gelso, 1995) 내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회상하지 못하거나(Gelso et al., 1995; Latts & Gelso, 1995), 내담자에 대한 관여를 철수하게 되며(Robbins & Jolkovski, 1987), 작업동맹을 저하시키고(Talbot et al., 2019) 조기종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Hayes et al., 1998) 상담관계와 상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나타났다. 또한 상담사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개인적으로 미해결된 주제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담사의 미해결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할수록 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낮게 지각하고 회기의 깊이를 얕게 지각한다고 보고되었고(Rosenberger & Hayes, 2002), 상담성과가 낮은 상담 과정에 대해 수

행된 질적 연구에서도 상담사의 관리되지 않은 역전이가 부정적인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영주 등, 2012).

따라서 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전이를 민감하게 자각하고 역전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상담사의 역전이가 잘 관리되는 상태일 때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 치료적인 의도에 부합되도록 성과를 가져오는 반면, 상담사가 역전이를 관리하지 못하여 역전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는 즉시성 개입이 치료적인 목적이 아닌 상담사의 개인적인 욕구와 미해결된 갈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Tracy, Hayes, Malone, & Herman, 1998). 선행연구에 따르면 잘 관리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내담자에게 이해받는 경험을 제공하고(McClure & Hodge, 1987) 상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영순, 2010; 이혜선, 최선남, 2010; 임고운, 김지현, 2008; 한은주, 최한나, 2013; Peabody & Gelso, 1982), 상담사가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개방할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와의 거리를 더 가깝게 느끼고 상담사를 더 인간적으로 느껴 깊은 작업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Hayes & Gelso, 2001). Yeh와 Hayes(2011)의 경험연구에서도 상담사가 자신의 해결된 주제에 기인한 역전이를 개방하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를 매력적이고 신뢰로우며 충분한 상담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상담사의 미해결된 주제에 기인한 역전이를 개방하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를 덜 매력적이고 덜 신뢰로우며 상담사가 충분한 상담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담사 전문성 발달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1) 상담사 전문성 발달에 대한 이론적 설명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상담사가 한 명의 전문

상담사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따라 상담사의 경험에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한다(Skovholt & Rønnestad, 1995). 본 절에서는 상담사 전문성 발달모형과 상담사의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초심상담사와 숙련상담사의 개입과 관련된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사 발달 모형은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Loganbill et al., 1982, Stoltenberg & Delworth, 1987; Skovholt & Rønnestad, 1992). Loganbill 등(1982)에 따르면 1단계 정체기에 있는 초심상담사들은 상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부족한 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전문적 자존감이 낮다. 하지만 전문성 발달이 이루어진 3단계 통합기의 숙련상담사들은 재구조화와 통합, 새로운 인지적 이해를 갖게 되고, 자신의 능력과 강점과 약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적극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Stoltenberg와 Delworth(1987)의 발달모형에 따르면 1단계 의존단계에 있는 초심상담사들은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거나 자신이 내담자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한 통찰 등 자기자각 수준이 매우 낮다. 그러나 전문성 발달에 따라 3단계 조건적 의존단계가 되면 자신의 의존욕구나 신경증적 동기에 대해 통찰할 수 있게 되고 4단계 대가 상담사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개인적, 인간적인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담관계에 대한 통찰과 성찰이 증진된다. 또한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상담사의 전문성이 발달함에 따라 상담사의 경험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 상담사의 능력과 기술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문성이 발달된 숙련상담사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기성찰을 하고, 단순하게 습득된 지식(received knowledge)보다는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지식(constructed knowledge)을 형성하게 되며, 상담 수행에 있어 불안감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상의 상담사 발달 모형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본 연구의 대상인 숙련상담사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인간적인 한계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자신에 대한 성찰뿐

만 아니라 상담관계에 대한 성찰과 통찰이 증진되고,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경험연구로도 검증되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숙련상담사는 초심상담사에 비해 자기인식의 수준이 높고 자신의 특성이나 상담경험에 대한 성찰을 잘 할 뿐만 아니라(김계현, 1997; 김계현, 문수정, 2000; 심흥섭, 이영희, 1998; 채민정, 김창대, 김수임, 2008; Jennings & Skovholt, 1999; Stoltenberg & Delworth, 1987) 회기 중의 개입에 대한 즉시적인 성찰도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확인되었다(김현령, 김창대, 2013; 유성경, 심혜원, 2005).

상담사 발달모형 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은 상담사의 발달에 따라 어떤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해왔다. 먼저 인지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상담사는 초심상담사에 비해 효과적인 기억과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정교화된 사례개념화를 할 수 있다. Chi 등(2014)의 전문가의 인지처리 역량에 대한 연구를 적용해볼 때 숙련상담사는 초심상담사에 비해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뛰어나고, 기본적인 기술들을 빠르고 자동적으로 수행하며, 내담자의 문제 이해에 많은 에너지를 들여 심층적인 사례개념화를 하고, 자기자신을 효과적으로 돌아본다. Mayfield 등(1999) 및 Cumming 등(1990)의 연구에서도 숙련상담사들은 내담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는 도식이 발달하였고 상담과정에서 사례개념화를 지속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해를 더욱 정교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Etringer 등(1995)는 초심상담사들은 정보를 많이 수집한 후에 목표를 구조화하는 후진식 추론(backward reasoning)을 하는 반면 숙련상담사들은 목표지향적으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내담자 문제의 핵심적인 측면을 빠른 속도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전진식 추론(forward reasoning)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Eells 등(2011)의 경험연구 결과에서도 뒷받침되었다. 정리하면, 보다 복잡하고 깊고 통합된 지식구조와 사례개념화가 숙련상담사들의 주요한 인지적 특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숙련상담사는 초심상담사 단계에서 습득한 선언적 지식을 절차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입을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 Kraiger 등(1993)에 따르면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은 '무엇에 대한 지식',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은 '어떻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조적 지식(structural knowledge)은 '지식의 조직화'를 의미한다(Kivlighan, 2008, p. 561). 본 연구의 주제로 적용해보면 초심상담사는 역전이가 무엇인지, 역전이를 경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즉시성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언적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 개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전문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상담사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경험을 통해 즉시성을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사용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개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자동적이고 효과적인 즉시성 개입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숙련상담사는 언제 어떻게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러 지식,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구조적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가장 상위의 지식으로서(Kivlighan, 2008), 지식 구조, 인지적 지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Kraiger et al., 1993). 이러한 절차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의 발달은 숙련상담사의 정보처리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Kraiger et al., 1993) 숙련상담사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매우 직관적이고 자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담사의 발달에 따른 정서적 및 관계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Skovholt와 Jennings(1999)의 연구에서 상담 대가들은 자기자각이 뛰어나고 내담자의 피드백에 대해 솔직하게 자기개방을 하는 등 정서적인 수용성이 높으며, 자신의 정서적 상태가 자신의 상담수행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대가들은 뛰어난 관계역량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치료적인 관계를 맺고, 강렬한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타이밍이나 강도를 조절하는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숙련상담사는 자신이 회기 중에 내담자에 대해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를 솔직하게 자각하고, 자신의 역전이가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내

담자에게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적용할 수 있다.

2) 상담사 전문성 발달과 즉시성 개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즉시성 개입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상담사 교육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즉시성 개입은 초심상담사들이 배우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를 매우 어렵게 느끼는 개입으로 알려져 있다(Hill, 2012; Hill et al., 2014; Spangler et al., 2014; Wheeler & D'andrea, 2004; Yalom, 2002). 즉시성 개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즉시성은 공감이나 질문 등 다른 기법과 달리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기법이기 때문이다(Alhejaili, 2020).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관계의 손상을 염려하여 타인에 대한 즉시적 감정을 굳이 개방하여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와 상담관계의 차이를 잘 변별하지 못하는 초심상담사들은 즉시성 개입을 할 경우 내담자가 침범적으로 느끼거나 화가 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Hill, 2012; Wheeler & D'andrea, 2004, Egan, 2015). 특히 평소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성향의 초심상담사의 경우 즉시성 개입을 더 어색하고 진정성 없는 개입으로 느낀다고 보고된다(Hill, Sullivan, Knox, & Schlosser, 2007; Spangler et al., 2014).

또한 초심상담사들은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때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와 같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Wheeler & D'andrea, 2004), 내가 지금 지루하게 느끼는 건 내 탓이고, 내가 더 유능한 상담사라면 지루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등 자신의 역전이 반응을 자신의 탓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Hill, 2012). 이에 Hill(2012)는 초심상담사들에게 자신이 즉시성 개입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는 것이 상담사의 개인적인 욕구나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유익을 위한 것임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Hill, 2012).

반면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은 상담사들은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련된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asper 등(2008)이 20년 경력의 숙련상담사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숙련상담사는 자신이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내담자의 바깥 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언급하는 즉시성 개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내담자에 대해 실망스럽게 느끼거나 슬프고 상처받은 감정 역시 상당히 빈번하게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ll 등(2008)이 30년 경력의 숙련상담사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담관계와 내담자의 바깥 관계의 평행과정에 대해 다루고 내담자에 대한 친밀감 등 즉시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담사 전문성 발달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상담사가 역전이를 잘 관리함으로써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상담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이 전문성 있는 상담사가 특히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기에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Van Wagoner 등(1991)은 상담사의 역전이 관리 모델(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model)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사 전문성 요인으로 상담사의 통찰, 자기통합, 불안 관리, 공감, 사례개념화 능력을 제시하였고, 상담사가 이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역전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적고, 역전이 반응을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숙련상담사들은 이 중에서 특히 자기통합과 통찰을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였다고 보고되었다(Hayes et al., 1991). 그 외에도 상담사의 대처 유연성이 높을수록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이영은, 이창환, 2011) 상담사의 알아차림과 자기성찰이 높을

수록 비치료적인 역전이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Robbins & Jolkovski, 1987; Watkins, 1985; Hayes et al., 1991).

역전이를 관리하여 활용하는 능력은 상담사의 발달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담사의 전문성과 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응을 자제할 수 있고(Tracy et al., 1998) 상담사가 자신의 역전이를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상담 개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윤희섭, 정현희, 2010; 임고운, 김지현, 2008; 한은주, 최한나, 2013; 황인호은 2005). 반면 초심상담사들은 숙련상담사들에 비해 역전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영순(2010)은 초심상담사가 사례개념화 및 개입과 관련된 상담수행에 어려움이 높고 상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과 상담사의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정(2006)이 1급 숙련상담사들의 역전이 관리 과정에 대해 분석한 질적연구에 따르면, 숙련상담사들은 생생한 역전이의 영향을 인식한 후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역전이를 활용하여 내담자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역전이를 자각한 초기에는 기다려주면서 내담자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개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게 되며, 역전이를 개방하는 즉시성 개입을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을 솔직하게 개방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깊이 직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활용하는 것이 점차 숙달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여유있게 역전이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숙련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고 성장함에 따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활용하는 역량 또한 계속 성장한다고 해석하였다.

초심상담사와 숙련상담사를 함께 비교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더 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경력에 따른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임고운과 김지현(2008)에 따르면 상담사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역전이의 외적 활용, 즉 역전이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즉시성 개입을 하는 능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영석 등(2013)은 실제 상담사례를 대상으로 1급과 2급 상담사들이 사용한 즉시성의 유형과 사용 이유 등을 분석할 때, 1급 상담사들은 2급 상담사들에 비해 즉시성을 2배 이상 더 자주 사용할 뿐 아니라, 즉시성 방식에 있어서도 1급 상담사들은 '상담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언급하기'를 사용한 반면 2급 상담사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1급 상담사들은 2급 상담사들에 비해 '상담사-내담자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나 '상담사의 부정적 감정(실망, 슬픔, 상처)을 이야기하기' 등 역전이를 활용하는 즉시성 개입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급 상담사들은 상담진행에 대한 피드백이나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 감정 표현 등 안전한 유형의 즉시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상담사들은 상담사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더 자주 사용하며, 내담자나 상담관계에 대한 생각과 감정 등 상담사 자신의 역전이를 더 솔직하게 개방하여 개입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증진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개념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사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개념도 연구방법(concept mapping)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역전이를 사용한 즉시성 개입과 관련된 숙련상담사들의 인식 내용과 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사용하는 개념(concept, idea)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으로(Kane & Trochim, 2007; Goodyear et al., 2005), 개념도 연구방법의 몇 가지 특징과 최근 동향을 본 연구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도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에 대해 특정한 집단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부족한 분야에서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할 때 효과적이고(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을 탐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학, 교육학 및 정신건강, 공공의료, 마케팅 분야에서 특히 유용하다(민경화, 최윤정, 2007; Bon-Martens, Goor, & Oers, 2017; Petrucci & Quinlan, 2007; Robinson & Trochim, 2007; Soellner, Lenartz, & Rudinger, 2017). 상담학 분야에서도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지의 인식(최한나, 김창대, 2008), 신에 대한 상담 수련생의 인식(Cashwell et al., 2016),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조직 팀장의 인식(김수임, 2012),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김동일 등, 2019) 등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과 개념에 대한 특정 집단의 인식을 살펴볼 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사용한 즉시성 개입을 선택하기까지 상담사 내면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과정, 개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절차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을 확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개념도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해 물리적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면담, 질문지, 포커싱그룹 등을 통해 수집된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연구(mixed method)라고 할 수 있다(Bedi & Alexaner, 2009; Goodyear et al., 2005). 또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구조화하는 모든 단계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참여자들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때문에(Kane & Trochim, 2007) 연구자 개인의 시각이나 특정 이론이 개입되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인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ohnsen, Beigel, & Shafran, 2000). 본 연구에서도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최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숙련상담사들의 인식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에 혼합연구의 특징을 가진 개념도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최근에는 개념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양적 수치로 확인하여 제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Trochim(1993)이 개념도 연구에서의 신뢰도에 대해 제안한 방식들에 따라 상담학 분야에서도 반분신뢰도 등 4가지 신뢰도 지수를 사용한 개념도 연구들이 수행되었고(Bedi, 2006; Simpson & Bedi, 2012) 여러 연구자들이 Trochim(1993)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Bedi, Cook, & Domene, 2012; Chun, 2018). 국내에서는 최윤정(2019)이 앞으로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들이 개념도의 내적 타당도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고 진술문 평정에 대한 신뢰도 등을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후, 최근 김민정과 최한나(2021)의 연구에서 개념도의 신뢰도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Trochim(1993)이 제안한 신뢰도 분석방법 등을 참고하여 개념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지수를 산출하였고,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이전에는 기술의 한계로 차원의 수를 대개 2차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및 3D 시각화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3차원 공간으로 개념도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Orsi, 2017; McLinden, 2016; McLinden, 2017). McLinden(2016, 2017)은 R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패키지인 smacofSym 패키지를 사용하여 3차원 공간상에서 개념도를 다양하게 시각화할 수 있음을 소개하면서 연구자들을 위한 R 코드를 제공하였고, Soellner, Lenartz와 Rudinger(2017)은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3차원 공간상에서의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국내 상담학 분야에서는 최근 현은정(2022)이 대학상담기관 상담사의 제적위기 학사경고자 상담 경험을 R을 사용하여 3차원 그래픽으로 시각화하는 시도를 처음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3D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3차원 개념도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였고, 3차원 개념도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3차원 시각화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개념도 연구 절차상의 단계에 따라 각각 예비연구 참여자, 아이디어 산출 과정 참여자, 진술문 구조화 과정 참여자로 구분된다. 각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모집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들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결정의 고려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먼저 숙련상담사의 기준이 필요하였다. Overholser(2010)은 임상가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최종 학위, 임상 경력 년수, 전문 자격증, 집단에서 드러나는 정도, 우수한 임상 기술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한 바 있다. 그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인 학위, 임상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가운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사의 발달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상담사의 경력 수준을 우선

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김계현, 문수정, 2000), 학위나 자격증 소지여부가 곧 임상 경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도 상담 경력 년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상담사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경력 수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김혜미, 오인수, 2016),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숙련상담사로 분류된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경력이 10년 내외(박정민, 유성경, 2007;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이수림, 조성호, 2009)인 것을 고려하였고, 둘째, 상담사가 역전이를 사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사용해본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들을 충분히 가지려면 10년 정도의 상담 경력은 필요할 것이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의 기준을 상담 경력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교육(학습) 경력이 아닌 상담 실무 경력을 기준으로 주당 평균 3~5사례의 상담 실무를 시작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조수연, 권경인, 2011) 상담 경력이 10년 이상인 상담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개념도 결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가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Kane & Trochim, 2007), 이를 위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심주제에 대해 통찰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과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표집할 수 있다(Merriam,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상담사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 참여자 기본사항 질문지 상에 1) 나는 정신역동적 접근(정신분석,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애착이론 등) 및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역전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다, 2)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를 잘 자각한다, 3) 나는 상담 중에 경험하는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하여 다루는 즉시성 개입을 익숙하고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등 세 가지 문항에 각각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후, 각 문항에 모두 4점(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숙련상담사에 한하여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면담 참여자 뿐만 아니라 초점질문의 적절성 평정 참여자 및 대표진술문의 적절성 평정 참여자 선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엄격하게 확보함으로써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예비연구 참여자

(1) 예비면담 참여자

2인의 숙련상담사(남자 1인, 여자 1인)가 예비면담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상담전공 박사로서 평균 47.5세이고, 상담경력 평균 20년, 평균 800사례 및 4,250회기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상담사 1급 및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보유하였다. 예비면담 참여자들은 예비면담을 진행한 후, 실제 면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면담의 흐름 및 초점질문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2) 초점질문 적절성 평정 과정 참여자

예비면담을 통해 수정된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 과정에는 3인의 숙련상담사(남자 1인, 여자 2인)가 참여하였다. 평정자들은 상담실무와 교육,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는 상담전공 교수 1인과 상담전공 박사 1인 및 박사수료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고 개념도 연구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 평정자들은 평균 44.6세이며, 상담경력 평균 16년 5개월, 평균 556사례 및 3,187회기를 진행하였고, 3인 중 2인은 전문상담사 1급 및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보유하였다. 평정자들은 연구자가 예비면담을 통해 수정한 면담 안내문 및 초점질문을 검토한 후 초점질문의 적절성에 대해 평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3) 아이디어 산출 과정 참여자

(1) 면담 참여자

숙련상담사 2인과 예비면담을 먼저 진행한 이후 숙련상담사 11인이 면담에 참여하였고, 예비면담을 포함하여 총 13인의 면담 자료를 진술문 추출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13인의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3인, 여자 10인으로, 평균 43.6세였다. 최종 학력은 박사 11인, 박사수료 2인이며, 현재 소속은 대학 교수 또는 강사가 9인으로 가장 많았고, 사설 상담센터 4인, 기업 상담센터 2인, 기타 1인 순이었다. 상담 경력은 평균 16년 6개월로, 평균 686사례 및 5,506회기를 진행하였다. 소지 자격증은 상담심리사 1급 12인, 전문상담사 1급 8인, 임상심리전문가 1인 등이었고(복수 응답), 선호하는 상담접근은 정신역동 9인, 게슈탈트 5인, 인간중심 3인, 실존주의 3인, 인지행동 2인, 기타 4인 등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또한 면담 참여자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숙련상담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7점 척도의 세 가지 선별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1) 정신역동적 접근 및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역전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5.46점(SD = 1.050), 2) 상담 중의 역전이 자각은 평균 5.69점(SD = .855), 3)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효과적인 활용은 5.62점(SD = 1.004)로, 세 가지 문항의 전체 평균은 5.59점(SD = .894)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면담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초점 질문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산출해낼 수 있는 숙련상담사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만)	소속기관	학력	상담 경력	사례수	회기수	자격증	상담접근	이해	자각	활용	평균
참여자 1	여	35	기타(대학 연구소)	박사	10년 6개월	100	1,000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기타	4	5	4	4.33
참여자 2	남	60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	30년	1,500	7,500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정신역동, 인간중심, 실존주의, 게슈탈트	7	7	7	7.00
참여자 3	여	48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	19년	100	2,000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정신역동, 인간중심, 실존주의	6	6	6	6.00
참여자 4	여	41	사설 상담센터	박사	16년 1개월	3,000	15,000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정신역동, 인지행동, 실존주의	5	6	6	5.67
참여자 5	여	44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	19년 1개월	100	1,000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정신역동, 게슈탈트	6	7	7	6.67
참여자 6	여	40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	13년 12개월	300	3,380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정신역동, 기타(PBIM)	6	6	6	6.00
참여자 7	남	51	사설 상담센터	박사	21년	700	7,000	상담심리사 1급	게슈탈트	4	4	6	4.67
참여자 8	남	37	사설 상담센터,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수료	11년 6개월	600	6,500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정신역동	5	5	4	4.67
참여자 9	여	40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	16년 3개월	700	10,000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인간중심, 게슈탈트, 기타(ACT)	7	6	6	6.33
참여자 10	여	35	사설 상담센터	박사수료	10년 4개월	100	1,000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정신역동	4	5	4	4.33
참여자 11	여	47	기업 상담센터,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	10년	420	4,200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정신역동, 인지행동, 게슈탈트	5	5	5	5.00
참여자 12	여	51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	27년	1,000	7,000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정신역동	6	6	6	6.00
참여자 13	여	38	기업 상담센터, 대학 강사 및 교수	박사	11년	300	6,000	상담심리사 1급	기타(절충)	6	6	6	6.00

(2) 기초진술문 추출・종합 과정 참여자

면담 참여자들의 전사 자료에서 진술문을 추출하고 종합(축약)하는 작업을 위해 연구자를 포함하여 3인의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팀 3인은 모두 여자이고 상담전공 박사수료로, 질적연구를 수행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다. 연구팀은 평균 35.7세이고, 상담경력은 평균 9년 2개월, 평균 110사례, 1,236회기를 진행하였다. 3인 중 1인은 전문상담사 1급 및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상호 합의를 통해 기초진술문을 추출하고 대표진술문으로 축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대표진술문 적절성 평정 과정 참여자

연구팀에 의해 선정된 70개 대표진술문의 적절성을 평정하는 과정에 10인의 숙련상담사가 참여하였다. 10인 중 4인은 면담에 참여했던 참여자이고, 6인은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참여자였다. 평정자들의 성별은 남자 3인, 여자 7인으로, 평균 41.3세였다. 최종 학력은 박사 7인, 박사수료 3인이며, 현재 소속은 대학 강사 및 교수가 6인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상담센터 1인, 대학 상담센터 1인 등이었다. 상담경력은 평균 13년 6개월로, 평균 317사례 및 2,600회기를 진행하였다. 소지 자격증은 전문상담사 1급 6인, 상담심리사 1급 6인, 임상심리전문가 1인 등이었고(복수 응답), 선호하는 상담접근은 정신역동 7인, 인간중심 6인, 게슈탈트 4인, 실존주의 3인, 인지행동 1인, 기타 4인 등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평정자로서 대표진술문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담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숙련상담사여야 함이 특히 중요하다. 참여자 선별 질문에 대한 평정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1) 정신역동적 접근 및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역전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5.90점(SD = .876), 2) 상담 중의 역전이 자각은 평균 6.2점(SD = .789), 3)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효

과적인 활용은 5.8점(*SD* = 1.135)로, 세 가지 문항의 전체 평균은 5.97점(*SD* = .933)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표진술문 적절성 평정 참여자들 역시 면담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대표진술문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상담사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진술문 구조화 과정 참여자

면담 참여자 총 13인 중에서 개인 사정으로 이후 절차에 참여가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1인을 제외하고, 12인이 대표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에 다시 참여하였다.

5) 연구 참여자에 대한 안정성 배려 및 연구윤리 준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안정성을 배려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2202/002-002),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연구참여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자발성을 보장하였다. 연구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다'는 점을 서면 및 구두로 안내하였다. 만일 면담 참여자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처리방법 역시 참여자의 의사를 따라 폐기 또는 보관하기로 하였다.

둘째, 개별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확인함으로써 참여자를 보호하였다. 기본적으로 면담은 참여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제3자가 면담 내용을 들을 수 없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고, 참여자가 자신의 역전이 경험을 회상하고 즉시성 개입의 의사결정 과정을 진술하는 동안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는지,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확인하였다. '개인적인 경험을 연구

자에게 진술할 때 그 내용의 범위나 깊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편할 경우 언제든 의사를 표현하면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면담 질문지에 삽입하고 안내하였다.

셋째,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면담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면담 녹취파일은 연구자 1인이 직접 전사하였고, 면담 참여자가 자신의 소속 및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전사자료에서는 기호로 표시하여 익명화하였으며, 상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거나 축약함으로써 내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내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참여자에게 참여자의 면담 전사자료와 해당 자료에서 추출한 진술문 목록을 송부하여 참여자 및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하였고, 참여자가 내용 삭제를 요청한 경우 반영하였다.

넷째,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연구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면담 녹취파일, 사례비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는 각각 자료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 폐기하였고, 비대면 면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식별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고 연구자 소유의 암호화된 보이스레코더를 사용하였다.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연구자료(인구통계학적 정보, 면담 전사기록지, 평정 원자료,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원자료 등)는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개인 노트북에 보관하였고, 연구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6조에 따라 학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최소 5년 이상,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이다.

다섯째, 자료수집 당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대면과 비대면 방식 중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zoom 원격화상 플랫폼을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하거나, 우편으로 진술문 카드와 평정자료를 발송하여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절차

개념도 연구 절차를 구조화한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 절차를 크게 개념도 준비 단계(Preparing for concept mapping), 아이디어 산출 단계(Generating the ideas), 진술문 구조화 단계(Structuring the statements), 개념도 분석 단계(Concept mapping analysis), 개념도 해석 단계(Interpreting the maps),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개념도 활용 단계(Using concept mapping in planning and evaluation)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의 단계에서는 개념도 결과를 사용하여 관련 척도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개념도 활용 절차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개념도의 활용 또한 개념도 연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지만, 이는 본 연구의 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본 연구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의 개념도 연구 절차를 참고하여 수립한 본 연구의 절차는 <표 2>과 같다.

1) 개념도 준비: 예비연구

(1) 예비면담을 통한 면담 질문 개발

개념도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명료하게 한 후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점(focus)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초점 질문을 구체적인 지시문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담사의 역전이, 상담사의 자기개방, 역전이 개방 및 즉시성 개입 등에 관한 문헌연구와 경험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1차로 길라잡이 질문 및 초점질문을 구성하였다. 1차 초점질문은 “선생님께서 상담 회기 중에 상담사의 역전이를 인식하였을 때, 역전이를 개방하는 개입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셨습니까?” 였다.

개념도 연구에서의 브레인스토밍 방식은 연구목적과 연구자 및 참여자

<표 2> 연구 절차 개요

<1단계> 개념도 준비: 예비연구
• 문헌연구 검토를 통해 1차 면담 질문 개발 • 예비면담을 통해 초점질문 수정 • 초점질문의 적절성 평정 후, 최종 면담 질문지 및 초점질문 확정 •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
⇓
<2단계> 아이디어 산출
• 면담 실시 및 전사자료 제작 • 연구팀 사전 오리엔테이션 1회 및 진술문 추출 훈련 3회 • 기초진술문 추출(532개) • 핵심어 코딩 및 분류를 통해 대표진술문 종합(78개) • 대표진술문의 적절성 평정 후, 최종 대표진술문 확정(70개)
⇓
<3단계> 진술문 구조화
• 대표진술문 유사성 분류 • 대표진술문 중요도 평정
⇓
<4단계> 개념도 분석
• 다차원척도법 실시: 차원의 수 결정 • 계층적 군집분석 실시: 군집분석 방식 및 군집의 수 결정 • 개념도 작성
⇓
<5단계> 개념도 해석
• 개념도 차원과 군집 해석 • 대표진술문의 중요도 분석

의 여건에 따라 대규모의 집단 워크샵, 소그룹 면담 또는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거나, 서면,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참여자가 없이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 단어나 진술문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

법도 가능하다(Kane & Trochim, 2007).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숙련상담사의 역전이 경험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의사결정 과정은 상담사의 매우 개인적이고 내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각 상담사마다 경험한 상담사례에서의 특수적인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 질문지 또는 소그룹 면담 방식으로는 풍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역전이 장면의 개별적인 맥락들을 깊고 풍부하게 살려내고, 찰나에 일어나는 인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탐색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방법을 개별 면담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1차 질문지를 사용하여 숙련상담사 2인을 대상으로 1차 예비면담을 실시하였고, 예비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도 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교수 3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2인에게 '개입하기로 의사결정한 경우'와 '개입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경우'를 모두 묻게 되면 초점질문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면담 참여자의 인지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차원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개입하기로 의사결정한 경우'의 한 방향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다른 1인에게는 초점질문에서 '요인'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참여자의 다음 대답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피드백들을 반영한 2차 초점질문은 "선생님께서 상담사의 역전이를 인식하셨을 때,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셨습니까?" 였다. 초점질문의 방향을 '개입하기로 의사결정한 경우'로 분명하게 설정하되,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가 브레인스토밍을 어려워하는 경우 참여자의 성찰을 촉진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경우'인 반대 상황을 떠올려보게 한 후 그에 비추어 다시 개입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을 뒤집어 생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다.

2차로 길라잡이 질문 및 초점질문을 구성한 후, 박사수료 이상 3인의 전문가에게 면담질문지를 제시하고 초점질문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표 3>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 결과 (N=3)

적절성 평정 기준	평균	표준편차
1) 질문이 숙련상담사의 역전이 개방 의사결정 요인을 상세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5.00	.000
2) 질문이 숙련상담사의 의견을 제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가?	4.67	.577
3)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5.00	.000

평가를 받았다. 은혜경(2010)이 마련한 적절성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1) 질문이 숙련상담사의 역전이 개방 의사결정 요인을 상세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2) 질문이 숙련상담사의 의견을 제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가 3)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각 5점 척도(1: 매우 부적절, 3: 보통, 5: 매우 적절)로 평정하게 한 후,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 초점질문에서 보완할 점이나 전체적인 면담 질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 자료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 결과는 <표 3>과 같이, 세 가지 기준 모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점질문의 보완 의견으로는 연구에서 설정한 역전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서두에 먼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초점질문에서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개입을 사용하기로' 라는 표현이 의미가 중복되므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면담 질문지를 보완하였고, 초점질문을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셨을 때,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셨습니까?"로 확정하였다. 이상의 면담 질문 개발 과정은 <표 4>와 같다.

(2)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표 4> 면담 질문 개발 과정

1차 질문
길라잡이 질문: 1. 선생님의 상담에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사의 역전이를 분명하게 인식했던 회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2. 당시 역전이 장면에서 선생님은 어떠한 내적 경험(인지적/정서적 반응)을 하셨습니까? 3. 당시 역전이 장면에서 선생님은 어떠한 외적 경험(행동적 반응)을 하게 되셨습니까? 4. 선생님께서 인식하신 역전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5.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개방하는 개입에 대해서도 고려하셨습니까? **초점질문**: 상담과정에서 상담사의 역전이를 인식하였을 때, 역전이를 개방하는 개입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셨습니까?
⇓
예비면담 및 감수 후 2차 질문
길라잡이 질문: 1. 선생님께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사의 역전이를 분명하게 인식했던 사례나 특정 회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2. 당시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역전이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역전이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3. 당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역전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자각하고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역전이 경험이 무엇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4. 선생님께서 인식하신 역전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개방하셨습니까? **초점질문**: 선생님께서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셨을 때,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셨습니까?
⇓
초점질문의 적절성 평정 후 최종 질문
길라잡이 질문: 상동 **초점질문**: 선생님께서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셨을 때,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셨습니까?

예비면담 이후, 본 면담에 참여할 숙련상담사를 모집하기 위해 먼저 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의 지역별 수퍼바이저 검색을 통해 정보공개에 동의한 1급 상담심리 전문가 명단에서 숙련상담사의 이메일을 수집하였고,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연구 참여를 수락한 숙련상담사들에게 유선 상으로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상담경력 10년 이상 및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한 후, 면담 참여자용 IRB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부록 2)와 연구 참여자 기본사항 질문지(부록 3)를 발송하였다. 연구 참여자 기본사항 질문지에서 8번 문항의 참여자 선별을 위한 세 가지 질문에 각각 7점 만점에 4점 이상 응답한 경우 면담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개념도 연구에서 아이디어 산출 과정 참여자 수에 제한은 없으나, Kane과 Trochim(2007)은 통상 최소 10인 이상 40명 이내의 참여자 수를 권장하고 있다. 가능한 많은 참여자 수를 확보할 수록 분석에 사용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므로 결과가 더 명료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Trochim, 1993), 참여자 수가 너무 많으면 연구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등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하므로 관리에 적절한 인원은 8~20명 정도라고 제안되는 점(Trochim, 1989)을 적절히 고려한 숫자라고 하겠다. 최윤정(2019)이 수행한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산출 참여자 수의 중위값이 11인(최소 3인, 최대 156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면담 참여자를 15인 내외로 예상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면담을 종료하였다.

2) 아이디어 산출 과정

(1)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면담 진행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개별 면담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승인일(2022년 1월 25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면담 참여자가 대면과 비대면 면담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였고, 비대면 면담인 경우 zoom 원격화상 플랫폼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전에 연구자가 미리 참여자의 이메일로 IRB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부록 2)와 면담 질문지(부록 4)를 송부하여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고, 면담을 시작할 때 IRB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연구주제, 목적과 절차, 연구 윤리 준수사항 등을 다시 한 번 구두로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 또한 면담 참여자에게 초점질문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동일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Kane & Trochim, 2007), 면담 질문지를 함께 살펴보며 참여자에게 질문을 받고 설명함으로써 참여자가 초점질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면담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최소 1시간 8분에서 최대 2시간 6분까지,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에서는 먼저 상담사가 역전이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즉시성 개입을 사용했던 최근의 사례나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사례를 떠올리도록 하였고, 참여자가 그 사례에서 어떤 역전이를 경험했고 자신의 역전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방하면서 즉시성 개입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였던 점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으로 나아갔다. 상담사례를 떠올리도록 하는 이유는 생생한 맥락을 상기하여 브레인스토밍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므로, 참여자가 상담사례 자체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경우 초점질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다시 조율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에 특히 집중하였다. 첫째, 면담 질문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참고하되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전이 경험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의사결정 과정을 깊고 생생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질문하였다. 둘째, 참여자의

말을 재진술함으로써 연구자와 참여자가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가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참여자들이 “면담을 통해 내가 그동안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발견하고 통찰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참여자의 진술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면담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예컨대 참여자가 “내담자가 정신화 능력이 있었다”고 말한 경우, “정신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내담자의 상태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실 수 있을까요?”와 같이 질문함으로써 정신화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끌어냈다. 넷째, 면담을 마무리하기 전에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연구자가 이해한 바대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10번째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했을 때 이전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과 중복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11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사용하여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들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2) 기초진술문 추출

예비연구 참여자 2인을 포함한 총 13인의 면담 녹음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들으며 전사하였다.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단어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사하되, 참여자의 소속이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익명처리하였고, 내담자 보호를 위해 초점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세한 사례 소개는 생략하였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가 면담 시 직접 삭제를 요청한 부분 역시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전사자료에서 역전이를 사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진술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연

구팀(상담전공 박사수료 3인)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전미팅(1시간)을 통해 연구자를 제외한 2인의 연구팀 참여자들에게 연구주제 및 진술문 작업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상의하였고, 연구팀의 진술문 추출 훈련을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훈련(3시간)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1의 전사자료에서 미리 추출해온 진술문들을 다 같이 읽으며 진술문 추출 방식과 원칙을 공유하였고, 참여자의 면담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략적인 진술문의 범주를 마련하여 초점질문의 답에 해당하는 진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합의된 진술문 추출 범위는 <표 5>와 같다. 먼저 역전이를 사용한 즉시성 개입의 목적에 대한 진술, 즉시성 개입과 관련된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판단, 그리고 역전이와 즉시성 개입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대한 진술은 진술문 추출 범위로 포함하였다. 반면, 면담 참여자가 역전이 경험 자체만을 묘사하거나, 역전이임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낀 것에서 멈춘 진술이거나, 역전이를 사용한 즉시성 개입을 하기로 의사결정한 순간 자체에 대한 진술은 제외하였고, 의사결정 이후 실제 자신이 어떻게 개입했으며 개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전문가로서 알려주는 진술 역시 제외하였다.

2차 훈련(3시간)에서는 연구팀 3인이 각자 참여자3의 전사자료를 미리 읽으면서 진술문 추출 범위라고 판단되는 문장에 표시를 해온 후, 만나서 확인하면서 합의를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였고, 3차 훈련(3시간) 역시 참여자10의 전사자료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진술문 추출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훈련 과정을 통해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팀 3인이 진술문 추출 범위와 방식에 대한 충분한 상호이해와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남은 전사자료를 연구팀 3인이 나누어 개별적으로 진술문을 추출하였고, 개별작업을 통해 추출된 465개의 진술문을 모여서 함께 검토하여 합의를 통해 91개 진술문(19.6%)을 수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1차로 도출된 기초진술문은 606개였다. 진술문의 번호는 '연구참여자 번호-전사자료 상에서 해당 진술문이 추출된 곳의 연번(예: 3-230)' 형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진술문의 맥락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자

<표 5> 연구팀이 합의한 기초진술문 추출 범위

범주명	내용	여부
경험	역전이 경험 자체에 대해 묘사하는 진술 (예: 그 내담자를 만날 때 자꾸 무력감이 들었다.)	제외
상황 인식	역전이임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낀 것에서 멈추는 진술. 개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진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대화는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외
개입 목적	개입의 목적에 대한 진술 (예: 내담자가 자기의 관계패턴을 알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포함
전문적 판단	개입과 관련된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진술 (예: 내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포함
기본 신념	역전이와 즉시성 개입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대한 진술 (예: 역전이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포함
의사결정	개입을 하기로 의사결정한 순간 자체에 대한 진술 (예: 나를 오픈하기로 결정했다.)	제외
개입 실행	실제 개입했던 방향과 내용, 개입 시의 유의점에 대한 진술 (예: 역전이를 개방할 때는 먼저 내담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쪽으로 표현한다.)	제외

료를 찾기 쉽도록 하였다. 전사자료에서 기초진술문을 추출하는 과정의 예시는 <부록 5>에 수록하였다.

606개의 진술문은 대부분 초점질문과 같이 '개입을 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한 점'에 대한 진술문이었지만, 그 중 131개의 진술문은 '개입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한 점'을 언급한 역방향 진술문이었다(예: '내담자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면담 과정에서 활발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역방향 진술문이 섞여있는 경우 불필요한 차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상담교수 2인의 자문을 반영하여, 역방향 진술문은 가

능한 경우 의미를 살려 수정하였다. 131개의 역방향 진술문 중에서 1) 문장을 뒤집었을 때 의미가 정확하게 잘 살려지는 56개 진술문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예: '1-70. 내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다.'를 '내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로 수정), 2) 문장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한 69개 진술문은 제외하였으며, 3) 문장을 뒤집었을 때 의미전달은 되지만 유효하지 않은 6개 진술문(예: '4-469. 내담자가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혼란감이 큰 응급 상태여서 작업을 할 상황이 아니다.'를 '내담자가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로 수정하면 개입하기로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은 진술문이 됨)은 제외하였다.

진술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첫째, 진술문은 회기 중의 생생한 인식을 살리기 위해 면담 참여자가 과거형으로 진술한 문장인 경우 현재형 또는 현재진행형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숙련상담사 자신을 지칭할 때 3인칭('상담사는…')이 아닌 1인칭('나는…')으로 기술하였다. 셋째, 참여자의 진술에 의사결정의 근거와 의사결정이 함께 포함된 경우('…하기 때문에(의사결정의 근거) 역전이를 개방해도 되겠다(의사결정)') 진술문을 의사결정의 근거에 대한 표현으로 단순하게 종결하였다. 예컨대 '내담자가 성찰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를 개방해도 되겠다'를 '내담자가 성찰능력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면담 참여자 별로 추출된 기초진술문의 수는 최소 24개에서 최대 55개로, 참여자별로 평균 40.92개(SD = 8.281)가 추출되었다. 532개 기초진술문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13인의 면담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면담 전사자료와 해당 자료에서 추출한 기초진술문 목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1) 기초진술문이 참여자의 진술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 2) 전사자료 및 기초진술문에서 참여자와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6인의 참여자가 기초진술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여 42개의 기초진술문을 수정하였고, 3인의 참여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반영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 532개의 기초진술문이 마련되었다.

(3) 기초진술문 종합

추출된 기초진술문 532개를 축약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의 진술문 구조화 절차를 통해 양질의 개념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진술문의 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Kane과 Trochim(2007)은 참여자들의 인지적인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진술문의 개수를 100개 이하로 축약할 것을 권장하였고,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최종 진술문 수는 최소 25개에서 최대 100개로 평균 60.77개로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최윤정,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진술문의 개수를 100개 이하로 축약하고자 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진술문 종합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진술문의 핵심어를 선택한다. 둘째, 핵심어나 주제 또는 기타 개념적 영역에 따라 진술문들을 묶는다. 셋째, 유사한 진술문 묶음 안에서 어떤 진술문들이 해당 진술문 묶음에 유지될 것인지를 연구 참여자들과 합의한다. 넷째, 진술문의 문장 형태가 유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쉽게 전달되도록 문장을 명료하게 수정한다. 다섯째, 한 진술문에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경우 각 의미단위 별로 진술문을 분리한다. 이상의 Kane과 Trochim(2007)의 절차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초진술문을 축약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중복되는 진술문의 분류와 축약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엑셀시트에서 기초진술문 목록에 각각 핵심어를 코딩하였다. 기초진술문의 핵심어 코딩 결과 핵심어 대분류 13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34개로 핵심어가 부여되었다.

둘째, 연구자가 핵심어에 따라 기초진술문을 재정렬하여 의미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진술문끼리 묶고, 다른 묶음들과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배타적인 묶음인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총 95개 묶음이 도출되었다. 이 중 연구 참여자 중 2인 이상이 공통으로 언급한 진술문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Bedi(2006)의 제안에 따라, 1인의 면담 참여자만

언급한 14개 묶음을 제외하였다. 또한 묶음 내의 진술문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3개 묶음도 제외하였다. 예컨대 '상담관계를 신뢰함'이라는 핵심어 중분류에 속하는 묶음들 중에서, '상담사 신뢰'라는 핵심어 소분류로 묶인 묶음은 '9-25. 내담자가 나를 신뢰하는 것 같다는 감이 온다.', '9-65. 내담자는 나를 충분히 믿고 있다.', '10-276. 내담자가 나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것 같다.' 등의 유사한 진술문들로 구성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사의 무엇을 신뢰하는지 혹은 무엇을 볼 때 내담자가 상담사를 신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였다. 반면 같은 중분류 안에서 '상담사에게 이해/공감받고 있다는 신뢰'라는 핵심어 소분류로 묶인 묶음은 '12-40. 내담자는 내가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있다는 신뢰 경험이 있다.', '6-329. 내담자가 나를 솔직한 사람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묶음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95개 묶음 중 17개 묶음을 제외하고 78개 묶음을 선정하였다.

셋째,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팀 3인이 모여 연구자가 1차로 분류한 묶음이 서로 의미가 배타적인 묶음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각 묶음 내의 진술문들이 다른 묶음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팀 합의를 통해 연구자가 묶었던 2개의 묶음이 1개의 묶음으로 통합되었고, 1개의 묶음이 2개의 묶음으로 분리되었다. '개입 수용가능'이라는 핵심어 소분류 묶음의 진술문들('11-248. 이 역전이를 사용해서 다루는 작업을 내담자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다.', '12-280. 내가 역전이를 개방해도 내담자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등)은 '개입 수용가능-살짝 해보니'라는 핵심어 소분류 묶음의 진술문들('1-314. 살짝 개방을 해보니 내담자가 나의 역전이 개방을 받아줄 심리적인 역량이 되는 것이 보인다.', '5-470.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내담자에게 살짝 보여준 뒤 내담자의 반응이 내담자의 반응을 지켜보니 더 가도 괜찮겠다.')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한 묶음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위 묶음과 의미가 유사하지만 이전에 다른 개입을 했을 때의 내담자 준비도를 판단하는 '다른 개입을 해보니'라는 핵심어 소분류 묶음

의 진술문들('4-166. 질문이나 해석 등 다른 개입을 할 때 내담자의 반응이 더 이상 자책으로 가지 않는 걸 보니 이제 즉시성 개입을 할 준비가 되었다.', '9-110. 즉시성이 아닌 직면과 같은 사전 워밍업 작업을 통해 내담자가 준비되었다.')은 별도의 묶음으로 의미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분리되었다.

넷째, 합의된 78개 묶음마다 대표진술문을 각각 1개씩 작성하였다. 대표진술문을 작성할 때는 연구자가 각 묶음 안에서 해당 묶음을 가장 잘 대표하고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술문을 한 가지 선택하거나 여러 진술문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대표진술문을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Campbell & Salem, 1999; Trochim, 1989). 또한 연구팀 3인이 모여서 대표진술문들이 각 묶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잘 담고 있는지,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를 검토하여 6개의 대표진술문을 수정・보완하였다. 묶음별로 대표진술문을 작성한 예시는 <표 6>와 같다.

(3) 대표진술문의 적절성 평정을 통해 최종 대표진술문 목록 도출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내용들을 담은 78개의 대표진술문의 문장들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숙련상담사 10인의 평정팀을 구성하였다. 이때 면담 참여자 4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면담 참여자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던 숙련상담사 6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 역시 확보하고자 하였다. 평정자 10인에게 각 대표진술문에 대해 전반적인 적절성을 5점 척도(1: 매우 부적절, 3: 보통, 5: 매우 적절)로 평정 받았고, 1) 각 진술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가? 2) 여러 진술문들의 의미가 중복되어 통합이 필요한가? 3) 한 진술문에 2개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분리가 필요한가?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대표진술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받았다. 대표진술문 적절성 평정 안내문 및 작업시트는 <부록 6>에 수록하였다.

그 결과 대표진술문들의 적절성 점수는 평균 4.8점(SD = .37)으로, 평

<표 6> 기초진술문 묶음별 대표진술문 작성 예시

핵심어 중분류	핵심어 소분류	묶음별 기초진술문 및 대표진술문
개입했을 때 감정 홀딩가능	감정에 압도되지 않음	대표진술문 3.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감정에 압도되어 액팅아웃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1-315. 내담자가 상담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자아강도가 있다.
		2-253. 내담자가 오늘 이 순간에 과잉반응이나 과소반응을 하지 않고 머물러있을 수 있을 것 같다.
		3-80. 내담자가 상담사의 즉시성 개입에 액팅 아웃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3-99. 내담자가 내가 오픈했을 때 나의 반응에 무서움으로 확 압도되지 않고 버틸 것 같다.
		3-103. 내담자가 자기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액팅아웃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
		7-177. 내담자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심리적 스페이스가 생긴 것이 보인다.
		10-272. 내담자가 너무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다.
		10-274. 내담자가 나의 개입에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할 것 같지는 않다.
개입했을 때 감정 홀딩가능	개입에 기분나쁘더라도 성찰	대표진술문 4. 내담자가 나의 역전이 개방에 좀 아프고 민망하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자기이해로 작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4-378. 내담자가 나의 역전이 개방에 좀 아프고 민망하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자기이해로 작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10-216. 상담사의 역전이 개방에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것으로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내담자이다.
		10-242. 내담자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를 계속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10-281. 상담사의 작업에 순간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감정을 돌아보고 자기 이해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내담자이다.

정자들은 대표진술문들이 상당히 적절하게 진술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정자들의 적절성 점수를 바탕으로 Lawshe(1975)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CVR 지수는 전체 평정자(N) 중에서 '적절(4점)' 또는 '매우 적절(5점)'로 응답한 평정자들(n_e)의 비율로 산출되며, 구체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CVR = \frac{n_e - (N/2)}{N/2}$$

Lawshe(1975)는 평정자 수에 따라 각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CVR의 임계값을 제시하였는데, Lawshe(1975)에 따르면 평정자 수가 10인일 경우 CVR 값은 최소 .62로 제안된다. 본 연구에서 78개 대표진술문에 대한 CVR 점수는 최소값 .4에서 최대값 1.0, 평균 .9로 나타나 내용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CVR 최소값 .62에 미달하는 대표진술문은 6개로, 해당 진술문들을 포함하여 각 진술문의 의미가 명료해지고 다른 진술문과 차별화되도록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37개의 대표진술문이 더 명료하게 수정되었고, 8개의 대표진술문이 다른 진술문과 통합되면서 삭제되었다.

의미를 명료하게 수정한 진술문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2.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느낌이나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는 비슷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로 간결하게 수정하였고, '36.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숨기고 방어하고 싶은 감정이 나에게 오는 투사적 동일시인 것 같다.'는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자각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방어하고 싶은 감정을 내가 대신 느끼는 투사적 동일시인 것 같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통합된 진술문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8. 내담자가 자기 감정과 문제를 돌아보는 성찰 능력이 있다.'와 '10.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능력이 있다.'가 의미가 중복된다는 평정자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진술문을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이 있다.'로 통합하였다. 또한 '12.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만 빠져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와 '13. 내담자가 이전과 달리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자기와 관계맺는 한 존재로서 인식하기 시작한다.'가 의미가 중복된다는 평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진술문을 '자기에게만 빠져있던 내담자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자기와 관계맺는 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로 통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 대표진술문이 70개로 도출되었다. 핵심어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던 유사한 진술문들이 근접한 번호로 제시될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표진술문 번호는 무작위로 다시 배정하였다. 최종 대표진술문 목록은 Ⅳ.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3) 진술문 구조화 과정

최종 대표진술문을 확정한 후, 진술문 간의 유사성을 분류하고 진술문들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면담 참여자 총 13인 중에서 개인 사정으로 이후 절차에 참여가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1인을 제외하고 12인이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를 먼저 실시한 후, 다음으로 진술문의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중요도 평정을 먼저 하면 각 진술문에 대한 참여자의 중요도 지각이 진술문 유사성 분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진술문 유사성 분류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성 분류 작업을 먼저 함으로써 진술문들의 내용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중요도 평정 시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Kane & Trochim, 2007).

먼저 유사성 분류 작업을 위해 70개의 카드(10×3cm)를 제작하여, 한 카드에 한 개의 대표진술문을 수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록 7> 같이 안내문과 기록시트를 제공하여 작업 절차를 설명하였다. 참여자가

총 70개의 진술문 카드를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카드끼리 자유롭게 분류하도록 하였고, 참여자가 생성하는 분류 묶음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1) 모든 진술문 카드들을 전부 단일한 묶음으로 구성할 수 없고(즉, 70개 카드를 한 묶음으로 구성할 수 없음), 2) 한 묶음에는 두 개 이상의 진술문이 있어야 하며(즉, 한 개의 진술문만으로 한 묶음을 구성할 수 없음), 3) 각 진술문은 한 개의 묶음에만 들어갈 수 있다(즉, 한 진술문이 두 개의 묶음에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음)는 제한을 두었다 (Kane & Trochim, 2007). 연구 참여자가 분류를 마친 후에 한 묶음씩 해당 묶음의 진술문 카드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해당 묶음으로 분류한 이유를 고려하여 범주 제목을 붙인 후, 기록시트에 범주 제목과 진술문 번호를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술문 유사성 분류 결과, 12인의 연구 참여자들이 생성한 범주의 개수는 최소 6개에서 최대 21개로, 평균 12.9개(SD = 8.281)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70개의 대표진술문 목록을 다시 제시하고, 각각의 진술문이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점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1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 4점: 보통, 7점: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받았다. 이때 대표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평정은 진술문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Kane과 Trochim(2007)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참여자가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전체 진술문 목록을 빠르게 한 번 훑어본 다음, 1점부터 7점까지 가능한 모든 점수를 사용하여 평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상의 대표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를 요청한 참여자 2인에게는 제작한 진술문 카드와 안내문 및 기록시트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시트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회신받았다.

4) 개념도 분석 과정

진술문 구조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의 지도를 그리는 분석 과정은 개념도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Kane & Trochim, 2007). Kane과 Trochim(2007)이 개념도 분석 과정을 유사성 행렬표 제작, 유사성 행렬표에 대한 다차원척도법 분석, 다차원 척도법 결과값을 사용한 계층적 군집분석 순으로 제안한 바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대표진술문들을 유사한 진술문끼리 묶음으로 분류한 원자료를 사용하여, 같은 묶음으로 분류된 진술문들은 0으로, 다른 묶음으로 분류된 진술문들은 1로 코딩하여 비유사성 행렬표(dissimilarity matrix)를 작성하였다. 비유사성 행렬표는 연구 참여자별로 각각 제작하여 총 12개의 70×70 정방대칭형의 비유사성 행렬표가 마련되었고, 개인 비유사성 행렬표를 합산하여 집단 비유사성 행렬표(group dissimiliarty matrix)를 제작하였다. 비유사성 행렬표는 숫자가 클수록 해당 두 진술문 짝이 같은 묶음이라고 분류한 참여자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사성 행렬표와 집단 비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는 <표 7>과 같다.

둘째, 집단 비유사성 행렬표를 사용하여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으로 ALSCAL 방법으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 Kruskal & Wish, 1978)은 판단자의 주관적 심상에 따라 특정한 기준(차원)들에 의하여 자극들을 분류한 결과들을 사용하여, 주어진 심리적 자료를 특정한 원점과 단위를 가지는 숫자체계로 변환한 후 본래의 심리적 자료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으로서, 유클리드 함수로 거리를 산출하여 참여자들이 판단한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을 공간적 거리로 표상하는 방법이다(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의 기법들 중에서는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 Young, Takane, & Lewyckyi, 1978) 방법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여러 통계 패키지에서도 사용이 용이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

<표 7> 비유사성 행렬표 작성 예시

진술문 1~10에 대한 참여자 1의 묶음 분류 결과:

묶음 1) 3, 5, 8　　묶음 2) 2, 6

묶음 3) 1, 4, 7　　묶음 4) 9, 10

참여자1의 비유사성 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1	0									
2	1	0								
3	1	1	0							
4	0	1	1	0						
5	1	1	0	1	0					
6	1	0	1	1	1	0				
7	0	1	1	0	1	1	0			
8	1	1	0	1	0	1	1	0		
9	1	1	1	1	1	1	1	1	0	
10	1	1	1	1	1	1	1	1	0	0

⇨

5인의 집단 비유사성 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1	0									
2	5	0								
3	5	4	0							
4	2	5	5	0						
5	5	4	2	5	0					
6	5	0	4	5	4	0				
7	0	5	5	2	5	5	0			
8	5	3	3	5	3	3	5	0		
9	5	5	5	3	5	5	5	5	0	
10	5	5	5	3	5	5	5	5	0	0

다(박광배,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도 ALSCAL 방법으로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산출된 합치도 지수(Stress Value)와 설명량(R^2)을 고려하여 차원의 수를 3차원으로 결정하였다.

셋째,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진술문들의 차원별 좌표값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erberg, 1973; Everitt, 1980)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에서는 산점도의 각 요소들을 유사한 개념을 반영하도록 묶어 군집을 형성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Kane과 Trochim(2007)은 경험적으로 Ward의 방법이 거리에 기반하여 군집을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더 군집을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Ward의 방법, 중심값 연결법(centroid-linkage), 평균연결법(average-linkage)의 덴드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군집의 수와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Ward 방법으로 최종 결정하여, Ward 방법의 7개 군집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개념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Trochim(1993)이 제안한 신뢰도 분석 방법에 따라, 비유사성 행렬표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분 전체 행렬 신뢰도 계수(Split-Half Total matrix reliability; r_{SHT})를 산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가 참여자 간에 서로 일치하는지 분석하였고, 진술문 중요도 평정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평정 간 신뢰도(Average Rating-to-Rating reliability; r_{RR})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중요도 평정이 서로 일치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5. 개념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절에서 제시하였다. 이상의 신뢰도 분석은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 개념도 해석 과정

도출된 개념도의 차원과 군집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시각화하였다. SPSS 프로그램으로는 3차원 공간을 시각화하기 어려워 많은 지각적 왜곡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SPSS에서 산출된 차원별 좌표값을 사용하여 자료의 시각화(data visualization)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R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시각화하였다. R에서 3차원 시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패키지로는 scatterplot3d, rgl, plotly 패키지 등이 있다. 각각 비교해본 결과 scatterplot3d 패키지는 코드가 쉬운 반면 3차원 공간의 회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rgl 패키지는 3차원 공간을 회전시키며 확인할 수는 있지만 코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plotly 패키지는 코드가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3D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plotly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된 도표와 사용자 간의 즉각적이고 동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랙티브 시각화(Interactive visualization; Buja, Cook, & Swayne, 1996; Khan & Khan, 2011)를 구현함으로써, 3차원 개념도의 효과적인 해석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3차원 도표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자가 3D 도표를 360° 로 회전시키면서 각 차원과 군집에서의 진술문이 3차원 공간상에 어떻게 위치해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3차원 도표 상의 한 점으로 커서를 이동하면 해당 진술문의 번호와 x, y, z 좌표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군집 별로 색상이 다르게 출력되도록 지정함으로써 각 군집이 3차원 공간상에 어떻게 위치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우측의 군집 목록에서 특정 군집을 클릭하면 해당 군집만 선택적으로 도표에 보이도록 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념도의 시각화를 위해 사용한 R plotly 패키지 코드 및 다운로드 링크는 <부록 8>에 수록하였다.

또한 차원과 군집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차원 평면으로도 도표를 시각화하였다. 2차원 도표의 시각화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R ggplot2 패키지를 사용하여 x축과 y축이 각각 1차원과 2차원, 2차원과 3차원, 1차원과 3차원으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 도표를 세 개로 만들어, 2차원 평면 상에서도 각 차원과 군집에 따라 진술문들을 살펴보았다. 본래 3차원 공간상에 떠 있던 군집을 2차원 평면 상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원 평면에서는 군집들의 위치가 서로 겹쳐서 제시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군집의 색상을 다르게 지정하여 각 군집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도표 및 2차원 도표를 활용하여, 각 차원별로 양 극단(좌표값 -2 ~ -1, +1 ~ 2)에 위치한 진술문들을 살펴보면서 축의 의미를 발견하고 차원의 정적 극단과 부적 극단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름을 부여하였으며, 각 군집에 소속된 진술문들을 살펴보면서 군집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름을 부여하였다.

4. 개념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으로 도출된 개념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1) 개념도의 신뢰도 확인

전통적으로 연구 자료의 신뢰도는 문항 간 상관이나 반복측정 신뢰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하지만 개념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유사성 행렬표 또는 비유사성 행렬표 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다(Bedi, 2006; Trochim, 1993; Rosas & Kane, 2012). 개념도의 신뢰도를 분석할 때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할 수 없는데, 행렬 자료에 대한 Cronbach's alpha를 산출하는 방법이 알려진 바가 없고 가능하다고 해도 매우 시간이 낭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Trochim,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ochim(1993)이 제안한 개념도 신뢰도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 유사성 분류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분 전체 행렬 신뢰도 계수(Split-Half Total matrix reliability; r_{SHT})를 산출하였다. 이 계수는 참여자들을 연번에 따라 홀수 6인, 짝수 6인으로 반분하여, 홀수 참여자들의 집단 비유사성 행렬과 짝수 참여자들의 비유사성 행렬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Spearman-Brown 공식으로 교정하는 것이다(Trochim, 1993). 분석 결과, 홀수 참여자들의 집단 비유사성 행렬과 짝수 참여자들의 비유사성 행렬 간의 상관계수는 r = .854(p < .01)로 나타났고, Spearman-Brown 교정계수는 .921로 나타났다. Rosas와 Kane(2012)의 개념도 메타연구에 따르면 개념도 연구들의 신뢰도 계수는 .63 ~ .96 사이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수행한 진술문 유사성 분류가 참여자 간에 높은 일치도를 보이므로, 본 연구의 비유사성 행렬표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 중요도 평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평정 간 신뢰도 계수(Average Rating-to-Rating reliability; r_{RR})를 산출하였다. 이 계수는 평정자 12인 중 각각의 두 평정자 쌍의 상관계수를 모두 계산하고 그 상관계수들의 평균을 계산한 후, Spearman-Brown 공식으로 교정하는 것이다(Trochim, 1993).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 평정자 12인의 각 쌍의 상관계수들의 평균은 r= .694, Spearman-Brown 교정계수는 .819로 나타나, Rosas와 Kane(2012)이 제안한 신뢰도 계수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수행한 진술문 중요도 평정이 평정자 간에 높은 일치도를 보이므로, 중요도 평정의 내적 일관성 역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개념도의 타당도 확인

(1) 자료 수집의 타당도 제고

질적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가치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실성, 즉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Lincoln & Guba, 1985), 여러 문헌에서 참여자 확인, 동료 검토, 감사 추적, 장기간의 현장조사,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 등의 많은 타당도 확보 기법들이 제시되어 왔다(나장함, 2017; Guba & Lincoln, 1989; Huberman & Miles, 1985; Lincoln & Guba, 1985). 이들은 모든 질적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법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질적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타당도 기법들이면서 개념도 연구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 확인, 동료 검토, 감사 추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은 수집된 자료가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참여자에게 직접 확인받는 것을 의미하는데(Hammersley, 1992; Lincolo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면담 전사자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진술문들이 면담 참여자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면담 참여자들에게 전사자료와 추출된 진술문 목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의견을 받은 후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둘째,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또는 critical friend review)는 동료들을 통해 연구자의 분석과 가정을 살펴보고 성찰에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Baillie, 2015; Lincolon & Guba, 1985; Patton, 2015),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경험 및 개념도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박사수료 2인

을 포함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 1인이 임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하지 않고, 전사자료에서 기초진술문을 추출·종합하고 대표진술문 마련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팀의 논의와 합의를 거쳤다.

셋째, 감사 추적(audit trail 또는 expert audit review)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감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Lincoln & Guba, 1985; Patton, 2015), 본 연구에서는 초점질문 개발 단계에서 질적연구 수행 및 개념도 연구 참여 경험이 있는 숙련상담사 3인에게 초점질문의 적절성을 평정받았고, 역전이를 사용한 즉시성 개입을 잘 활용하는 숙련상담사 10인에게 대표진술문의 적절성 평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 개념도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상담교수 5인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하였다.

(2) 개념도의 내적 타당도 확인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합치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개념도의 내적 타당도란 산출된 개념도가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과 판단을 잘 반영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합치도 지수와 형태 유사성(configural similarit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edi, 2006; Gol & Cook, 2004; Jackson & Trochim, 2002; Rosas & Kane, 2012; Trochim, 1993). 본 연구에서는 합치도(stress value)를 통해 개념도의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는데, 합치도는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행렬 자료와 산출된 경로 간의 거리 사이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값이 적을수록 원래의 자료와 산출된 결과와의 일치성이 높다(박광배, 2000; Kruscal & Wish, 1978). 본 연구에서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3차원의 합치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273으로 선행연구들(Rosas & Kane, 2012; Trochim, 1993)의 합치도 지수 기준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개념도는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군집분석 결과의 타당도 제고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거쳤다. 첫째, 일반적으로 개념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층적 군집분석의 Ward 방법 외에도 중심값 연결법, 평균연결법 결과를 비함으로써, 여러 방법 중에서 군집의 수와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Ward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군집의 수를 결정할 때 참여자들이 분류한 묶음의 수와 선행연구의 군집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먼저 진술문 유사성 분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하였던 묶음의 개수군집의 수가 최소 6개, 평균 12.9개였던 것을 고려할 때 4개 군집보다 7개 군집이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군집의 수가 최소 3개 이상일 것을 제안한 Kane과 Trochim(2007)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최윤정(2019)의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개념도 연구들의 평균 군집 수가 5.23개였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군집 수를 최종 7개로 결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내용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숙련상담사 13인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팀 3인이 13인의 면담 전사자료를 바탕으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과 관련된 532개의 기초진술문을 합의를 통해 추출하였다. 연구팀은 532개의 기초진술문을 핵심어 코딩을 통해 중복되는 진술문끼리 묶어 78개의 대표진술문으로 축약하였고, 10인의 숙련상담사에게 대표진술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을 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70개의 대표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관한 대표진술문은 <표 8>과 같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70개 대표진술문의 각 묶음에 속한 기초진술문들을 살펴보면서 각 묶음별로 기초진술문을 진술한 면담 참여자의 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 각 묶음 안에서 한 참여자로부터 여러 개의 기초진술문이 추출된 경우에는 한 명으로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한 묶음은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 평균 3.56명(SD = 1.983)의 기초진술문들로 구성되었다.

가장 많은 참여자가 언급한 대표진술문 순으로 살펴보면, 9명의 면담 참여자가 언급한 대표진술문은 ‘38.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와 ‘54. 이 역전이는 내 것이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였다. 8명의 면담 참여자가 언급한 대표진술문은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 반응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33.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이 있다.’, ‘4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바로 수긍해서 삼켜버리거나 자책으로 가지 않을 힘이 있다.’였

다. 7명의 면담 참여자가 언급한 대표진술문은 ‘34. 내담자는 내가 자기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다.’와 ‘37,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해 세운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였다. 전체 대표진술문 묶음별 기초진술문 목록과 참여자 빈도는 <부록 9>에 수록하였다.

<표 8>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관한 대표진술문

번호	대표진술문
1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을 통해 더 깊은 자기이해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역동과 나의 역동이 상호작용 안에서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3	나에게 이런 역전이를 불러일으키는 내담자의 행동 이면의 욕구와 마음이 이해가 된다.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반응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5	내담자가 접촉하기 어려워하는 감정과 욕구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역전이를 개방해야겠다.
6	내가 역전이를 개방한 이후에 내담자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7	이 역전이 감정이 지금 충분히 차올라서 나에게 생생하게 와 닿는 상태이다.
8	내담자에게 이런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9	내 역전이를 유발한 내담자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더 깊게 공감적으로 와닿는다.
10	나도 약점과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
11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내가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12	내담자가 밖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간적이고 진솔한 관계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번호	대표진술문
13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두 사람의 역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14	내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15	지금은 내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16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지금 회기 중에 내담자가 이야기 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진다.
17	내담자가 내 역전이 개방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피드백을 자기이해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18	지금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속마음에 접촉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다.
19	오늘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작업할 만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이다.
20	내담자가 상담과정이 힘들더라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려는 의지가 있다.
21	지금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려는 것이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이 확실하다.
22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연결이 된다.
23	나의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주기 어려운 피드백을 내가 대신 줄 수 있을 것이다.
24	내담자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패턴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되어줘야겠다.
25	내담자가 나에게 가졌던 기대와 기대의 좌절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겠다.
26	내 역전이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지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
27	이 역전이가 내 안의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것인지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28	이 역전이는 나를 힘들게 했었던 주제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통찰하고 소화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다.
29	내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각, 감정, 신체감각은 대부분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30	내담자가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진정이 되었으므로 내 말이 귀에 들릴 것 같다.

번호	대표진술문
31	역전이를 개방하여 개입하는 것은 내담자의 핵심역동으로 들어가는 매우 빠르고 강력한 길이다.
32	오늘 회기 안에 내 역전이를 개방하여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33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이 있다.
34	내담자는 내가 자기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3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내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36	내담자가 내 말을 맞받아치고 자기항변도 하면서 나와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
37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해 세운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38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39	내 역전이를 사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즉시성 개입을 풀어갈 지에 대해 어느 정도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40	내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하지 않고 내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
41	내 역전이 감정이 너무 뜨겁고 아프거나 격렬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크기이다.
42	회기 중에 내 역전이 감정을 스스로 해석해 나가면서 감정이 소화된 상태이다.
43	내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그렇게 왜곡되거나 이상하지는 않다고 믿는다.
44	상담이 지지부진하고 꽉 막힌 교착상태에 있을 때는 역전이를 개방하여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바로 수긍해서 삼켜버리거나 자책하며 찌그러들지 않을 힘이 있다.
46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47	이제 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담자가 상담관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다.
48	내담자가 내 표정과 어감의 미묘한 변화도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므로 내 역전이를 솔직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번호	대표진술문
49	역전이를 개방해서 개입했다가 바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50	상담관계에서의 경험을 서로 솔직하게 개방하여 다루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에 내담자와 합의가 되어 있다.
51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감정에 압도되어 액팅아웃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5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53	내가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매몰되지 않은 채로 내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54	이 역전이는 내 것이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55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역동을 바깥의 관계경험과 연결지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56	내담자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생생하고 진실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대화를 추구한다.
57	내담자에게 해석이나 직면 등 다른 개입을 했을 때 수용적인 것을 보니 역전이 개방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58	자기에게만 빠져있던 내담자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자기와 관계맺는 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59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이다.
60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자각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방어하고 싶은 감정을 내가 대신 느끼는 투사적 동일시인 것 같다.
61	내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루더라도 내담자가 적어도 드랍되지는 않겠다.
62	역전이를 다루는 진솔한 대화는 상담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63	오늘 작업한 후에 내담자가 자책이나 상담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로 끝나지는 않도록 회기 내에 매듭지을 시간이 충분하다.
64	역전이를 다룬 작업의 여파로 내담자가 현재 삶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65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번호	대표진술문
66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느꼈다고 했던 감정을 나도 내담자에게 느끼고 있다.
67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먼저 꺼냈으므로, 이 기회를 사용하여 내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해야겠다.
68	내 역전이와 같은 감정을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9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튕겨내거나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을 교류하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
70	내 역전이와 연결되는 내담자의 바깥 경험과 패턴에 대해 이미 작업한 적이 있으므로,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알아들을 것 같다.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인식 구조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차원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들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에 참여한 12인의 숙련상담사를 대상으로 대표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를 실시하였다. 70개의 대표진술문 카드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카드끼리 묶어달라고 요청한 결과, 참여자들이 생성한 범주는 최소 6개에서 최대 21개로, 평균 12.9개(SD = 8.281)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참여자들의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12개의 개별 비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집단 비유사성 행렬표를 제작한 후,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척도 분석은 주어진 자료에서 자극들 간의 근접성에 따라 좌표값을 도출하여 자극들을 공간상에 배열해주지만, 그 결과를 검토하여 차원의 수를 정하고 차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과 판단이 반영된다. 따라서 박광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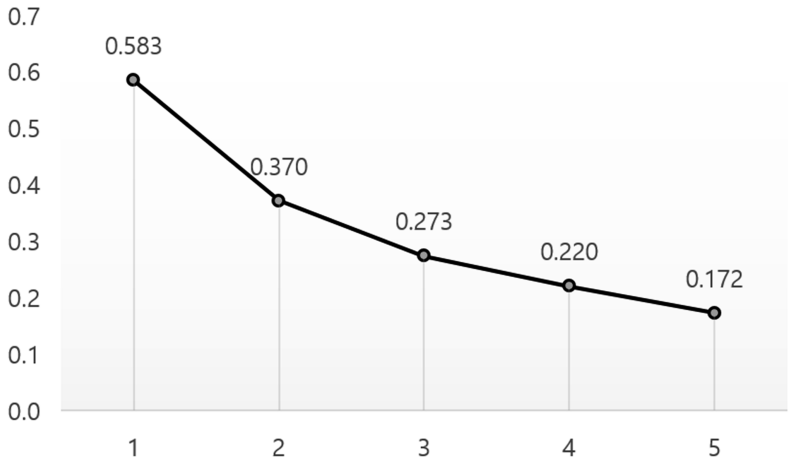
(2000)는 이 과정을 '예술적 창작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원의 수를 결정하고 차원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차원의 수

다차원척도 분석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자극들 사이의 유사성/비유사성 혹은 근접성을 가능한 낮은 차원의 단순한 공간에 시각화하되 동시에 원자료의 정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박광배, 2000), 몇 개의 차원으로 공간을 구성해야 합치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내적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자가 결정해야 한다. 차원의 수와 차원의 의미를 결정하고 해석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치도를 고려한다. 합치도는 참여자들이 유사성 분류를 실시한 원자료와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산출된 차원에서의 거리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값(Stress value)로 표현되며, 스트레스 값이 작을수록 합치도가 높고 결과가 원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한다(Kruskal & Wish, 1978). Kruskal(1964)은 스트레스 플롯에서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 즉 더 이상 차원의 수가 증가해도 스트레스 값의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지점에서 차원의 수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해석 가능성과 단순성(Gnanadesikan & Wilk, 1969)을 고려한다.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차원은 결과를 복잡하게 만들 뿐 자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3차원 공간은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지각적 왜곡이 발생하며 4차원 이상은 시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차원척도 분석에서는 2차원 평면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으로 여겨져 왔다(박광배, 2000). 그러나 최근에는 3D 시각화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3차원으로 개념도를 시각화하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McLinden, 2017; Orsi, 2017; Soellner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플롯을 참고하여 합치도를 고려하고 해석 가능성 및 단순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원의 수를 2차원과 3차원 중에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먼저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차원의



[그림 2] 차원의 수에 따른 스트레스 플롯

수에 따른 스트레스 값을 비교해보면 스트레스 플롯은 [그림 2]와 같이 2차원일 때 크게 한 번 꺾이고, 3차원일 때 다시 한 번 꺾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원일 때 스트레스 값은 .370(R^2 = .470)이었고, 3차원일 때 스트레스 값은 .273(R^2 = .598)이었다. 차원의 수에 따른 스트레스 값과 설명량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스트레스 값에 따라 적절한 차원의 수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해볼 때, 통계학자인 Kruskal과 Wish(1978)은 스트레스 값이 .1 이하일 때 적절하고 .2 이상인 경우 부적절하다고 하였으나, 개념도 연구에서는 자극들의 정확한 위치보다는 진술문 사이의 유사한 관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래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Bedi & Alexander, 2009; Goodyear et al., 2005; Kane & Trochim, 2007). 개념도 연구에서 제안되는 합치도 기준은 <표 9>에 정리하였다. Trochim(1993)의 개념도 메타연구에 따르면 38개 연구들의 스트레스 값의 평균은 .285(SD = .04)였고 Kane과 Trochim(2007)이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 .205 ~ .365 범위가 산출되어 이를 개념도 연구에서의 적절한 스트레스 값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Rosas와 Kane(2012)의

<표 9>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합치도 기준

선행연구	합치도 (Stress value)	합치도 범위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Trochim(1993)	.285 (*SD* = .04)	.155 ~ .352	.205 ~ .365
Rosa & Kane(2012)	.28 (*SD* = .04)	.17 ~ .34	.27 ~ .29
최윤정(2019)	.29 (*SD* = .05)	.13 ~ .38	.29 ~ .30

<표 10> 차원별 합치도, 설명량 및 설명량의 변화량

차원 수	합치도 (Stress value)	설명량 (R^2)	설명량 변화량 (ΔR^2)
1	.583	.177	
2	.370	.470	.294
3	.273	.598	.128
4	.220	.681	.083
5	.172	.759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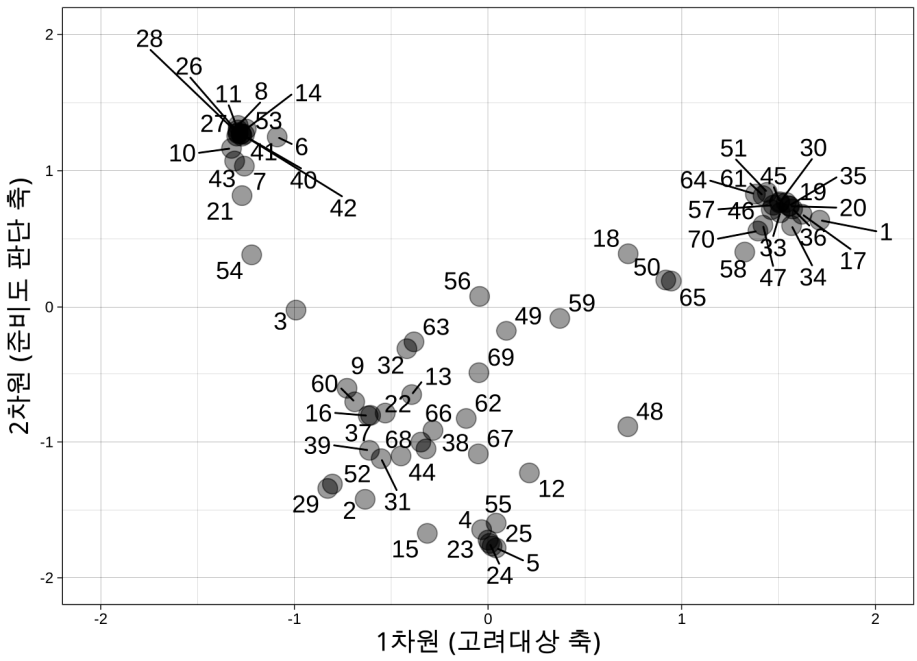
개념도 메타연구에 따르면 69개 연구들의 스트레스 값의 평균은 .28(*SD* = .04)였고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27 ~ .29로 산출되었으며, 최윤정(2019)의 국내 개념도 메타연구에서는 67개 연구들의 스트레스 값의 평균이 .29(*SD* = .05)로,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28 ~ .30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기준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2차원의 합치도(.370)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합치도 범위를 벗어나고 3차원의 합치도(.273)부터 선행연구들의 기준 범위에 포함되어, 합치도 기준에 따르면 3차원이 더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차원과 3차원에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3차원 해법에서 도출된 1, 2차원은 2차원 해법에서 도출된 1, 2차원과 동일하게 각각 후술할 '고려대상 축'과 '준비도 판단 축'으로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에 더하여 3차원 해법에서 새롭게 발견된 3차원은 '개입목적' 축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는 2차원 해법에 비해 참여자들의 인식을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주제에 있어 가치있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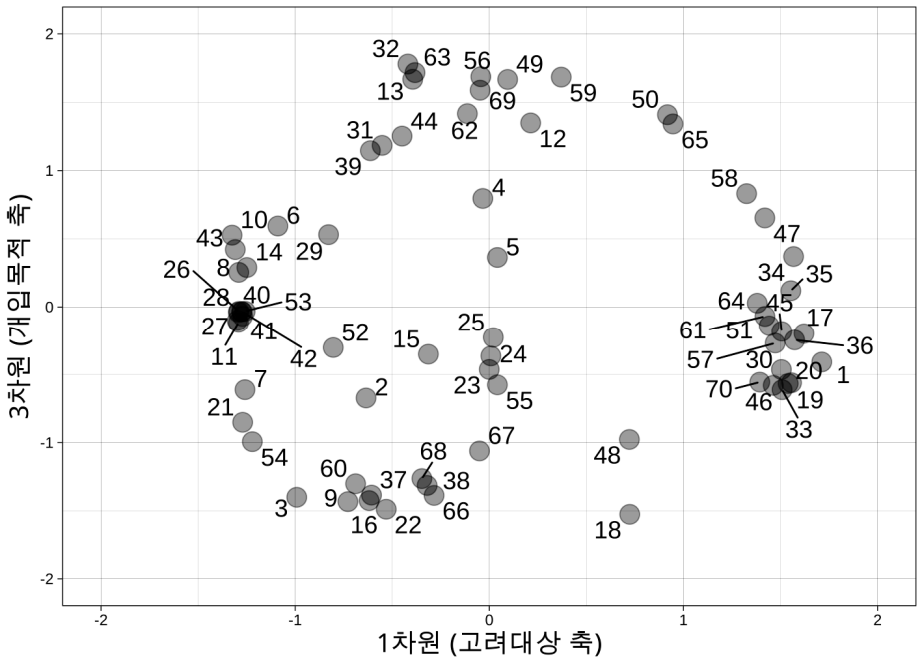
라고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2차원에 비해 차원의 수가 늘어나 단순성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3차원 역시 타당한 해석이 가능하였고 최신 3D 시각화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지각적 왜곡도 줄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3차원으로 차원의 수를 결정하였다.

(2) 차원별 고려 요인의 분포 및 차원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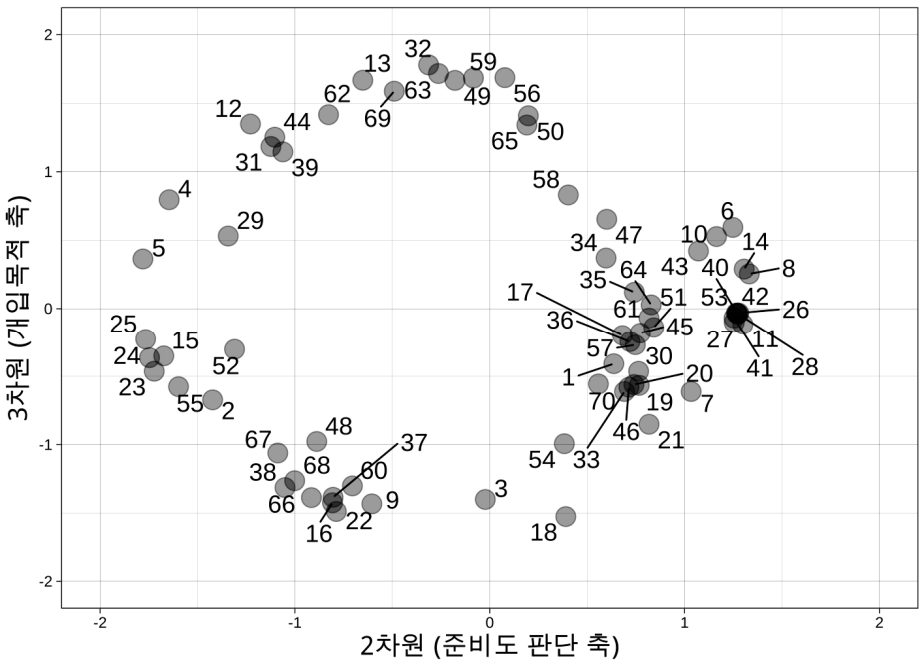
차원의 수를 3차원으로 결정한 후에, 각 차원의 좌표값에 따라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과 관련된 대표진술문들의 위치를 2차원 공간상에서 확인하였다. 시각적으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차원(X축)과 2차원(Y축), 1차원(X축)과 3차원(Z축), 2차원(Y축)과 3차원(Z축)으로 나누어 2차원 평면상으로 제시한 결과는 각각 [그림 3], [그림 4], [그림 5]와 같다. 평면 상에서 진술문들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수록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같은 묶음으로 분류된 유사한 진술문이라는 의미이고, 진술문들의 거리가 멀수록 유사하지 않은 진술문임을 의미한다(Trochim & McLinden, 2017). 70개 대표진술문에 대한 3차원의 전체 좌표값은 <부록 10>에 수록하였다.



[그림 3]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차원×2차원)



[그림 4]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1차원×3차원)



[그림 5]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2차원×3차원)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산출된 1차원(X축), 2차원(Y축), 3차원(Z축)의 좌표값을 통해 각 차원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차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각 차원의 양 극단에 위치한, 좌표값의 절대값이 큰 대표진술문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1차원(X축) 좌표값에 따라 양 극단의 절대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1차원(X축)의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번호	1차원(X축)의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좌표값
10	나도 약점과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	-1.325
43	내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그렇게 왜곡되거나 이상하지는 않다고 믿는다.	-1.309

27	이 역전이가 내 안의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것인지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1.298
28	이 역전이는 나를 힘들게 했었던 주제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통찰하고 소화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다.	-1.293
11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내가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1.292
8	내담자에게 이런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1.291
26	내 역전이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지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	-1.291
40	내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하지 않고 내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	-1.275
번호	1차원(X축)의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좌표값
1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을 통해 더 깊은 자기이해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713
17	내담자가 내 역전이 개방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피드백을 자기이해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1.621
36	내담자가 내 말을 맞받아치고 자기항변도 하면서 나와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	1.573
34	내담자는 내가 자기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1.567
20	내담자가 상담과정이 힘들더라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려는 의지가 있다.	1.557
3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내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1.553
19	오늘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작업할 만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이다.	1.540
33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이 있다.	1.508

1차원(X축)의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모두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바와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련상담사 자

신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수용하고(진술문 10) 상담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역전이가 이상하지는 않다는 믿음을 보이는 등(진술문 43)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역전이를 경험하는 것에 스스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역전이를 경험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서 역전이가 자신의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것인지 자각하고(진술문 27), 그 주제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주제임을 확인하고(진술문 28), 역전이를 경험하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반대로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 하지 않는 채로 감정조절이 가능한 상태이고(진술문 8, 40)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음(진술문 27)을 고려하였다.

1차원(X축)의 정적 방향 극단의 진술문들은 모두 내담자가 상담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담자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등 상담사가 생각하는 내담자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담자가 상담사를 신뢰하고 있고(진술문 34) 상담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등(진술문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 가능할 만큼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생각하였다. 또한 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이 있고(진술문 33) 자신을 돌아볼 만한 에너지와 의지가 있으며(진술문 19, 20) 상담사가 개입했을 때 비난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등(진술문 35, 36) 내담자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받아낼 힘이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이 <표 11>에 제시한 극단에 있는 진술문 뿐 아니라 0을 기준으로 부적 방향에 있는 진술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부적 방향은 숙련상담사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역전이와 연결하여 내담자를 이해하고(진술문 2, 9, 16, 22, 37) 개입 목적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등(진술문 39, 44, 63, 67) 상담사 관점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려가 위치한 반면, 정적 방향은 내담자가 개입을 받아들일 만큼 상담관계에서의 준비도가 있고(진술문 47, 50, 58, 65) 개입을 자기이해로 가져갈 힘이 있다는 등(진술문 46, 51, 70) 모두 내담자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1차원(X축)은 숙련상담사가 자신의 내적 상태와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사례이해 및 개입방향 등 상담사 요인을 고려하는 부적 방향과,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뢰, 내담자의 힘 등 내담자 요인을 고려하는 정적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차원을 고려대상 축으로, '상담사 요인 고려 — 내담자 요인 고려'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2차원(Y축)의 진술문들을 양 극단의 절대값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2차원(Y축)의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번호	2차원(Y축)의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좌표값
5	내담자가 접촉하기 어려워하는 감정과 욕구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역전이를 개방해야겠다.	-1.780
25	내담자가 나에게 가졌던 기대와 기대의 좌절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겠다.	-1.766
24	내담자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패턴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되어줘야겠다.	-1.746
23	나의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주기 어려운 피드백을 내가 대신 줄 수 있을 것이다.	-1.722
15	지금은 내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1.673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 반응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1.645
55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역동을 바깥의 관계경험과 연결지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1.597
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역동과 나의 역동이 상호작용 안에서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1.422
29	내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각, 감정, 신체감각은 대부분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1.342
5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1.310
번호	2차원(Y축)의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좌표값
8	내담자에게 이런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1.332

14	내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1.306
11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내가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1.299
26	내 역전이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지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	1.278
28	이 역전이는 나를 힘들게 했었던 주제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통찰하고 소화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다.	1.274
40	내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하지 않고 내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	1.270
42	회기 중에 내 역전이 감정을 스스로 해석해 나가면서 감정이 소화된 상태이다.	1.270
53	내가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매몰되지 않은 채로 내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1.266

2차원(Y축)의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숙련상담사가 자신의 역전이를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에 대한 이해와 연결시켜(진술문 29)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진술문 52) 내담자와 상담사의 역동에 의해 역전이가 일어나는 상황임(진술문 2)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역전이과 연결되어 세운 사례개념화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감정과 욕구에 접촉하거나(진술문 5, 25),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이 주기 어려웠던 피드백을 대신 주고(진술문 23) 상담관계에서의 역동을 바깥의 관계경험과 연결지어 통찰하게 돕고(진술문 55) 새로운 행동패턴을 시도하게 하는 등(진술문 24)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나아가고자 하는 개입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즉,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개입방향이 서 있는지, 인지적인 준비상태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2차원(Y축)의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수용하고 있고(진술문 8), 현재 회기 중에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매몰되어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며(진술문 26, 40, 42, 53),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자신이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진술문 11) 등,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안정

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만큼 상담사 자신이 정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적 극단과 0 사이에 위치한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자책하며 찌그러들거나 비난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힘이 있고(진술문 35, 45)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진술문 19, 30)임을 고려하는 등 개입을 받아낼 수 있는 내담자의 정서적 준비도를 고려하고 있고, 내담자가 상담관계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는 점(진술문 1, 34, 47)을 고려하고 있다. 정리하면 2차원(Y축)의 정적 방향은 상담사 및 내담자의 정서적 준비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2차원(Y축)은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와 상담관계의 역동을 이해하고 사례개념화 및 개입방향을 고려하는 인지적인 준비도를 의미하는 부적 방향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담사와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준비된 상태인지를 고려하는 정적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차원은 준비도 판단축으로, '인지적 준비도 — 정서적 준비도'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원(Z축)의 진술문들을 양 극단의 절대값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3차원(Z축)의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번호	3차원(Z축)의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좌표값
18	지금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속마음에 접촉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다.	-1.526
22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연결이 된다.	-1.489
9	내 역전이를 유발한 내담자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더 깊게 공감적으로 와닿는다.	-1.433
16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지금 회기 중에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진다.	-1.426
3	나에게 이런 역전이를 불러일으키는 내담자의 행동 이면의 욕구와 마음이 이해가 된다.	-1.401

66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느꼈다고 했던 감정을 나도 내담자에게 느끼고 있다.	-1.388
37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해 세운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1.385
38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1.315
60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자각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방어하고 싶은 감정을 내가 대신 느끼는 투사적 동일시인 것 같다.	-1.302
68	내 역전이와 같은 감정을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64
번호	3차원(Z축)의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좌표값
32	오늘 회기 안에 내 역전이를 개방하여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1.780
63	오늘 작업한 후에 내담자가 자책이나 상담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로 끝나지는 않도록 회기 내에 매듭지을 시간이 충분하다.	1.717
56	내담자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생생하고 진실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대화를 추구한다.	1.687
59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이다.	1.684
13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두 사람의 역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1.668
49	역전이를 개방해서 개입했다가 바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1.666
69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튕겨내거나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을 교류하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	1.588

3차원(Z축)의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내담자의 주호소문제 및 내담자에 대해 세운 사례개념화 및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패턴과 연결짓고(진술문 22, 37, 38)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는 등(진술문 66, 68), 내담자 역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됨을 고려한다(진술문 3, 9). 즉, 부적 방향은 역전이를 활용하여 내담자를 이해함으로써 내담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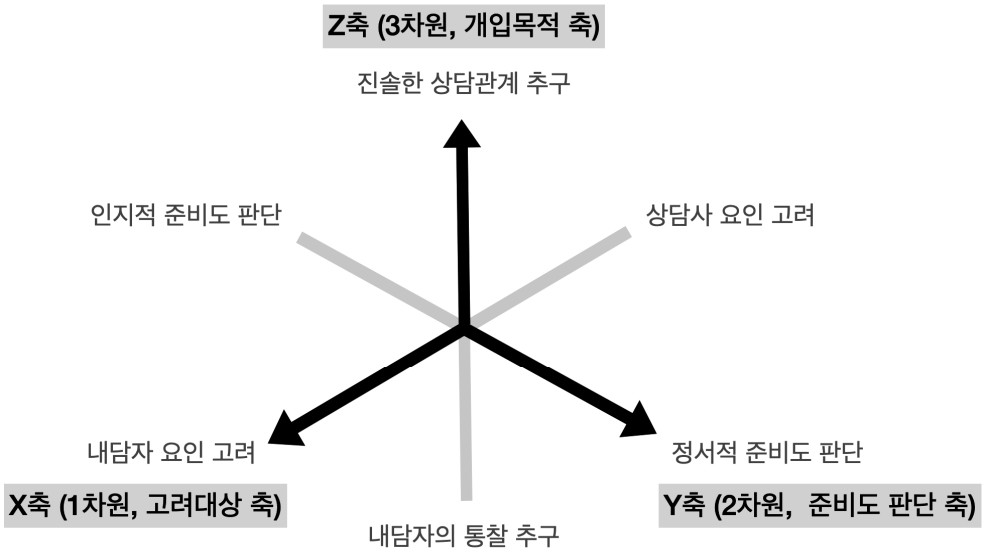
자기이해와 관계패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3차원(Z축)의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숙련상담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두 사람의 역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진술문 13),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생생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추구하고(진술문 56, 59), 자신의 역전이를 개방해서 개입했을 때 내담자가 튕겨내거나 성과가 없더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음을 고려하고 있다(진술문 49, 69). 즉, 이 진술문들은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상담관계에서의 진솔성과 연결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3>에 제시된 진술문들 외에도 0에서 부적 방향으로 분포한 진술문들을 함께 살펴보면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에게 진솔한 관계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는 등(진술문 12), 전체적으로 3차원의 부적 방향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3차원(Z축)은 숙련상담사가 기대하는 개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전이를 개방하는 즉시성 개입이 적절할지를 고려할 때,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에게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적 방향과 진솔한 상담관계 자체를 추구하는 정적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3차원은 개입목적 축으로, '내담자 통찰 추구 —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3개 차원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3차원 도표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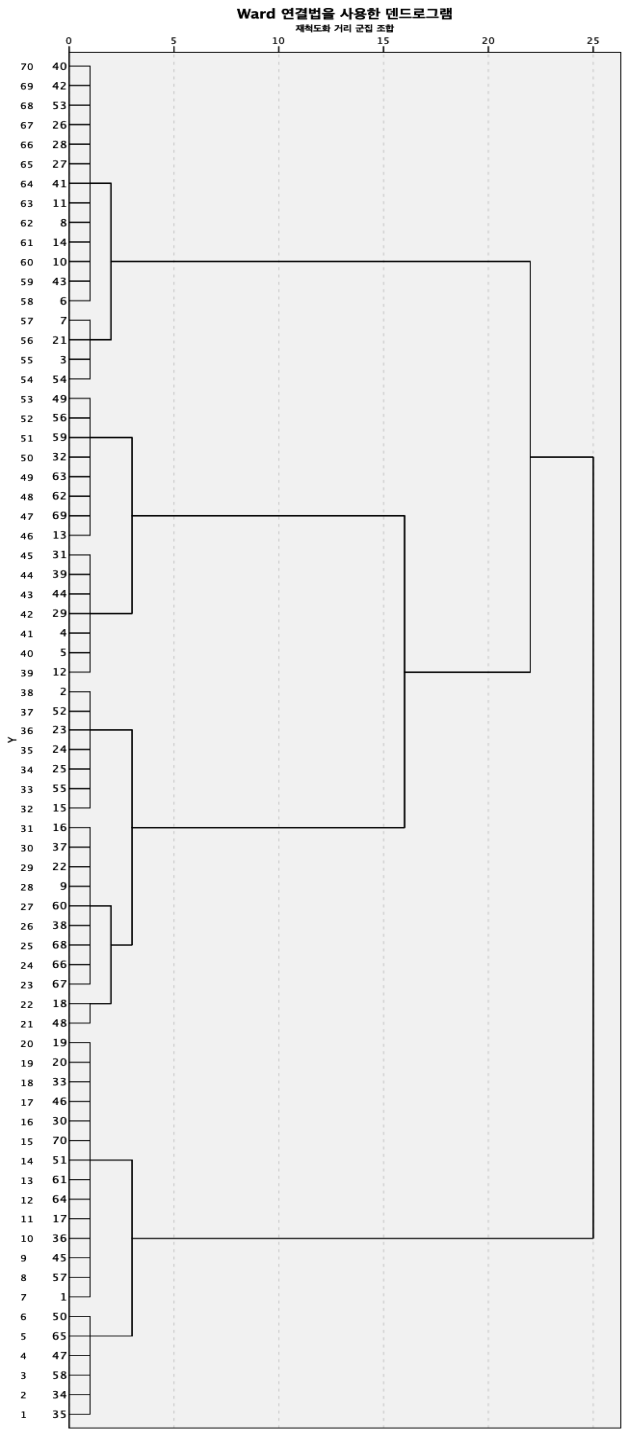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군집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차원을 확인한 후, 고려 요인들이 내용상 어떻게 유사하다고 인식되어 분류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도출된 3차원 좌표값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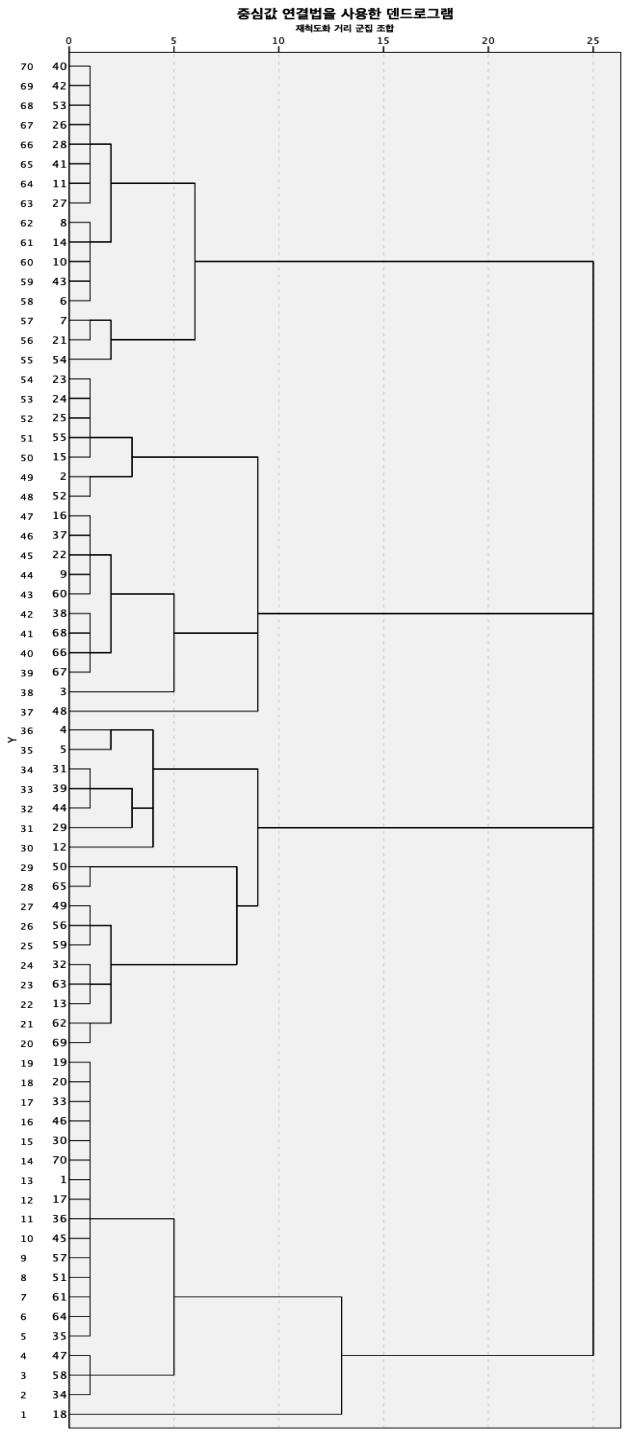


[그림 6]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3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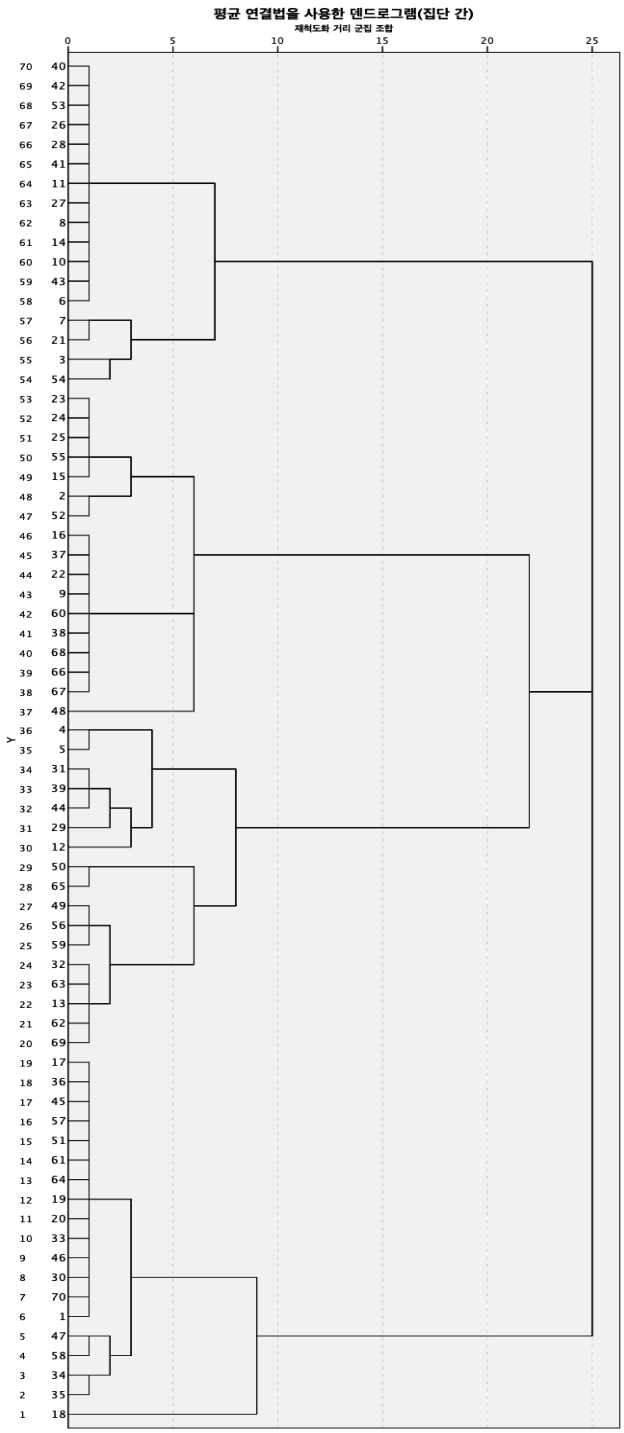
집분석은 대상을 동일한 성격을 가진 여러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형성된 군집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료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탐색적 방법으로서(Anderberg, 1973; Everitt, 1980), 그 중에서도 Kane과 Trochim(2007)은 군집을 단계별로 계층적으로 묶어서 군집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한 계층적 군집분석이 개념도 연구에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Kane과 Trochim(2007)은 경험적으로 개념도 연구에서 계층적 군집분석의 병합 방식 중 Ward의 방법이 거리에 기반하여 군집을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더 군집을 의미있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의 여러 병합 방식들 중에서 Ward의 방법, 중심값 연결법(centroid-linkage), 평균연결법(average-linkage)의 덴드로그램을 비교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고 군집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림 7] Ward 방법의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그림 8] 중심값 연결법의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그림 9] 평균연결법의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1) 군집의 수

먼저 두 군집이 병합될 때의 오차제곱합의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군집을 묶어가는 Ward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그림 7]과 같이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군집 수는 9개, 7개, 4개, 3개, 2개로 가능하였다. 또한 계층적 군집분석의 다른 방법들로 도출된 군집의 수를 비교하였다. 각 군집의 중심 간의 거리들 중 가장 짧은 거리의 군집들을 묶어가는 중심값 연결법으로 도출된 덴드로그램을 [그림 8]와 같이 살펴본 결과 1개의 진술문이 단일한 군집으로 남지 않고 모든 군집이 2개 이상의 진술문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군집 수가 4개로 확인되었다. 군집의 수를 5개로 하면 진술문 18이 단독으로 남고, 10개로 하면 진술문 3, 19, 48이 단독으로 남고 진술문 50과 56만 한 군집으로 묶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군집 내 평균거리가 가장 짧은 두 군집을 묶어가는 평균연결법으로 도출된 덴드로그램을 [그림 9]과 같이 살펴보면 같은 방식에 따라 군집 수가 4개 또는 3개로 확인되었다. 군집의 수를 6개 또는 7개로 할 경우 진술문 18이 단독으로 남고, 8개로 할 경우 진술문 18이 단독으로 남을 뿐 아니라 진술문 3, 7, 21, 54가 한 군집이 되는데 군집의 의미해석이 불가능하였다. 개념도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다양한데(Kane & Trochim, 2007; Trochim & McLinden, 2017),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였다.

첫째, 정보의 손실이 적어 자료의 구조에 대한 충분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에서 적절한 군집의 수는 최소 3개 이상이라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Kane과 Trochim(2007)의 기준에 따라 Ward 방법으로 도출된 2개 및 3개의 군집 해법은 군집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한 군집에 묶이는 진술문들의 유사성 및 다른 군집과의 차별성이 감소하고 정보의 손실이 많아짐을 고려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Bedi(2006) 및 Col과 Cook(2004)의 제안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진

술문 유사성 분류를 통해 생성한 묶음의 개수와 개념도 군집의 개수를 비교하여 군집의 수를 고려하였다. 이때 Bedi(2006)는 군집의 수가 참여자들이 묶은 범주의 개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가 생성한 범주의 개수는 최소 6개, 최대 21개, 평균 12.91개로 여러 방법의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의 개수가 참여자들이 생성한 범주의 개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다만 참여자들이 생성한 범주의 개수가 최소 6개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Ward방법, 중심값 연결법 및 평균연결법의 4개 군집보다는 Ward 방법의 7개 군집이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더 가까운 결과라고 판단되었다.

셋째, 각 군집분석 방법으로 도출된 군집 개수별로 군집에 속한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군집별로 유사한 진술문들로 군집이 구성되어 해석이 가능한지(Bedi, 2006; Trochim & McLinden, 2017), 각 군집별로 유용한 세부 정보들이 잘 보존되는지(Kane & Trochim, 2007)를 고려하여 군집을 결정하였다. 먼저 Ward 방법, 중심값 연결법 및 평균연결법의 4개 군집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세 방법 모두 군집별 내용은 동일하였고 '군집 1. 상담사가 정서적으로 준비됨', '군집 2. 상담관계와 상호작용 맥락에 대해 판단함', '군집 3.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 이해 및 개입방향이 수립됨', '군집 4.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준비됨'로 명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앞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의 인식 차원에서 도출된 차원명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차원과 차별화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정보의 손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군집의 수를 증가시켜가며 비교해보았을 때, Ward 방법으로 7개 군집으로 할 경우에는 4개 군집에서의 '군집 4.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준비됨'이 각각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과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으로 나누어져 내담자의 힘과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관계 측면을 각각 보여줄 수 있었고, 4개 군집에서의 '군집 3.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 이해 및 개입방향이 수립됨'도 각각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와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으로 나누어져 각 군집 내용이 세분화되어 구분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Ward 방법으로 9개 군집으로 할 경우

에는 2개의 진술문(진술문 18, 48)만으로 한 군집이 구성되어 군집을 해석하기 어려웠고, 4개의 진술문(진술문 3, 7, 21, 54)이 한 군집으로 묶인 것 또한 다른 군집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없이 불필요하게 군집이 세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여러 군집분석 방법 별로 군집의 수를 고려한 결과 Ward 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7개로 결정하는 것이 정보의 손실이 적고 각 군집별로 유용한 세부 정보들이 잘 보존되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여러 군집분석 방법 중에서 Ward의 방법이 군집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군집분석 방법 및 군집의 수에 따른 군집별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진술문들은 Ward 방법, 중심값 연결법, 평균연결법에서 모두 같은 군집으로 묶였으나 몇 가지 진술문에서 소속 군집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진술문 65(‘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는 Ward 방법에서는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으로 분류되는 반면 중심값 연결법과 평균연결법에서는 Ward 방법에서의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과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이 통합된 상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 경우 진술문 65는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다루는 대화에 익숙할 만큼 상담관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고려이므로 Ward 방법과 같이 군집이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진술문 3(‘나에게 이런 역전이를 불러일으키는 내담자의 행동 이면의 욕구와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Ward 방법과 평균연결법에서는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으로 분류되고 중심값 연결법에서는 Ward 방법에서의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과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을 합친 상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 경우 Ward 방법 및 평균연결법의 군집과 중심값 연결법의 군집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속 군집의 차이가 발생하는 진술문들을 검토하였을 때 군집 해석에 있어서도 Ward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ard 방법에 따라 군집의 수를 7개로 최종 확정하

였다.

(2) 군집의 해석

군집의 수를 7개로 확정한 후, 각 군집에 소속된 진술문들의 내용과 3차원 좌표값을 살펴보면서 군집의 의미를 해석하여 군집명을 <표 14>와 같이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문 유사성 분류 작업을 할 때 생성한 범주명들을 참고하였고, 한 군집에 소속된 진술문들의 의미를 충분히 포괄하면서도 다른 군집들과는 의미가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군집 별 진술문 목록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한 군집 당 최소 6개, 최대 17개, 평균 10개(SD = 4.163)의 진술문이 포함되었고, 가장 많은 진술문이 포함된 군집은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이었다.

<표 14>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군집

군집	군집명	진술문 개수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	17개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	8개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	7개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	7개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	11개
군집 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	14개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	6개

<표 15>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군집별 진술문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 (17개)
3	나에게 이런 역전이를 불러일으키는 내담자의 행동 이면의 욕구와 마음이 이해가 된다.

6	내가 역전이를 개방한 이후에 내담자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7	이 역전이 감정이 지금 충분히 차올라서 나에게 생생하게 와 닿는 상태이다.
8	내담자에게 이런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10	나도 약점과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
11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내가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14	내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17	이 역전이는 내 것이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21	지금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려는 것이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이 확실하다.
26	내 역전이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 지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
27	이 역전이가 내 안의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것인지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28	이 역전이는 나를 힘들게 했었던 주제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통찰하고 소화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다.
40	내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하지 않고 내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
41	내 역전이 감정이 너무 뜨겁고 아프거나 격렬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크기이다.
42	회기 중에 내 역전이 감정을 스스로 해석해 나가면서 감정이 소화된 상태이다.
43	내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그렇게 왜곡되거나 이상하지는 않다고 믿는다.
53	내가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매몰되지 않은 채로 내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 (8개)
13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두 사람의 역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32	오늘 회기 안에 내 역전이를 개방하여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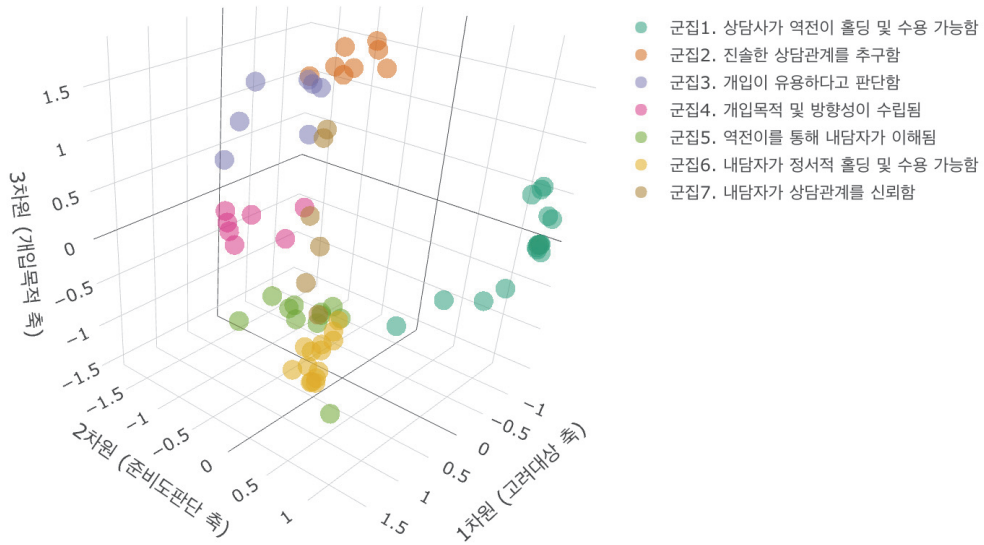
49	역전이를 개방해서 개입했다가 바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56	내담자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생생하고 진실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대화를 추구한다.
59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이다.
62	역전이를 다루는 진솔한 대화는 상담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63	오늘 작업한 후에 내담자가 자책이나 상담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로 끝나지는 않도록 회기 내에 매듭지을 시간이 충분하다.
69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튕겨내거나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을 교류하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 (7개)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반응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5	내담자가 접촉하기 어려워하는 감정과 욕구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역전이를 개방해야겠다.
12	내담자가 밖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간적이고 진솔한 관계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29	내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각, 감정, 신체감각은 대부분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31	역전이를 개방하여 개입하는 것은 내담자의 핵심역동으로 들어가는 매우 빠르고 강력한 길이다.
39	내 역전이를 사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즉시성 개입을 풀어갈 지에 대해 어느 정도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44	상담이 지지부진하고 꽉 막힌 교착상태에 있을 때는 역전이를 개방하여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 (7개)
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역동과 나의 역동이 상호작용 안에서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15	지금은 내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23	나의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주기 어려운 피드백을 내가 대신 줄 수 있을 것이다.
24	내담자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패턴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되어줘야겠다.

25	내담자가 나에게 가졌던 기대와 기대의 좌절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겠다.
5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55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역동을 바깥의 관계경험과 연결지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 (11개)
9	내 역전이를 유발한 내담자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더 깊게 공감적으로 와닿는다.
16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지금 회기중에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진다.
18	지금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속마음에 접촉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다.
22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연결이 된다.
37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해 세운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38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48	내담자가 내 표정과 어감의 미묘한 변화도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므로 내 역전이를 솔직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60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자각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방어하고 싶은 감정을 내가 대신 느끼는 투사적 동일시인 것 같다.
66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느꼈다고 했던 감정을 나도 내담자에게 느끼고 있다.
67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먼저 꺼냈으므로, 이 기회를 사용하여 내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해야겠다.
68	내 역전이와 같은 감정을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집 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 (14개)
1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을 통해 더 깊은 자기이해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7	내담자가 내 역전이 개방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피드백을 자기이해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19	오늘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작업할 만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이다.
20	내담자가 상담과정이 힘들더라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려는 의지가 있다.
30	내담자가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진정이 되었으므로 내 말이 귀에 들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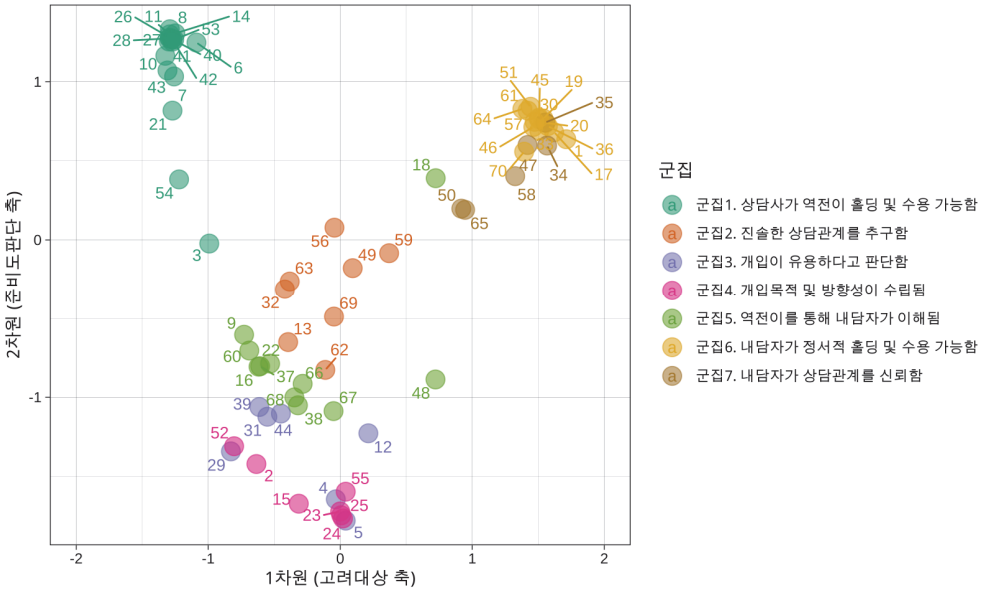
33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이 있다.
36	내담자가 내 말을 맞받아치고 자기항변도 하면서 나와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
4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바로 수긍해서 삼켜버리거나 자책하며 찌그러들지 않을 힘이 있다.
46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51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감정에 압도되어 액팅아웃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57	내담자에게 해석이나 직면 등 다른 개입을 했을 때 수용적인 것을 보니 역전이 개방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61	내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루더라도 내담자가 적어도 드랍되지는 않겠다.
64	역전이를 다룬 작업의 여파로 내담자가 현재 삶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70	내 역전이와 연결되는 내담자의 바깥 경험과 패턴에 대해 이미 작업한 적이 있으므로,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알아들을 것 같다.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 (6개)
34	내담자는 내가 자기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3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내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47	이제 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담자가 상담관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다.
50	상담관계에서의 경험을 서로 솔직하게 개방하여 다루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에 내담자와 합의가 되어 있다.
58	자기에게만 빠져있던 내담자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자기와 관계맺는 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65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각 군집의 진술문들을 고려하여 군집명을 결정한 후, 3차원 공간 및 2차원 평면 상에서 차원과 군집을 연결지어 군집의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군집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해석하였다. 3차원 공간의 개념도는 [그림 10]에 제시하였고, 2차원 평면의 개념도는 각각 1×2차원, 1×3차원, 2×3차원으로 나누어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에 제시하였다. 3차원 개념도는 <부록 8>에 수록한 링크에 접속하여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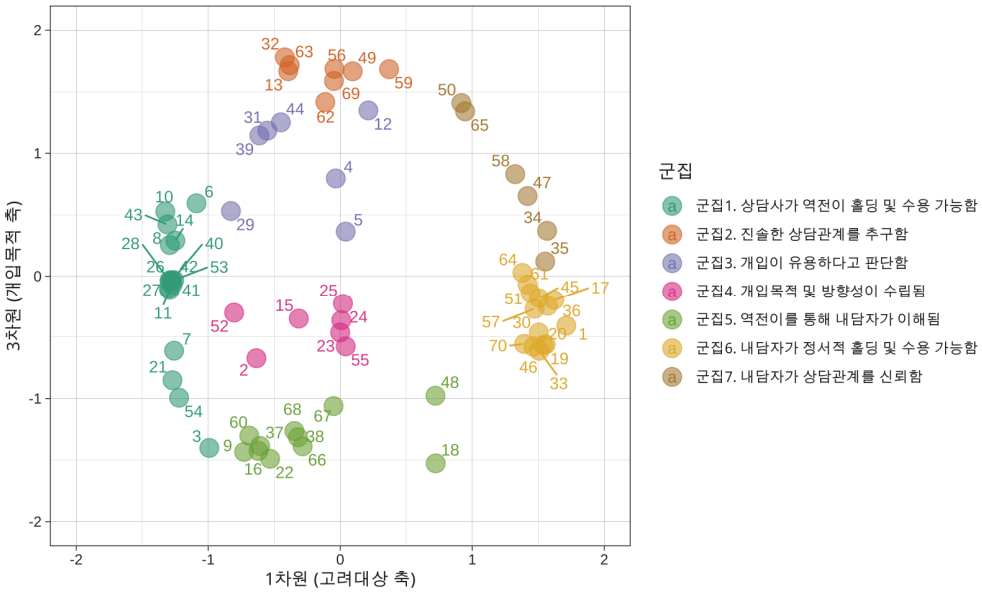
3차원 공간을 직접 회전시키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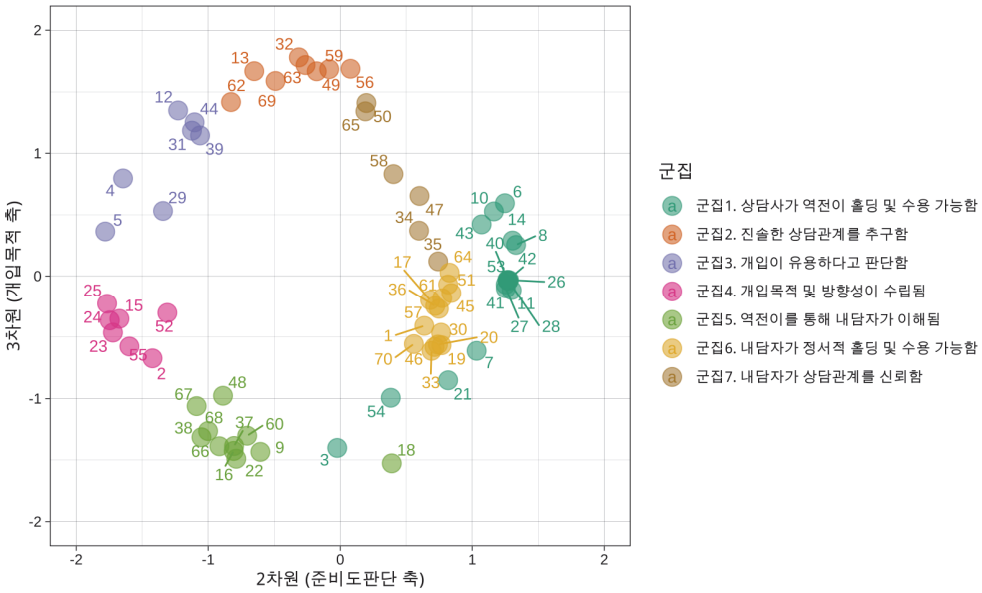
[그림 10]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개념도



[그림 1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1차원×2차원)



[그림 1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1차원×3차원)



[그림 13]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2차원×3차원)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은 3차원 공간상에서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는 부적 방향인 ‘상담사 요인 고려’의 극단에 분포하고,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는 정적 방향인 ‘정서적 준비도 판단’의 극단에 분포하고 있으며,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는 0을 중심으로 가운데에 분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우측에 길게 위치하고 있다. 정리하면, 군집 1과 같이 숙련상담사가 자신의 역전이 반응을 홀딩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상담사 요인, 특히 상담사 자신의 정서적 준비도를 고려하는 인식임을 알 수 있다. 군집 1의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전이를 경험하는 자신을 수용하고(진술문 8, 10, 43), 자신의 내면의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것인지 자각하고 어느 정도 소화된 주제임을 고려하며(진술문 27, 28), 역전이에 압도되거나 액팅아웃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진술문 26, 40, 41, 42, 53)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고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할 수 있음(진술문 11, 21)을 고려하는 등, 숙련상담사가 자신의 역전이를 홀딩하고 수용하는 상태임을 판단하는 17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은 3차원 공간상에서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는 0을 중심으로 가운데에,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도 0을 중심으로 가운데에 분포하고 있고,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는 정적 방향인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의 극단에 몰려서 분포하고 있다. 즉 군집 2는 3차원 공간에서 가장 상단 가운데에 떠 있는데, 1차원과 2차원에서는 0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지만 3차원의 정적 극단에 위치하고 있어 3차원의 정적 극단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군집이다. 이에 군집 2는 3차원의 정적 극단 명칭과 동일하게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의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전이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고(진술문 13), 역전이를 개방하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담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진술문 62)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 만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실한 대화를 추구하는 등(진술문 49, 56, 69), 상담관계의 진솔성과 연결성을 추구하는 8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은 3차원 공간상에서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는 0에서 부적 방향인 ‘상담사 요인 고려’로 고르게 분포하고,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는 부적 방향인 ‘인지적 준비도’의 극단에 몰려서 분포하고 있으며,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는 0에서 정적 방향인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3차원 공간의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정리하면, 군집 3과 같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것은 상담사 요인, 특히 상담사의 인지적 준비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군집 3이 3차원 상에서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 방향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는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주로 상담관계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집 3의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모든 경험은 내담자의 역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진술문 29),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이 내담자의 핵심역동으로 들어가고(진술문 31) 상담의 교착상태를 풀어가며(진술문 44), 내담자의 감정 및 욕구 접촉, 통찰, 대안반응 학습 등에 유용할 것이라고 고려(진술문 4, 5)하는 7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은 3차원 공간상에서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는 0에서부터 부적 방향인 ‘상담사 요인 고려’에 분포하고,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는 부적 방향인 ‘인지적 준비도 판단’의 최극단에 몰려서 분포하고 있으며,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는 부적 방향인 ‘내담자 통찰 추구’에 모여서 분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3차원 공간의 좌측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정리하면, 군집 4와 같이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목적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은 상담사 요인, 특히 상담사의 인지적 준비도이며, 개입목적과 방향성 수립을 통해 내담자에게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집 4의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전이가 내담자와 자신의 역동이 맞물려서 일어나고 의미있는 자료라는 이해를 통해(진술문 2, 52), 내담자가 상담사의 역전이와 관련지어 자신의 관계패턴을 이해하게 돕고(진술문 55) 주변인들이 주기 어려운 피드백을 제공하며(진술문 23) 내담

자가 새로운 행동패턴을 시도하게 돕거나(진술문 24), 상담사에게 가진 기대와 좌절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겠다는(진술문 25) 등, 전반적으로 역전이를 사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고려하는 7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은 3차원 공간상에서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는 2개의 진술문을 제외하면 모두 0 부근에서부터 부적 방향인 '상담사 요인 고려'에 분포하고,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는 1개의 진술문을 제외하면 모두 부적 방향인 '인지적 준비도 판단'에 분포하고,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는 부적 방향인 '내담자 통찰 추구' 방향의 최극단에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3차원 공간의 가운데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정리하면, 군집 5와 같이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사 요인, 특히 상담사의 인지적 준비도에 대한 판단이고,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함으로써 내담자의 통찰을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군집 5는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의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전이가 내담자의 역동, 주호소문제, 사례개념화 및 내담자의 회기 중 언급과 연결지어 이해하며(진술문 16, 22, 37, 38, 60, 66, 68), 내담자가 현재 자신의 감정에 접촉한 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담자가 상담사의 표정과 어감의 미묘한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인지를 고려하여 내담자를 파악하고 있는 등(진술문 18, 48) 상담사가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는 11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은 3차원 공간상에서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는 정적 방향인 '내담자 요인 고려'의 최극단에 분포하고,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도 정적 방향인 '정서적 준비도 판단'에 모여서 분포하고,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는 0에서부터 부적 방향인 '내담자 통찰 추구'에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3차원 공간의 전면 가운데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정리하면 군집 6은 내담자 요인, 특히 내담자의 정서적 준비도 판단이며, 내담자가 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정서를 홀딩 가능하고 수용할 만한 상태인지를 고려함으로써 개입을 통해 내

담자 통찰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지어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군집 6의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 및 표현 능력(진술문 33, 46)이 있고 자신을 돌아볼 만한 에너지와 의지가 있으며(진술문 19, 20), 상담사의 개입에 찌그러들거나 액팅아웃 또는 드랍되지 않으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고(진술문 36, 45, 51, 61) 나아가 자기이해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진술문 17)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내담자가 오늘 회기 중에 작업할 만한 에너지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진정된 상태인(진술문 19, 30) 등 내담자가 개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군집 6은 내담자가 개입을 감당할 만큼 정서적으로 홀딩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고려하는 14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은 3차원 공간상에서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는 정적 방향인 '내담자 요인 고려'의 최극단에 분포하고,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도 정적 방향인 '정서적 준비도 판단'에 모여서 분포하고,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는 0에서부터 정적 방향인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의 극단까지 고르게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3차원 공간의 전면에 군집 6 위로 길게 위치하고 있다. 정리하면, 군집 7과 같이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받아낼 수 있는 상담관계임을 고려하는 것은 차원 축에 따르면 내담자 요인, 특히 내담자의 정서적 준비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하는 개입목적과 관련이 된다고 하겠다. 군집 7의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그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상담사와 상담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진술문 34, 35, 47),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고 상담사와 내담자가 각자 상담관계에서의 경험을 서로 솔직하게 개방하여 다루는 것에 합의가 되어 있다는 점(진술문 50, 65)을 고려하는 등의 6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중요도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70개 대표진술문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후, 참여자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비추어 생각할 때 각 진술문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1: 매우 중요하지 않음, 4: 보통, 7: 매우 중요함)로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절에서는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전체 내용별 및 군집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내용별 중요도

먼저 전체 대표진술문의 내용별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전체 대표진술문의 중요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38점(SD = 1.194)으로 나타났고, 최소값은 3.25점, 최대값은 6.50점으로 나타났다. 70개 대표진술문 목록의 모든 중요도와 표준편차는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표 16>에 제시하였는데, 중요도가 동점인 경우 표준편차가 작은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표 16>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에 대한 고려 요인에 대한 내용별 중요도 (내림차순)

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편차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 반응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6.50	0.674
11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내가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6.50	0.798
26	내 역전이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 지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	6.25	0.754

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편차
53	내가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매몰되지 않은 채로 내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6.25	0.754
21	지금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려는 것이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이 확실하다.	6.08	0.996
41	내 역전이 감정이 너무 뜨겁고 아프거나 격렬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크기이다.	6.08	0.996
40	내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하지 않고 내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	6.08	1.084
19	오늘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작업할 만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이다.	6.00	0.739
22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연결이 된다.	6.00	0.853
6	내가 역전이를 개방한 이후에 내담자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6.00	1.206
20	내담자가 상담과정이 힘들더라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려는 의지가 있다.	5.92	0.793
55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역동을 바깥의 관계경험과 연결지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5.83	0.577
42	회기 중에 내 역전이 감정을 스스로 해석해 나가면서 감정이 소화된 상태이다.	5.83	0.937
27	이 역전이가 내 안의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것인지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5.83	1.337
63	오늘 작업한 후에 내담자가 자책이나 상담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로 끝나지는 않도록 회기 내에 매듭지을 시간이 충분하다.	5.83	1.337
44	상담이 지지부진하고 꽉 막힌 교착상태에 있을 때는 역전이를 개방하여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75	0.754
38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5.75	0.965
7	이 역전이 감정이 지금 충분히 차올라서 나에게 생생하게 와 닿는 상태이다.	5.75	1.055
31	역전이를 개방하여 개입하는 것은 내담자의 핵심역동으로 들어가는 매우 빠르고 강력한 길이다.	5.75	1.055

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편차
3	나에게 이런 역전이를 불러일으키는 내담자의 행동 이면의 욕구와 마음이 이해가 된다.	5.75	1.138
39	내 역전이를 사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즉시성 개입을 풀어갈 지에 대해 어느 정도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5.75	1.357
5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5.75	1.485
17	내담자가 내 역전이 개방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피드백을 자기이해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5.67	0.888
34	내담자는 내가 자기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5.67	1.155
37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해 세운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5.67	1.155
5	내담자가 접촉하기 어려워하는 감정과 욕구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역전이를 개방해야겠다.	5.67	1.303
25	내담자가 나에게 가졌던 기대와 기대의 좌절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겠다.	5.58	0.515
9	내 역전이를 유발한 내담자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더 깊게 공감적으로 와닿는다.	5.58	0.900
12	내담자가 밖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간적이고 진솔한 관계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5.58	0.996
66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느꼈다고 했던 감정을 나도 내담자에게 느끼고 있다.	5.58	0.996
23	나의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주기 어려운 피드백을 내가 대신 줄 수 있을 것이다.	5.58	1.084
16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지금 회기중에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진다.	5.58	1.379
30	내담자가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진정이 되었으므로 내 말이 귀에 들릴 것 같다.	5.50	0.522
51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감정에 압도되어 액팅아웃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5.50	0.798
32	오늘 회기 안에 내 역전이를 개방하여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5.50	1.243

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편차
43	내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그렇게 왜곡되거나 이상하지는 않다고 믿는다.	5.50	1.446
62	역전이를 다루는 진솔한 대화는 상담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5.50	1.446
4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바로 수긍해서 삼켜버리거나 자책하며 찌그러들지 않을 힘이 있다.	5.42	0.669
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역동과 나의 역동이 상호작용 안에서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5.42	1.240
24	내담자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패턴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되어줘야겠다.	5.42	1.564
10	나도 약점과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	5.42	1.832
36	내담자가 내 말을 맞받아치고 자기항변도 하면서 나와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	5.33	0.651
33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이 있다.	5.33	0.888
18	지금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속마음에 접촉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다.	5.33	1.371
60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자각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방어하고 싶은 감정을 내가 대신 느끼는 투사적 동일시인 것 같다.	5.33	1.371
28	이 역전이는 나를 힘들게 했었던 주제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통찰하고 소화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다.	5.33	1.723
70	내 역전이와 연결되는 내담자의 바깥 경험과 패턴에 대해 이미 작업한 적이 있으므로,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알아들을 것 같다.	5.25	0.754
8	내담자에게 이런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5.25	1.712
47	이제 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담자가 상담관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다.	5.17	1.193
58	자기에게만 빠져있던 내담자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자기와 관계맺는 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5.17	1.267
54	이 역전이는 내 것이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5.08	1.621

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편차
56	내담자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생생하고 진실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대화를 추구한다.	5.08	1.621
57	내담자에게 해석이나 직면 등 다른 개입을 했을 때 수용적인 것을 보니 역전이 개방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5.00	1.128
46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5.00	1.206
1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을 통해 더 깊은 자기이해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4.92	1.240
14	내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4.92	1.240
64	역전이를 다룬 작업의 여파로 내담자가 현재 삶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4.92	1.311
49	역전이를 개방해서 개입했다가 바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4.83	1.115
61	내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루더라도 내담자가 적어도 드랍되지는 않겠다.	4.83	1.193
68	내 역전이와 같은 감정을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83	1.403
69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튕겨내거나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을 교류하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	4.75	1.357
59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이다.	4.75	1.765
3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내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4.67	1.231
29	내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각, 감정, 신체감각은 대부분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4.58	1.564
65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4.58	1.564
50	상담관계에서의 경험을 서로 솔직하게 개방하여 다루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에 내담자와 합의가 되어 있다.	4.58	1.676
15	지금은 내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4.00	1.907

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편차
13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두 사람의 역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3.83	1.749
67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먼저 꺼냈으므로, 이 기회를 사용하여 내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해야겠다.	3.83	2.167
48	내담자가 내 표정과 어감의 미묘한 변화도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므로 내 역전이를 솔직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3.25	1.815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정한 진술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문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 반응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M = 6.50, SD = .674)'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진술문 11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내가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M = 6.50, SD = .798)', 진술문 26 '내 역전이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 수 있는지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M = 6.25, SD = .754)', 진술문 53 '내가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매몰되지 않은 채로 내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M = 6.25, SD = .754)', 진술문 21 '지금 역전이를 사용하려 개입하려는 것이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이 확실하다(M = 6.08, SD = .996)', 진술문 41 '내 역전이 감정이 너무 뜨겁고 아프거나 격려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크기이다(M = 6.08, SD = .996)', 진술문 40 '내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하지 않고 내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M = 6.08, SD = 1.084)' 등, 숙련상담사 자신의 역전이에 압도되거나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비치료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역전이를 조절하고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고려를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서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정한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

여자들은 진술문 48 ‘내담자가 내 표정과 어감의 미묘한 변화도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므로 내 역전이를 솔직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M* = 3.25, *SD* = 1.815)’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진술문 67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먼저 꺼냈으므로, 이 기회를 사용하여 내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해야겠다(*M* = 3.83, *SD* = 2.167)’, 진술문 13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두 사람의 역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M* = 3.83, *SD* = 1.749)’, 진술문 15 ‘지금은 내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M* = 4.00, *SD* = 1.907)’ 등의 진술문들의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었다.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Ward 방법으로 도출된 7개 군집에 따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표 17>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M* = 5.76, *SD* = 1.214)’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M* = 5.65, *SD* = 1.100)’과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M* = 5.37, *SD* = 1.196)’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M* = 4.97, *SD* = 1.348)’은 중요도가 가장 낮게 인식되었고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M* = 5.01, *SD* = 1.454)’도 두 번째로 낮은 중요도로 인식되어, 연구 참여자들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에 대한 고려 요인으로서 상담관계에 대한 고려를 가장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내림차순)

군집	군집명	평균	표준편차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	5.76	1.214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	5.65	1.100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	5.37	1.196
군집 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	5.33	.913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	5.16	1.307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	5.01	1.454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	4.97	1.348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들을 숙련상담사 13인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고,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연구팀이 전사자료에서 532개의 기초진술문을 추출한 후, 기초진술문 종합 작업 및 대표진술문에 대한 전문가 적절성 평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0개의 대표진술문을 마련하였다. 대표진술문을 사용하여 숙련상담사 12인을 대상으로 대표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을 실시한 후 다차원척도 분석 및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숙련상담사의 인식은 3개의 차원과 7개의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술한 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숙련상담사들이 인식하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의 내용, 인식의 구조 및 중요도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고, 상담사 전문성 연구 및 상담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내용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관한 기초진술문들을 추출하기 전에,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팀 3인이 3차에 걸친 진술문 추출 훈련을 통해 전사자료에서 기초진술문을 추출할 내용의 범위를 상세하게 합의하였다. 이는 Kane과 Trochim(2007)의 개념도 연구 절차에서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사자료의 각각의 내용들이 본 연구의 초점질문인 ‘선생님께서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셨을 때,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

에서 무엇을 고려하셨습니까?'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합의사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면담 참여자 1, 3, 10의 전사자료를 읽으면서 면담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면담 참여자들은 대체로 먼저 역전이 경험 자체를 묘사하고(예: 그 내담자를 만날 때 자꾸 무력감이 들었다.), 역전이임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꼈음을 진술하고(예: 지금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대화는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고려하며(예: 내담자가 자기의 관계패턴을 알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즉시성 개입과 관련된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진술하였다(예: 내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또한 해당 내담자 사례에서 뿐 아니라 참여자가 평소에 역전이나 즉시성 개입과 관련하여 갖고 있었던 신념에 대해 진술하였고(예: 역전이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자신이 어떻게 즉시성 개입을 사용했었는지, 즉시성 개입에 있어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언급하였다(예: 역전이를 개방할 때는 먼저 내담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쪽으로 표현한다.).

이상의 대체적인 흐름을 연구팀은 각각 경험, 상황 인식, 개입 목적, 전문적 판단, 기본 신념, 의사결정, 개입 실행의 7가지 범주로 명명하였고, 그 중 개입 목적, 전문적 판단, 기본 신념의 세 가지 범주만 본 연구의 기초진술문 추출 범위에 해당한다고 합의하였다. 다시 말해,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숙련상담사들은 자신이 즉시성 개입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개입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고려한다. 둘째, 숙련상담사들은 자신의 역전이가 내담자의 내적 역동과 관계패턴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이해하고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인지를 고려하는 등의 전문적 판단을 한다. 셋째, 특정 내담자와의 역전이 상황과 관련된 고려사항이 아니더라도, 숙련상담사는 평소에 자신이 역전이나 즉시성 개입에 대해 정립해

두었던 생각, 신념, 믿음을 깔고 있는 채로 상담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들을 고려하여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핵심어 코딩을 통해 기초진술문들을 유사한 내용끼리 축약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70개의 대표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한 대표진술문은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 평균 3.56명(*SD* = 1.983)의 면담 참여자가 언급한 기초진술문 묶음들로부터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Bedi(2006)의 제안에 따라 대표진술문 선정 시 1명의 참여자만 언급한 진술문은 제외되었고 각 대표진술문과 같은 내용을 고려한다고 보고한 면담 참여자들이 평균 3.56명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표진술문들은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70개 대표진술문 중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언급한 대표진술문을 살펴보면, 먼저 진술문 '38.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가 13명 중 9명의 면담 참여자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문 38은 숙련상담사가 자신의 역전이가 내담자의 바깥의 관계패턴이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재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역전이가 내담자의 내적 역동과 관계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는 기존의 논의들(김진숙, 2009; Bion, 1957; Ogden, 1979; Sandler, 199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정신역동적 관점에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과도 연결된다. 투사적 동일시 개념에 따르면 내담자는 자신이 중요한 타자와 관계를 맺어오면서 내면화한 표상(Boesky, 1983; Sandler & Rosenblatt, 1962)에 따라 상담사와 관계를 맺는데, 내담자는 자기표상 중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측면을 분리하여 상담사에게 투사하게 되고, 내담자의 투사를 받은 상담사는 내담자가 투사한 것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내담자에 대해 특정한 역할로 행동하도록 압력을 느끼게 된다(Ogden, 1979; Sandler, 1993). 이때 투사적 동일시로 인해 상담사가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 행동이 역전이 반응인 것이다. 따라서 상담사의 역전이는 상담관

계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로서(Gordon, 1965),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 유발되는 역전이 반응은 내담자의 심리적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므로(Clarkson & Nuttall, 2000) 즉시성 개입으로 활용하기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진술문 '54. 이 역전이는 내 것이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역시 13명 중 9명의 면담 참여자가 언급하였다. 진술문 54는 숙련상담사가 역전이 반응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특성이나 미해결된 주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역동에 의해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역전이의 소재(locus)를 파악하는 것, 즉 이 역전이가 내 것인지 내담자 것인지를 살펴보는 생각을 빈번하게 보고하였고, 역전이가 오롯이 내 것이기만 한 경우에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예: 기초진술문 '4-96. 역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 있으므로 개입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역전이의 소재와 관련하여 Gorkin(1987)은 역전이 반응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상담사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 또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역전이를 주관적 역전이로 명명하고, 내담자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역전이를 객관적 역전이라고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가 혹시 자신의 미해결주제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내담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민감하게 살피는 것은 Gabbard(1995)가 상담사는 자신의 과거 관계경험에서 역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근원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상담사의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관여된 것인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일치하고, 상담전문가의 역전이 관리 과정을 분석한 하정(2016)의 연구에서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경험할 때 나의 감정과 내담자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역전이를 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내담자의 역동으로 살펴본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심상담사들은 자신의 역전이가 내담자의 역동과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인 상황에서조차 역전이 반응을 자신의

문제로 귀인(이영순, 2010; Hill, 2012)하기 때문에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더 어려워한다고 알려져 있다.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인식 구조

1)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차원

본 연구에서 숙련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인식 차원은 3차원 해법일 때 적절한 합치도 범위에 속하고 설명량이 충분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Stress value = .273, R^2 = .598) 차원의 수를 3차원으로 결정하였다. 각 차원의 좌표값을 통해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의 진술문들을 중심으로 차원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1차원(X축)은 고려대상 축으로 '상담사 요인 고려 — 내담자 요인 고려'로 나타났고, 2차원(Y축)은 준비도 판단 축으로 '인지적 준비도 판단 — 정서적 준비도 판단'으로 나타났으며, 3차원(Z축)은 개입목적 축으로 '내담자 통찰 추구 —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로 나타났다. 각 차원의 해석을 요약하고 선행연구의 논의들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차원: 고려대상 축 (상담사 요인 고려 — 내담자 요인 고려)

1차원(X축)은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상담의 두 주체인 상담사 또는 내담자 중에서 어느 쪽의 요인을 고려하는지를 의미하는 차원이다. 1차원의 부적 방향인 '상담사 요인 고려'의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모두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느끼는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진술문 10, 43) 역전이를 경험하는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어떤 주제가 건드려졌는지, 소화가 된 주제인지, 역전이에 대해 감정조절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고려하는(진

술문 8, 27, 28, 40) 진술문들이었고, 0을 기준으로 부적 방향에 있는 진술문들도 자신의 역전이와 연결하여 내담자의 역동과 관계패턴을 파악하고 개입목적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등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려가 위치하여, 모두 상담사 요인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었다. 한편 1차원의 정적 방향인 '내담자 요인 고려' 방향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고(진술문 1, 34) 내담자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진술문 19, 20, 33, 35, 36) 등 모두 내담자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1차원의 발견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위해서는 상담사가 내담자를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상담사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점검하고 역전이와 연결지어 사례개념화와 개입 방향을 고려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차원의 부적 방향인 '상담사 요인 고려' 방향은 첫째로 상담사가 역전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내면, 개인적인 경험과 상태를 살펴보는 인식과, 둘째로 역전이를 통해 전문가로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개입목적, 방향성을 살펴보는 인식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인식은 모두 상담사의 자기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숙, 2006;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정희선, 김지현, 2017; 황주연, 정남운, 2010; Nelson & Neufeldt, 1996). 전자는 상담사의 자기성찰 중에서도 특히 상담사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내면을 숙고하고 이해해 나가면서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예: 상담사 반응, 내담자 반응 등)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황주연, 정남운, 2010)인 개인내적인 성찰이고, 후자는 상담 중에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주시하면서 즉시적으로 내담자에 대한 이해, 상담 개입,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과정인 '실행 중의 성찰(reflection-in-practice; Schön, 1983)'에 해당한다. 상담사 발달 모형에 따르면 전문성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성찰 뿐 아니라 상담관계에 대한 성찰과 통찰이 증진되는데(Loganbill et al., 1982, Stoltenberg & Delworth, 1987; Skovholt & Rønnestad, 1992) 본 연구의 숙련상담사들이 자기성찰을 중시하는 것 역시 상담사 발달 모형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상담사의 성찰적인 사고과정은 특히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상황이라고 상담사가 인식했을 때 더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다(Neufeldt, 2001; Neufeldt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경험한다는 것은 대체로 상담이 순조롭거나 편안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꽉 막혀있거나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와의 암묵적인 긴장감 또는 표면화된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로부터 1차원의 부적 방향과 같이 상담사 요인에 대한 고려가 다양하게 수집된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전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즉시성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상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미해결 주제, 역전이 감정 등을 성찰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은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감정적,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사례개념화를 토대로 역전이를 개방하고자 하는 자신의 개입목적과 개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Tracy et al., 1998).

(2) 2차원: 준비도 판단 축 (인지적 준비도 판단 — 정서적 준비도 판단)

2차원(Y축)은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상담의 두 주체인 상담사 또는 내담자가 각자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준비된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인식 차원이다. 2차원의 부적 방향인 '인지적 준비도 판단' 방향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숙련상담사가 자신의 역전이를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연결지어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를 고려하고(진술문 2, 29, 52) 내담자가 자신의 관계패턴을 통찰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 대안적인 패턴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입목적과 방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는(진술문 23, 24, 55) 등 사례개념화 및 개입방향 판단과 관련된 인지적인 준비도에 대한 고려를 나타낸다. 또한 2차원의 정적 방향인 '정서적 준비도'는 극단에는 숙련상담사 자신이 역전이를 수용하고 역전이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면서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상태임을 고려하고, 0과 정적 극단 사이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내담자가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상담사의 역전이에 감정적으로 압도되지 않을 힘이 있고(진술문 19, 30, 35, 45) 상담관계를 충분히 신뢰하는(진술문 1, 34, 47) 정서적 상태임을 고려하고 있어, 종합적으로는 상담사 및 내담자의 정서적 준비도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원이 '인지적 준비도 판단 — 정서적 준비도 판단' 차원으로 발견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담 및 심리학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측면인 '인지'와 '정서'의 구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Darwin(1872/1965)이 '생존에 결정적인 것은 환경에서 위험과 보상을 포함한 중요한 정서적 정보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적절한 행동 반응을 형성하는 능력이다.'라고 언급한 이래로, 인지와 정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두 체계로 이해되고 있으며(최인영, 정윤경, 2020),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hot(정서) and cool/cold(인지)'로 표현되곤 한다(김재희, 노지영, 2021; Ayduk, Mischel, & Downey, 2002; Zelazo, Qu, & Müller, 2005). 상담학에서도 Tracey, Lichtenberg, Goodyear, Claiborn과 Wampold(2003)의 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치료적인 상담사 요인들에 대한 개념도 연구에서 발견된 '정서 과정(hot processing) — 인지 과정(cool processing)' 차원 역시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차원이 상담의 두 주체인 상담사와 내담자의 인지적 준비도 또는 정서적 준비도에 대한 판단이지만, 실제 본 연구에서의 대표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정적 방향은 상담사의 정서적 준비도와 내담자의 정서적 준비도를 모두 포괄하는 반면 부적 방향은 상담사의 인지적 준비도에 해당하는 진술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정서적 준비도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역전이의 특성상 역전이가 상담사에게 강한 정서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담사가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조절하는 상태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역전이 개방이 내담자에게 자책감, 수치심, 공격받는 느낌 등의 정서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숙련상담사들이 상담사와 내담자의 정서적 준비도를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 준비도와 관련해서는 상담사는 역전이를 내담자의 호소문제 및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연결지어 고려하고 개입방향을 판단하는 등의 인지적 활동이 내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인지적 활동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방향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어야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내담자는 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해 즉시성 개입을 한 결과로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 관계패턴을 돌아보는 통찰과 성찰이 촉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결정에 있어서 내담자의 사전 인지적 준비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3차원: 개입목적 축 (내담자 통찰 추구 —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

3차원(Z축)은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결정에 있어서 즉시성 개입이 상담사가 기대하는 개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적절한지를 고려하는 인식 차원이다. 3차원의 부적 방향인 '내담자 통찰 추구'의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역전이와 연결지어 내담자와 내담자의 바깥에서의 관계를 이해하는 고려를 통해(진술문 3, 22, 37, 38, 66, 68)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자기이해와 관계패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는 관점을 나타낸다. 3차원의 정적 방향인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 방향의 정적 극단은 인간 대 인간으로 생생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추구하고(진술문 56, 59), 역전이 개방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음을 고려하고 있어(진술문 49, 69), 개입을 통해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하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3차원은 숙련상담사들이 기대하는 개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전이를 개방하는 즉시성 개입이 적절할지를 고려함으로써,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에게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거나 혹은 진솔한 상담관계를 제공하고자 할 때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3차원의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으로 드러난 두 가지의 개입목적은 역전이 및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의 차이로 연결지

어 이해해볼 수 있다. 먼저 부적 방향의 '내담자 통찰 추구'는 정신분석 및 대상관계학파 등 정신역동적 관점과 관련된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담사가 경험하는 역전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담사의 중요한 역할은 상담장면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신체적 반응 등의 역전이를 담아냄으로써 역전이를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Bion, 1957; Gordon, 1965; Mitchell & Black, 1995). 상담사가 담아낸 역전이가 내담자의 통찰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석이 아니라 역전이를 직접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아직도 정신역동적 관점 안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지만(Mitchell & Black, 1995), 많은 이론가들은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와 상담사의 상호작용 역동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깊은 내면에 대한 탐색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Atwood & Stolorow, 2014; Balint, 1950; Bion, 1957; Fairbairn, 1943).

한편 정적 방향의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는 보다 인간중심이론, 실존주의 상담이론에서 강조되는 바와 연결된다. Rogers(2007)는 상담사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담자에게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담사 자신의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을 일치시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상담사의 진솔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만나지 못했던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접촉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Yalom(2002) 역시 상담사가 상담관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개방할 때 참만남이 일어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역전이를 개방할 것인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상담사는 매 순간 투명하고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내담자와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상담관계의 진솔성 자체가 상담에서 핵심적인 치료적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3개 차원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숙련상담사들은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한 후 상담사 자신과 내

담자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을 통해 역전이를 활용할 즉시성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때 숙련상담사들은 상담의 두 주체인 상담사 측면 또는 내담자 측면을 살펴보고(1차원 고려대상 축), 상담의 두 주체가 각자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인지적 또는 정서적으로 준비된 상태인지를 고려하며(2차원 준비도 판단 축), 즉시성 개입이 상담사가 기대하는 개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다시 말해 내담자의 통찰을 추구하거나 진솔한 상담관계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 타당하고 효과적인 개입인지를 고려하여(3차원 개입목적 축) 즉시성 개입을 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숙련상담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동시에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인들이 이상의 세 가지 잠재적인 인식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다.

2)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 군집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 진술문들의 좌표값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Ward의 방법, 중심값 연결법, 평균 연결법 등 여러 군집분석 방법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Ward 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7개로 결정하는 것이 군집의 유의미한 해석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3차원 및 2차원 공간상에 표현한 개념도를 통해 각 군집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7개 군집은 각각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 ‘군집 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으로 명명되었다. 가장 많은 진술문이 포함된 군집은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으로 17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고, 한 군집 당 평균 10개(*SD* = 4.163)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각 군집의 의미를 차원에서의 위치와 관

련지어 특징적인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연결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과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 및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은 1차원 고려대상 축의 부적 방향 ‘상담사 요인 고려’에 위치하여 숙련상담사가 자신의 요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 군집 1은 정적 방향의 정서적 준비도, 군집 3과 군집 4는 부적 방향의 인지적 준비도로 나누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차원 공간상에서 군집 1은 우측에 길게 분포하는 반면 군집 3은 좌측 상단, 군집 4는 좌측 가운데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

군집 1 ‘상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은 숙련상담사가 자신의 정서적 준비도를 점검하면서 현재 역전이로 인해 액팅아웃하지 않고 감정을 홀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서 상태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역전이가 상담사의 개인적 경험 및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미해결된 상태로 강한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태는 아니어야 함을 강조한 기존의 논의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은 제대로 인식되고 관리되지 않은 역전이는 내담자에 대한 회피와 관여 철수(Latts & Gelso, 1995; Robbins & Jolkovski, 1987), 내담자에 대한 정보 회상의 어려움(Gelso et al., 1995; Latts & Gelso, 1995), 작업동맹의 저하(Talbot et al., 2019), 조기종결(Hayes et al., 1998)로 이어지고 상담사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Gabbard, 2009; Houshangi et al., 2022; Rosenberger & hayes, 2002)을 경고하고 있으며, 반면 상담사가 역전이를 잘 관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홀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작업동맹의 증진(김택준, 신희천, 2016; Hayes & Gelso, 2001)을 가져오고 상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한은주, 최한나, 2013; McClure & Hodge, 1987)을 강조하고 있다.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은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하는 즉시성 개입이 내담자의 핵심 역동으로 들어가고 상담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내담자의 감정 접촉과 통찰로 나아갈 수 있겠다고 고려하는 것이

다. 이는 상담사의 인지적 준비도라고 할 수 있으며, 숙련상담사들은 개입의 유용성을 주로 상담관계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기에 3차원 개입목적 축의 정적 방향인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 방향에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집 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은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고려하는 것으로, 군집 3과 마찬가지로 상담사의 인지적 준비도에 해당하지만 내용상 내담자에게 상담관계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관계패턴에 대한 통찰과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므로 3차원 개입목적 축의 부적 방향인 '내담자의 통찰 추구' 방향에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군집 3과 군집 4은 기존의 논의에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여 핵심 역동으로 들어갈 수 있고(하정, 2006; Hill et al., 2008; Hill et al., 2018; Mayotte-Blum, 2012), 상담관계에서의 역동을 통해 내담자가 바깥의 관계경험과 패턴을 통찰하고 대안반응을 모색할 수 있으며(Hill et al., 2008; Safran & Muran, 2000) 상담이 꽉 막힌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Ginot, 2007; Jurist, 2008; Seligman, 2007)고 강조한 내용들과 일치한다.

둘째, 군집 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과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은 둘 다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 정적 방향인 '내담자 요인 고려'에 위치하고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 정적 방향인 '정서적 준비도 판단'에 위치하고 있어 두 군집 모두 내담자의 정서적 준비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 군집 6은 부적 방향인 '내담자의 통찰 추구'에, 군집 7은 정적 방향인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3차원 공간상에서 군집 6은 전면의 하단에, 군집 7은 군집 6의 위쪽으로 전면에 길게 위치하고 있다. 군집 6과 같이 내담자가 상담사의 역전이 개방에 자책하거나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는 내담자에게 통찰을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하게 하므로 3차원의 부적 방향과 관련되고, 군집 7과 같이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충분한 라포와 작업동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하

는 것과 더 관련되어 있어 3차원의 정적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군집 6과 7을 통해 숙련상담사들은 내담자가 상담사의 역전이 개방을 받아낼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내담자의 두 가지 정서적 준비도로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홀딩하고 수용하고 있는 상태인지,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담자의 준비도는 선행연구에서 상담의 단계와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다. Shafran 등(2016)은 즉시성이 상담 초반에 사용되는 경우 작업동맹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고, Li 등(2016)의 연구에서는 회기 초반부에는 즉시성이 내담자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회기 후반부에는 즉시성이 내담자 협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질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된 진술문들 중에서도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와의 라포와 작업동맹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된 내용이 많았다. 이를 볼 때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상담에서 라포와 작업동맹이 충분히 형성되고 내담자의 성찰 능력과 감정 홀딩 능력이 증진된 단계인지를 고려하여 즉시성 개입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과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은 둘다 1차원과 2차원에서는 크게 변별되지 않지만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 군집 5는 부적 방향 '내담자의 통찰 추구'의 극단에 분포하고 군집 2는 정적 방향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의 극단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3차원 공간상에서 군집 2는 최상단에, 군집 5는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두 군집이 3차원의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은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상담관계의 진솔성과 연결성을 추구하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고, 앞서 차원에 대한 논의에서 3차원의 정적 방향에 대해 살펴본 바와 일치한다. 한편 군집 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은 축을 고려할 때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의 호소문제 및 사례개념화를 점검하여 내담자의 역동과

관계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준비된 상태로서, 이를 통해 내담자에게 통찰을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에 대한 중요도

본 연구에서 12인의 면담 참여자가 70개의 대표진술문들이 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하기로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으로서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전체 대표진술문들의 중요도는 평균 5.38점(SD = 1.194), 최소값은 3.25점, 최대값은 6.50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표진술문 목록을 중요도 우선순위 순으로 살펴보았을 때 특기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자각하였을 때 그 역전이를 개방하여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사의 역전이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성찰하고 상담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관계패턴을 통찰하도록 촉진하는 데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진술문이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 반응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M = 6.50, SD = .674)이고, 7개 군집별로 숙련상담사들의 중요도 인식을 비교한 결과에서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결정에 있어 군집 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이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M = 5.65, SD = 1.100)로 평가된 것으로 뒷받침된다.

둘째,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상담사 자신이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자신의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역전이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며, 역전이를 개방하려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점검하는 것(진술문 11, 21, 26, 40, 41, 53)이 즉시성 개입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군집별로 숙련상담사들의 중요도 인식을 비교한 결과에서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인식하는 군집이 군집 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M = 5.76, SD = 1.214)인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즉, 숙련상담사들은 상담회기 중에 역전이를 지금 개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즉시성 개입을 지금 쓰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하게 될 때, 그러한 판단이 자신의 미해결된 갈등이나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중요하게 성찰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사가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감정에 압도되고 매몰된 상태에서 역전이를 개방함으로써 내담자를 공격하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는 비치료적인 반응을 하게 되지 않도록 민감하게 경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겠다. 이는 Tracey 등(1998)의 연구에서 상담사의 전문성과 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응을 자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서,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군집 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의 중요도가 가장 낮다는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M = 4.97, SD = 1.347). 물론 최저점임에도 4점(보통)을 넘는 4.97점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개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숙련상담사들은 내담자와의 상담관계에서 충분한 라포와 작업동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술문 62 '역전이를 다루는 진솔한 대화는 상담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와 같이, 신뢰가 쌓인 상담관계일 때에만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

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즉시성 개입을 통해 상담관계가 깊어지고 증진될 수 있음(김진숙, 2009)이 시사된다.

넷째, 숙련상담사들은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하는 개입목적 역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의 중요도가 두 번째로 낮게 평가된 결과로 확인된다(M = 5.01, SD = 1.454). 3차원 개입목적 축이 두 가지 방향인 '내담자 통찰 추구'와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로 확인된 것은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을 기본적으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의 역전이 개념과 활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숙련상담사들로 선별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신역동적 입장과 같이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의 통찰을 추구하는 목적이 진솔한 상담관계 자체를 추구하는 목적보다 더 우세하게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겠다.

4. 상담사 교육에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련상담사들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요인에 대한 인식이 3개의 차원과 7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과를 통해, 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담사들이 역전이에 대해서, 또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평소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숙련상담사들은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 사례에서

의 인식 뿐만 아니라 역전이와 즉시성 개입에 대해 평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태도 역시 많이 보고하였는데, 각각의 내용들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 예컨대, 역전이를 강하게 경험하는 자신의 모습을 당황스럽게 느끼고 역전이를 경험하는 상담사는 전문성이 없다고 자책하는 상담사는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진술문 13.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두 사람의 역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와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상담사가 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개입을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했을 때 성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염려하는 상담사는 즉시성 개입을 주저할 수 있지만, '진술문 49. 역전이를 개방해서 개입했다가 바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진술문 69.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튕겨내거나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을 교류하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진 상담사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초심상담사들은 역전이가 인식되었을 때 자신이 내담자와 상담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내담자의 호소문제나 자신이 세운 사례개념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이 역전이 감정을 적절하게 느낀 것인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했을 때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와 같이 염려하여 개입을 주저한다고 알려져 있다(Wheeler & D'andrea, 2004). 본 연구의 대표진술문 '29. 내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각, 감정, 신체감각은 대부분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와 같이 초심상담사가 자신이 경험하는 역전이 반응은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앞서 언급한 진술문 49, 69와 같이 역전이를 개방해서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으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시도할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전이 활용 및 즉시성 개입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에는 먼저 초심상담사가 그동안 회기 중에 역전이를 자각하였을 때 어떤 생각, 느낌을 경험하였고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떠올려보게 한다. 또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 느낌,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볼 때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등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초심상담사가 경험한 생각과 느낌은 한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초심상담사의 발달 단계상 자연스럽고 당연한 경험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발달 단계가 비슷한 상담사끼리 소그룹으로 묶어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초심상담사가 역전이 및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들은 불안감이나 낮은 효능감에 의해 과도하게 왜곡된 부분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본 연구에서 보고된 숙련상담사들의 기본 신념들을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어떤 신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숙련상담사들의 세 가지 인식 차원을 적용하여,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순간임을 판단하고 결정하기까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숙련상담사들이 고려하는 각각의 요인들, 즉 각 대표진술문들이 숙련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언제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절차적 지식이라면, 각 고려 요인들의 차원과 군집은 구조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숙련상담사들의 구조적 지식을 토대로, 1차원 고려대상 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담의 두 주체인 상담사 요인과 내담자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교육한다. 또한 2차원 준비도 판단 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내담자가 상담사의 역전이 개방에 위축되거나 액팅아웃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준비도를 판단할 때는 상담사가 인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 상담사의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고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상담사가 정서적으로 자신의 역전이를 홀딩하고 수용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며, 내담자가 성찰능력 및 정서를 홀딩하는 힘이 충분한 상태인지를 점검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3차원 개입목적 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은 내담자에게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통해 진솔한 상담관계 자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을 교육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교육할 때 본 연구의 차원 및 군집별로 구체적인 대표진술문들을 예시로 제공하면 초심상담사들의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숙련상담사들의 인식이 세 차원의 구조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사들을 위한 즉시성 개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세 차원의 인식 구조에 따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 효과적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의 대표진술문에 대한 내용별 및 군집별 중요도 결과를 적용할 때,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상담사가 역전이를 홀딩하고 수용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가 아무리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사가 역전이가 너무 강렬하거나 소화되지 않아 내담자에게 액팅아웃을 하게 된다면 치료적이지 않은 반응일 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숙련상담사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전문성 발달에 이르게 된 것처럼, 초심상담사들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역전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 연약함, 인간적인 한계 등을 성찰하도록 독려하고,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자기점검을 해보았을 때 스스로 역전이를 홀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인식되었다면 그 회기에 바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보다는 회기가 끝나고 자기성찰과 교육분석, 동료 수퍼비전 및 자문, 교육분석 등을 통해 역전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상담사 교육 훈련에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마치 본 연구의 3가지 차원과 7가지 군집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들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고려 요인이 수집되었지만 각 숙련상담사가 본 연구의 고려 요인들을 모두 보고한 것이 아니며, 숙련상담사들은 실제 회기 중에는 각각의 고려 요인들을 기계적으로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인식 차원에 따라 매우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상담사가 역전이를 자각한 순간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초심상담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더 어렵게 느껴 사용하기를 꺼리게 될 수 있다.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되 개별 내담자의 특성이나 상담사의 특성, 상담의 고유한 맥락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며,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찾아가는 것임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Ⅵ.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숙련상담사들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을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상담사가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인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동안 상담사가 경험하는 역전이를 개방하여 개입에 활용하면 상담성과에 유용함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심상담사들은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할 때 확신이 없고 내담자가 침범적으로 느끼거나 화를 낼까봐 두려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Egan, 2015; Hill, 2012; Wheeler & D'andrea, 2004). 서영석 등(2012)의 연구 결과가 시사한 바와 같이 즉시성을 빈번하게 또는 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시성의 내용과 타이밍 또는 즉시성이 사용되는 맥락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숙련상담사들이 어떤 타이밍과 맥락, 조건을 고려하여 개입하기로 결정하는지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초심상담사를 위한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기초진술문 추출 및 대표진술문 종합 작업을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연구팀이 사전미팅 1회 및 3차에 걸친 훈련(총 10시간)을 통해 전사자료에서 기초진술문을 추출하는 범위를 면밀하게 합의하였고, 3차 훈련을 통해 기초진술문 추출 방식에 대한 동일한 이해에 도달한 이후 각자 기초진술문을 나누어 추출한 후 다시 함께 감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임의로 진술문을 추출할 위험성을 차단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기존의 개념도

연구들이 개념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한계(최윤정, 2019)를 보완하기 위하여, Trochim(1993)이 제안한 개념도의 신뢰도 분석 방법에 따라 반분 전체 행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 유사성 분류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평균 평정 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 중요도 평정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방법들을 연구방법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므로, 앞으로 상담학 분야에서 수행될 개념도 연구들이 개념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개념도 결과를 R을 사용하여 3차원 공간상에 3D로 시각화하였을 뿐 아니라, 시각화된 도표와 사용자 간의 즉각적이고 동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랙티브 시각화(Buja et al., 1996; Khan & Khan, 2011)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3차원 해법은 2차원 해법에 비해 합치도와 설명량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이전에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 3차원 평면의 지각적 왜곡을 해결할 수 없어 대개 2차원으로 강제되었지만(박광배, 2000),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및 3D 시각화 기법의 발전으로 3차원 공간상에 개념도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Orsi, 2017; McLinden, 2016; McLinden, 2017), 국내 상담학 분야에서도 3D 시각화가 처음 시도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현은정, 2022).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상에 시각화된 개념도가 지면상에서는 결국 2차원 평면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누구나 본 연구의 3D 도표를 다운로드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였고, 향후 3차원 개념도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사용한 R 코드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상담학 분야에서 3차원 개념도 연구가 더 활발하게 수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들은 대체로 대학 강사 및 교수이거나 사설 상담센터 또는 기업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숙련상담사들로서,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숙련상담사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들이 만나는 내담자들이 비교적 잘 기능하는 내담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산출된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인지적 준비도'에 대한 진술문이 거의 없었는데, 만약 청소년 상담기관의 숙련상담사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면 내담자의 지적 능력, 인지적 기능 수준에 대한 고려도 더 많이 보고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상담사들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차원과 군집별 진술문들 중에서 해석이 어려운 진술문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참여자 평정의 극단치에 민감하게 결과가 좌우되는 다차원척도 분석 및 군집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진술문 32 '오늘 회기 안에 내 역전이를 개방하여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와 진술문 63 '오늘 작업한 후에 내담자가 자책이나 상담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로 끝나지는 않도록 회기 내에 매듭지을 시간이 충분하다' 등 시간적 여유에 대한 진술문들은 3차원의 정적 방향인 '진솔한 상담관계 추구'에서 높은 좌표값을 보였고 군집분석에서도 군집 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에 속하였지만, 차원과 군집의 명칭이 이들 진술문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 만약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서 시간적 여유 혹은 상황적 맥락에 대한 진술문들이 더 많이 생성되었다면 별도의 유의미한 군집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점질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전사자료에서 도출된 총 606개 기초진술문들 중에서 131개의 진술문은 즉시성 개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고려한 점이었는데(역방향 진술문), 이 중 제외된 75개 진술문은 문장을 뒤집었을 때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은, 다시 말해 즉시성 개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상황에서만 고려하는 특수한 내용들이었다(예: '4-469. 내담자가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혼란감이 큰 응급 상태여서 작업을 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의 인식 내용과 구조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상담사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초심상담사들이 즉시성 개입을 주저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초심상담사의 고려 요인과 숙련상담사의 고려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면담에서 참여자들이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뿐 아니라 결정한 이후에 실제 역전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방했는지, 역전이 개방을 통해 역전이를 활용할 때 사용하면 좋은 실제적인 노하우를 다양하게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어서 아쉽게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영석 등(2013)이 상담사들의 회기 전사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즉시성 개입의 내용과 유형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한 적 있지만, 서영석 등(2013)의 연구는 역전이를 활용하는 즉시성 개입만이 아니라 즉시성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상담사의 즉시성과 상담회기평가 및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다층모형으로 확인하는 양적 연구였기 때문에 실제 상담사들이 즉시성 개입을 할 때 어떤 의도에 따라 어떤 점에 유의하여 개입을 진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숙련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하여 즉시성 개입을 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현상학 또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다섯째, 개념도 연구방법은 개념도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척도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분석 단계에서 연구를 종결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상담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역량 척도'를 개발한다면 본 연구의 대표진술문들을 척도 문항을 제작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숙련상담사들의 인식 구조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상위척도 및 하위척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연구의 의의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숙련상담사들의 인식 내용과 구조를 사용하여 초심상담사들이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적용영역별 접근**. 서울: 학지사.

김계현(2000).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김계현, 문수정(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김동일, 임희진, 김주선, 김희은, 문성은, 이연재, 장혜명, 조은정, 안제춘(2019).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지원방안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0**(1), 25-46.

김민정, 최한나(2021). 상담사의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853-881.

김수임(2012). **조직 팀장의 인지도식에 기반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구조: 기업상담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순영, 배성만, 주은선(2015). 상담사의 상담경력에 따른 상위인지 자각과 포커싱적 태도가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2), 157-178.

김정규 (2015). **게슈탈트 심리치료: 창조적 삶과 성장**. 서울: 학지사.

김재희, 노지영(2021). 부모양육과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성별과 인지적 (cool)· 정서적 (hot) 실행기능의 조절된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2**(1), 1-15.

김진숙(2006). 성찰적 수퍼비전 접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73-694.

김진숙(2009). 투사적 동일시의 의미와 치료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765-790.

김택준, 신희천(2016).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사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291-309.

김현령, 김창대(2013). 집단상담사 경력에 따른 자기대화 차이 분석: 집단원의 대화독점 문제상황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125-2141.

김혜미, 오인수(2016). 숙련상담사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17**(5), 159-180.

나장함(2017). 교과교육 분야 질적연구의 타당도 확보 기법에 대한 고찰: 참여자 확인, 동료검토, 감사추적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70**, 233-254.

민경화, 최윤정(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박광배(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박정민, 유성경(2007). 상담사의 회기 내 자기자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31-53.

서영석, 조화진, 고은영, 최바올, 조민아, 김민선, 안하얀, 백근영, 최영희, 이정선(2013). 상담사 즉시성의 유형, 사용 이유 및 내담자의 반응. **상담학연구**, **14**(4), 2351-2373.

서영석, 조화진, 조민아, 김민선, 최바올, 고은영, 안하얀, 백근영, 최영희, 석분옥, 이정선, 민경화, 김효주, 박준호(2012). 상담사 즉시성이 상담 회기평가 및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회기-내담자-상담사 3 수준 다층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753-780.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2003). 상담사의 자기 성찰 (reflection) 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심흥섭, 이영희(1998). 상담사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28.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2012). 상담사의 경력과 사례개념화수준 간의 관계: 인지적 지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71.

유성경, 심혜원(2005). 상담사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789-812.

윤재호, 정남운(2009). 메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99-626.

윤희섭, 정현희(2010). 상담일반: 상담사의 애착유형과 발달수준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의 차이. **상담학연구**, **11**(2), 485-505.

은혜경(2010).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림, 조성호(2009). 상담사발달과 지혜에 관한 연구: 상담사 발달수준에 따른 상담사의 지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69-91.

이영순(2010). 초보 상담사들의 어려움과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성과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021-1035.

이영은, 이창환(2011). 상담사의 인지 복합성과 대처 유연성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3), 1178-1187.

이혜선, 최선남(2010). 미술치료사의 치료경험과 역전이 관리 능력이 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7**, 149-155.

임고운, 김지현(2008). 상담사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9**(3), 987-1006.

전경옥, 하정(2015). 상담사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 성찰의 매개 효과. **인간이해**, **36**(2), 41-53.

정희선, 김지현(2017). 상담사 자기성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1), 87-109.

조수연, 권경인(2011). 초기상담에서 상담사 경력별 공감정확도와 상담만족도: 임상 실제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담자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57-275.

채민정, 김창대, 김수임(2008). 내담자의 회기 불참에 대한 상담사 자기대화 분석: 상담사 발달수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9**(4), 1449-1474.

최명식(2005). **역전이 활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윤정(2019).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개념도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적 개관. **상담학연구**, **20**(6), 179-199.

최인영, 정윤경(2020).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관련성: 정서인식 명확성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87-102.

최한나, 김창대(2008).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하정(2016). 상담전문가의 역전이 관리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311-337.

한영주, 권경인, 유성경, 김창대(2012). 낮은 성과를 보인 상담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3**(1), 71-97.

한은주, 최한나(2013). 역전이 활용능력과 상담만족도의 관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4**(1), 75-91.

현은정(2022). **대학상담기관 상담사의 제적위기 학사경고자 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인호(2005). 상담사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47-563.

황주연, 정남운(2010). 상담사 자기성찰 (Self-Reflection) 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41-263.

Alhejaili, A. (2020). *Immediacy and Mindfulness Among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Barry University.

Anderberg, M. R. (1973). The broad view of cluster analysis. *Cluster analysis for applications*, *1*(1), 1-9.

Anderson, S. C., & Mandell, D. L. (1989). The use of self-disclosure by professional social workers. *Social Casework*, *70*(5), 259-267.

Aron, L. (1991). The patient's experience of the analyst's subjectivity. *Psychoanalytic dialogues*, *1*(1), 29-51.

Atwood, G. E., & Stolorow, R. D. (2014). *Structures of subjectivity: Explorations in psychoanalytic phenomenology and contextualism*. Routledge.

Ayduk O., Mischel W., Downey G. (2002) Attentional mechanisms linking rejection to hostile reactivity: The role of "hot" versus "cool" focus. *Psychological Science*, *13*, 443-448.

Baillie, L. (2015). Promoting and evaluating scientific rigour in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Standard*, *29*(46), 36-42.

Balint, M. (1950). Changing therapeutical aims and techniques in psycho-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1*, 117-124.

Bedi, R. P. (2006). Concept mapping the client's perspective on counseling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26-35.

Bedi, R. P., & Alexander, D. A. (2009). Using multivariate concept-mapping for examining client understandings of counselling.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43*(2), 76-91.

Bedi, R. P., Cook, M. C., & Domene, J. F. (2012). The university student perspective on factors that hinder the counseling alliance. *College Student Journal*, *46*(2), 350-361.

Bion, W. R. (1957). Differentiation of the psychotic from the non-psychotic persona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8*, 266-275.

Boesky, D. (1983). Representations in self and object theory. *Psychoanalytic Quarterly*, *52*, 564-583.

Bon-Martens, M. J. H. van, Goor, I. A. M. van de, & Oers, H. A. M. van. (2017). Concept mapping as a method to enhance evidence-based public health.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0*, 213-228.

Buja, A., Cook, D., & Swayne, D. F. (1996). Interactive high-dimensional data visualization.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graphical statistics*, *5*(1), 78-99.

Campbell, R., & Salem, D. A. (1999). Concept mapping as a feminist research method: Examining the community response to rap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1), 65-89.

Carkhuff, R. R., Pierce, R. M., & Cannon, J. R. (1977). *The art of helping III*.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Cashwell, C. S., Young, J. S., Tangen, J. L., Pope, A. L., Wagener, A., Sylvestro, H., & Henson, R. A. (2016). Who is this God of whom you speak? Counseling students' concept of God. *Counseling and Values*, *61*(2), 159-175.

Chi, M. T., Glaser, R., & Farr, M. J. (2014). *The nature of expertise*. Psychology Press.

Chun, J. (2018). Conceptualizing effective interventions for smartphone addiction among Korean female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4*, 35-39.

Clarkson, P., & Nuttall, J. (2000). Working with countertransference. *Psychodynamic Counselling*, *6*(3), 359-379.

Cooper, S. H. (2018). Countertransference Disclosure and the Conceptualization of Analytic Technique.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67*(1), 128-154.

Cummings, A. L., Hallberg, E. T., Martin, J., Slemon, A., & Hiebert, B. (1990). Implications of counselor conceptualiz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120-134.

Duncan, B., Miller, S., Wampold, B., & Hubble, M. (2009). *The heart and soul of change (2nd ed.)*. Washington, DC: APA press.

Eells, T. D., Lombart, K. G., Salsman, N., Kendjelic, E. M., Schneiderman, C. T., & Lucas, C. P. (2011). Expert reasoning in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Psychotherapy Research*, *21*(4), 385-399.

Egan, G. (2015). 유능한 상담사[The skilled helper: A problem-management and opportunity-development approach to helping (9th)]. (제석봉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0년에 출판)

Ehrenberg, D. B. (1995). Self-disclosure: Therapeutic tool or indulgence? Countertransference disclosure. *Contemporary Psychoanalysis*, *31*(2), 213-228.

Etringer, B. D., Hillerbrand, E., & Claiborn, C. D. (1995). The transition from novice to expert counsel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1), 4-17.

Everitt, B. (1980). *Cluster analysis (2nd ed.)*. New York: Halsted.

Fairbairn, W. (1943). The repression and the return of bad object. In. Fairbairn, W. (1994).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Foreman, S. A., & Marmar, C. R. (1985). Therapist actions that address initially poor therapeutic alliances in psychotherap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8), 922-926

Freud, S. (1910). The future prospects of psycho-analytic therapy.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I (1910): *Five Lectures on Psycho-Analysis, Leonardo da Vinci and Other Works* (pp. 139-152).

Freud, S. (1912). *Recommendations to physicians practicing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press.

Gabbard, G. O. (1995). Countertransference: The emerging common ground.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6*, 475-485.

Gabbard, G. O. (2009).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Developments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Annals*, *39*(3), 129-136.

Gelso, C. J., Fassinger, R. E., Gomez, M. J., & Latts, M. G. (1995).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to lesbian clients: The role of homophobia, counselor gender,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 356.

Gelso, C. J., Latts, M. G., Gomez, M. J., & Fassinger, R. E. (2002).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nd therapy outcome: An initial evalu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7), 861-867.

Gelso, C. J., & Palma, B. (2011). Directions for research on self-disclosure and immediacy: Moderation, mediation, and the inverted U. *Psychotherapy*, *48*(4), 342.

Ginot, E. (2007). Intersubjectivity and neuroscience: Understanding Enactments and Their Therapeutic Significance Within Emerging Paradigms. *Psychoanalytic Psychology*, *24*(2), 317-332.

Ginot, E. (2009). The empathic power of enactments: The Link Between Neuropsychological Processes and an Expanded Definition of Empathy. *Psychoanalytic Psychology*, *26*(3), 290-309.

Gnanadesikan, R., & Wilk, M. B. (1969). *Data Analytic Methods in Multivariate StatMtical Analyeirr. Multivariate Analysis II*, Academic Press, New York.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155-171.

Goodyear, R. K., Tracey, T. 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Gordon, R. (1965). The concept of projective identification.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10*(2), 127-149.

Gorkin, M. (1987). *The uses of countertransference*. Jason Aronson.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Guest, G., Bunce, A., & Johnson, L. (2006). How many interviews are enough? An experiment with data saturation and variability. *Field methods*, *18*(1), 59-82.

Hayes, J. A., McCracken, J. E., McClanahan, M. K., Hill, C. E., Harp, J. S., & Carozzoni, P. (1998). Therapist perspectives on

countertransference: Qualitative data in search of a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468-482.

Hayes, J. A., & Gelso, C. J. (2001). Clinic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countertransference: Science informing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8), 1041-1051.

Hayes, J. A., Gelso, C. J., Van Wagoner, S. L., & Diemer, R. A. (1991).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What the experts think. *Psychological Reports*, *69*(1), 139-148.

Heimann, P. (1950). On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1*, 81-84.13

Henretty, J. R., & Levitt, H. M. (2010). The role of therapist self-disclosure in psychotherapy: A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1), 63-77.

Hill, C. E. (2012). 상담의 기술: 탐색-통찰-실행의 과정[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3rd ed.)].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9년에 출판)

Hill, C. E., Gelso, C. J., Chui, H., Spangler, P. T., Hummel, A., Huang, T., Jackson, J., Jones, R. A., Palma, B., Bhatia, A., Gupta, S., Ain, S. C., Klingaman, B., Lim, T. H., Liu, J., Hui, K., Jezzi, M., M., & Miles, J. R. (2014). To be or not to be immediate with clients: The use and perceived effects of immediacy in psychodynamic/interperson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24*(3), 299-315.

Hill, C.E., & Knox, S. (2002) Therapist self-disclosure. In J.C. Norcross (Ed.), *Psychotherapyrelationships that work: Therapist contributions and responsiveness to patients* (pp. 255-265).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Hill, C. E., Knox, S., & Pinto-Coelho, K. G. (2018). Therapist self-disclosure and immediacy: A qualitative meta-analysis. *Psychotherapy*, *55*(4), 445.

Hill, C. E., Sim, W., Spangler, P., Stahl, J., Sullivan, C., & Teyber, E. (2008). Therapist immediacy in brief psychotherapy: Case study II.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5*(3), 298-315.

Hill, C. E., Sullivan, C., Knox, S., & Schlosser, L. Z. (2007). Becoming psychotherapists: Experiences of novice trainees in a beginning graduate clas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4*(4), 434.

Hoffman, I. Z. (1983). The patient as interpreter of the analyst's experience.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9*(3), 389-422.

Hoffman, I. Z. (1994). Dialectical thinking and therapeutic action in the psychoanalytic process.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63*(2), 187-218.

Houshangi, H., Khanipour, H., & Farahani, M. N. (2022). Therapist attitudes and countertransference as predictors of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burnout among psychotherapist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8.

Huberman, A. M., & Miles, M. B. (1985). Assessing local causal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 D. N. Berg & K. K. Smith (Eds.), *Exploring clinical methods for social research* (pp. 351-381). Sage Publications, Inc.

Ivey, A. E., & Ivey, M. B. (1999). *International interviewing and counseling: Facilitating client development in a multicultural society (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Jackson, K. M., & Trochim, W. M. (2002). Concept mapp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analysis of open-ended survey respons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5*(4), 307-336.

Jacobs, T. J. (1986). On countertransference enact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4*(2), 289-307.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3-11.

Johnsen, J. A., Bei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67-75.

Jurist, E. L. (2008). Minds and yours: New directions for mentalization theory. In E. L. Jurist, A. Slade, & S. Bergner (Eds.), *Mind to mind: Infant research, neuroscience, and psychoanalysis*. (pp. 88-114)

Kane, M., & Trochim, W. M.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Inc.

Kasper, L. B., Hill, C. E. & Kivlighan, D. M. (2008). Therapist immediacy in brief psychotherapy: Case study I. *Psychotherapy*, *45*(3), 281-297.

Khan, M., & Khan, S. S. (2011). Data and information visualization methods, and interactive mechanisms: 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s*, *34*(1), 1-14.

Kiesler, D. J. (1988). *Therapeutic metacommunication: Therapist impact disclosure as feedback in psychotherap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Kivlighan Jr, D. M. (2008). Structural changes in counselor trainee intention use and clients' session evaluation. *Psychotherapy Research*, *18*(5), 560-572.

Klein, M. (1946).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7*, 99-110.

Knox, S., & Hill, C. E. (2003). Therapist self-disclosure: Research-based suggestions for practition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5), 529-539.

Kolden, G. G., Klein, M. H., Wang, C. C., & Austin, S. B. (2011). Congruence/genuineness. *Psychotherapy*, *48*(1), 65-71.

Kraiger, K., Ford, J. K., & Salas, E. (1993). Application of cognitive, skill-based, and affective theories of learning outcomes to new methods of training evalu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2), 311-328.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1), 1-27.

Kruskal, J. B., & Wish, M. H.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Sage.

Kuutmann, K., & Hilsenroth, M. J. (2012). Exploring in-session focus on the patient-therapist relationship: Patient characteristics, process and outcom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3), 187-202.

Lachmann, F. M. (2000). A Requiem for Countertrans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IFPS XI International Forum in New York.

Latts, M. G., & Gelso, C. J. (1995).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management with survivors of sexual assaul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2*(3), 405-415.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Li, X., Jauquet, C. A., & Kivlighan, D. M., Jr. (2016). When is therapist metacommunication followed by more client collaboration? The moderation effects of timing and contex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6), 693-703.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Little, M. (195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patient's response to i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2*, 32-40.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Mayfield, W. A., Kardash, C. M., & Kivlighan Jr, D. M. (1999). Differences in experienced and novice counselors' knowledge structures about clients: Implications for cas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504-514.

Mayotte-Blum, J., Slavin-Mulford, J., Lehmann, M., Pesale, F., Becker-Matero, N., & Hilsenroth, M. (2012). Therapeutic immediacy across long-term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n evidence-based cas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27-40.

McCarthy Veach, P. (2011). Reflections on the meaning of clinician self-reference: Are we speaking the same language? *Psychotherapy*, *48*, 349-358.

McClure, B. A., & Hodge, R. W. (1987). Measuring countertransference and attitude in therapeutic relationship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4*(3), 325-335.

McLaughlin, J. T. (1991). Clinical and theoretical aspects of enac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9*(3), 595-614.

McLinden, D. (2016). *3D concept map*. Retrieved from http://dmclinden.github.io/.

McLinden, D. (2017). And then the internet happened: Thoughts on the future of concept mapping.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0*, 293-300.

Merriam, S. B. (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강윤수 등 역). 서울: 교우사. (원전은 1998년에 출판)

Minolli, M., & Tricoli, M. L. (2004). Solving the problems of duality: the third and self-consciousness.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73*(1), 137-166.

Mitchell, S A., Black. M. J. (1996). *Freud and beyond: A history of modern psychoanalytic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Moore, B. E. & Fine, B. D. (1990).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Myers, D., & Hayes, J. A. (2006). Effects of therapist general self-disclosure and countertransference disclosure on ratings of the therapist and ses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3*(2), 173-185.

Natterson, J. M., & Friedman, R. J. (1995). *A primer of clinical intersubjectivity*. NJ: Jason Aronson.

Nelson, M. L., & Neufeldt, S. A. (1996). Building on an empirical foundation: Strategies to enhance goo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6), 609-615.

Neufeldt, S. A., Karno, M. P., & Nelson, M. L. (1996).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s of supervisee reflectiv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3-9.

Ogden T, H. On projective ident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0,* 357-373.

Orsi, R. (2017). Use of multiple cluster analysis methods to explore the validity of a community outcomes concept map.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0*, 277-283.

Overholser, J. C. (2010). Clinical expertise: A preliminary attempt to clarify its core elements.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0*(3), 131-139.

Patton, M. Q. (2015).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4th ed)*. Thousasnd Oaks, CA: Sage.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17-324.

Peabody, S. A., & Gelso, C. J. (1982).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3), 240-245.

Perls, F. (2013). 펄스의 게슈탈트 심리치료[The Gestalt Approach & Eye Witness to Therapy]. (최한나, 변상조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73년에 출판)

Petrucci, C. J., & Quinlan, K. M. (2007). Bridging the research-practice gap: Concept mapping as a mixed-methods strategy in practice-based research and evalua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4*(2), 25-42.

Racker, H. (1953). A countribution to the problem of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4*, 313-324.

Racker, H. (1957). The meanings and uses of countertransference.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26*(3), 303-357.

Rhodes, R. H., Hill, C. E., Thompson, B. J., & Elliott, R. (1994). Client retrospective recall of resolved and unresolved misunderstanding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4), 473.

Robbins, S. B., & Jolkovski, M. P. (1987).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An interactional model using awareness of feeling and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3), 276-282.

Robinson, J. M., & Trochim, W. M. (2007). An examination of community members', resear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barriers to minority participation in medical research: an application of concept mapping. *Ethnicity and Health*, *12*(5), 521-539.

Rogers(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5년에 출판)

Rosas, S. R., & Kane, M. (2012). Quality and rigor of the concept mapping methodology: a pooled study analysi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5*(2), 236-245.

Rosenberger, E. W., & Hayes, J. A. (2002). Origins, consequences, and management of countertransference: A cas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221-232.

Roughton, R. E. (1993). Useful aspects of acting out: repetition, enactment, and actualiz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2), 443-472.

Safran, J. D., & Muran, J. C. (2000). Resolving therapeutic alliance ruptures: Diversity and integr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2), 233-243.

Safran, J. D., Muran, J. C., Samstag, L. W., & Stevens, C. (2001). Repairing alliance rupture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4), 406-412.

Sandler J. On communication from patient to analyst: not everything is projective ident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4*, 1097-1107.

Sandler, J., & Rosenblatt, B. (1962). The concept of the representational world.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7*, 129-145.

Seligman, S. (2007). Mentalization and metaphor, acknowledgment and grief: Forms of transformation in the reflective space. *Psychoanalytic Dialogues*, *17*(3), 321-344.

Shafran, N., Kivlighan, D. M., Gelso, C. J., Bhatia, A., & Hill, C. E. (2017). Therapist immediacy: The association with working alliance, real relationship, session quality, and time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27*(6), 737-748.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Simpson, A. J., & Bedi, R. P. (2012). The therapeutic alliance: Clients' categorization of client-identified factors.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46*(4), 344-366.

Skovholt, T. M., & Jennings, L. (2004). *Master therapist*.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Skovholt, T. M.,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Skovholt, T. M., Rønnestad, M. H. (1995).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John Wiley & Sons.

Soellner, R., Lenartz, N. & Rudinger, G. (2017). Concept mapping as an approach for expert-guided model building: The example of health literac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0*, 245-253.

Spangler, P. T., Hill, C. E., Dunn, M. G., Hummel, A. M., Walden, T. T., Liu, J., Jackson, J. L., Ganginis Del Pino, H. V., & Salahuddin, N. M. (2014). Training undergraduate students to use immediac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2*(6), 729-757.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A developmental approach*. Jossey-Bass.

Strean, H. S. (1999). Resolving some therapeutic impasses by disclosing countertransferenc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7*(2), 123-140.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orton.

Talbot, C., Ostiguy-Pion, R., Painchaud, E., Lafrance, C., & Descôteaux, J. (2019). Detecting alliance ruptures: the effects of the therapist's experience, attachment, empath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skills. *Research in Psychotherapy: Psychopathology, Process, and Outcome*, *22*(1), 19-28.

Teyber, E. (2006).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접근[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 relational approach 4th ed.)]. (장미경, 김동

민, 김인규, 유정이, 장춘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0년에 출판)

Tower, L. E. (1956). 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2), 224-255.

Tracey, T. J. G., Lichtenberg, J. W, Goodyear, R. K, Claiborn, C. D, Wampold, B. E. (2003). Concept mapping of therapeutic common factors. *Psychotherapy Research*. *13*(4), 401-413.

Trochim(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1), 1-16.

Trochim, W. M. (1993). *The reliability of concept mapp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Dallas, TX.

Trochim, W. M., & McLinden, D. (2017). Introduction to a special issue on concept mapping.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0*, 166-175.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8*(3), 411-421.

Wampold, B. E. (2013).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Models, methods, and findings*. Routledge.

Watkins, C. E. (1985). Countertransference: Its impact on the counseling situ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3*(6), 356-359.

Watson, J. C., Greenberg, L. S., & Lietaer, G. (1998). *The experiential paradigm unfolding: Relationship and experiencing in therapy*. In L. S. Greenberg, J. C. Watson, & G. Lietaer (Eds.), Handbook of experiential psychotherapy (pp. 3-27). New York: Guilford Press.

Wheeler, C. D., & D'andrea, L. M. (2004). Teaching counseling students

to understand and use immediacy.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3*(2), 117-128.

Winnicott, D. W. (1949). Hate in the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0*, 69-74.

Yalom, I.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4th ed.)*. New York: Basic.

Yalom, I. D. (2002). The gift of therapy: Reflections on being a therapist. Piatkus.

Yeh, Y. J. & Hayes, J. A. (2011). How Does Disclosing Countertransference Affect Perceptions of the Therapist and the Session? *Psychotherapy*, *48*(4), 322-329.

Young, F. W., Takane, Y., & Lewyckyj, R. (1978). ALSCAL: A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program with several individual-differences op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 Instrumentation*, *10*(3), 451-453.

Zelazo, P. D., Qu, L., & Müller, U. (2005). Hot and cool aspects of executive function: Relations in early development. In W. Schneider, R. Schumann-Hengsteler, & B. Sodian (Eds.), *Young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Interrelationships among executive functioning, working memory, verbal ability, and theory of mind* (pp. 71-93).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부 록

<부록 1>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 자료 ····· 158
<부록 2> IRB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 159
<부록 3>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질문지 ····· 165
<부록 4> 면담 질문지 ····· 167
<부록 5> 기초진술문 추출 과정 예시 ····· 169
<부록 6> 대표진술문 적절성 평정 자료 ····· 171
<부록 7>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자료 ····· 173
<부록 8> 개념도 시각화를 위한 R 코드 ····· 177
<부록 9> 대표진술문 묶음별 기초진술문 목록 ····· 180
<부록 10> 대표진술문 목록의 3차원 좌표값 ····· 195

<부록 1>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 자료

초점질문의 적절성 평정 질문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 연구의 목적은 숙련상담사가 상담 중에 경험한 역전이를 치료적인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면담 질문지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께 면담을 위한 초점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초점질문>
선생님께서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셨을 때,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셨습니까? (상담사에 대한 이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 상담의 단계, 상담관계와 작업동맹, 회기 내 남은 시간 등의 상황적 맥락 및 기타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같이 제공해드린 면담 질문지를 참고하셔서, 본 초점질문의 적절성을 아래의 항목에 따라 5점 척도로 해당하는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적절성 기준	매우 부적절	다소 부적절	보통	다소 적절	매우 적절
1) 질문이 숙련상담사의 역전이 개방 의사결정 요인을 상세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1	2	3	4	5
2) 질문이 숙련상담사의 의견을 제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가?	1	2	3	4	5
3)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1	2	3	4	5

2.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 초점질문에서 수정·보완할 점이나 전체적인 면담 질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 주십시오.

<부록 2> IRB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숙련상담사의 역전이에 대한 즉시성 개입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 책임자명 : 김현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숙련상담사의 역전이에 대한 즉시성 개입의 결정요인 연구입니다. 귀하는 주당 평균 3~5사례의 상담 실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담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역전이에 대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숙련상담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책임자 김현령(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숙련상담사가 상담 중에 경험한 역전이를 치료적인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30명 이내로, 면담 참여자(진술문 적절성 평정,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참여 포함) 25명 이내,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진술문 적절성 평정 참여자 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주당 평균 3~5사례의 상담 실무를 시작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상담경력 10년 이상이고 역전이에 대한 즉시성 개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숙련상담사입니다.
귀하는 면담 참여자로서 연구참여 요청을 받으셨고, 만약 귀하가 참여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구 참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일대일 면담 (필수): 귀하는 연구책임자 김현령과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일대일 면담에 1회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2분 정도 소요되는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질문지에 응답하신 후 면담이 진행되며, 면담은 귀하가 상담 중에 역전이 반응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역전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면담 후 추가 질문이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유선 면담 또는 대면/비대면 면담을 1-2회 추가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면담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귀하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1) 대면 면담: 귀하가 편안하게 면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부 방역 지침(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 및 소독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코로나-19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면담 일정, 장소나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1-2) 비대면 면담: zoom 등의 원격 화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지는 귀하의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2) 진술문 목록의 적절성 평정 (선택): 연구팀이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에서 즉시성 개입의 결정요인에 대한 진술문들을 추출하여 진술문 목록을 제작한 후 비대면으로 각 진술문에 대한 적절성 평정을 받습니다. 동의서 7번에서 적절성 평정 참여 동의 의사를 밝혀주신 참여자들 중 일부 참여자께 평정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혹시 귀하께서 사전 동의하셨더라도 요청 받으셨을 때 상황이 어려우실 경우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적절성 평정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작업파일에서 각 진술문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고 각 진술문의 의미전달의 명확성, 진술문 사이의 의미중복 및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삭제 · 통합의견 등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3)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필수): 귀하께서는 최종 진술문 목록을 가지고 유사한 진술문끼리 묶음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각각의 진술문들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 작업 역시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귀하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1) 대면 작업: 귀하가 가장 편안하게 면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사성 분류를 위한 실물 카드 및 질문지가 제공될 것입니다.

3-2) 비대면 작업: 유사성 분류를 위한 작업시트, 질문지 파일 등을 귀하의 이메일로 보내드린 후 이메일이나 유선 상으로 상세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이후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로, 모든 일대일 면담, 진술문 적절성 평정,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등의 절차는 이 기간 내에 진행될 것입니다. 일대일 면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진술문 목록의 적절성 평정,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은 각각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가 연구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시는 경우 1) 기 수집된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며, 2) 기 수집된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폐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되고, 폐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으신 경우 자료를 보관하되 연구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면담에서 귀하의 역전이 경험과 즉시성 개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회상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 면담 도중이나 면담 후에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그만두실 수 있으므로, 만일 연구 참여를 그만두고 싶으시면 연구자에게 편하게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적인 경험을 연구자에게 진술하실 때 그 내용의 범위나 깊이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편

하실 경우 언제든 의사를 표현해주시면 존중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역전이 경험과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입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역전이 활용을 위한 상담사 교육과 역전이 및 즉시성 개입 관련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현령(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식별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현재 소속기관 유형, 최종 학력, 상담 경력, 소지한 자격증 종류, 선호하는 상담접근 및 이론적 지향으로, 이 정보들은 연구에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 통계를 기재하고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2) 개인식별정보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면담 녹음파일입니다. 이 중 성명, 연락처, 이메일, 면담 녹음파일은 연락과 연구안내 및 연구절차 진행을 위해, 계좌번호는 비대면 참여 시 사례비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이상의 개인정보는 연구책임자(김현령)와 지도교수(김창대)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 및 폐기될 것입니다.

1) 비식별 개인정보는 연구결과 정리양식에 기재하여 연구자료로서 보관될 것입니다.
2) 개인식별정보 중 성명, 연락처, 이메일은 연구종료 직후 폐기되고, 계좌번호는 사례비 지급이 모두 완료된 직후 폐기될 것입니다. 면담 녹음파일은 연구책임자(김현령) 소유의 암호화된 보이스레코더를 사용하여 수집하여, 익명화된 면담 전사기록지는 연구자료로 보관되고 면담 녹음파일은 연구종료 직후 폐기될 것입니다.

3) 동의서는 연구책임자(김현령)의 자택 내 잠금장치가 달린 캐비닛에 보관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 후 폐기될 것입니다.
4) 모든 연구자료는 연구책임자(김현령)의 암호가 걸려있는 개인 노트북에만 보관하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6조에 따라 학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최소 5년 이상,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각 절차(일대일 면담, 필요시의 추가 면담, 진술문 적절성 평정,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마다 회당 5만원의 사례비를 드릴 것입니다. 사례비는 각 절차가 끝난 직후 대면 참여시 현금으로, 비대면 참여시 계좌번호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현령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숙련상담사의 역전이에 대한 즉시성 개입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 책임자명 : 김현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010-0000-0000)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본 연구 참여의 필수 절차(일대일 면담,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외에 선택 절차인 '진술문 적절성 평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김현령)의 후속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면담내용에 대한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부록 3>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질문지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연구의 목적은 숙련상담사가 상담 중에 경험한 역전이를 치료적인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을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참여는 효과적인 역전이 활용을 위한 상담사 교육 및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관련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김현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010-0000-0000)
지도교수: 김창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_____세

3. 현재 소속기관 유형 (복수응답 가능)
① 대학상담센터 ② 청소년 상담기관 ③ 사설 상담센터 ④ 기업 상담센터
⑤ 병원 ⑥ 정신과 부설 상담센터 ⑦ 대학(강사 및 교수) ⑧ 소속없음
⑨ 기타_____

4. 최종 학력: ① 석사 졸업 ② 박사 과정 ③ 박사 수료 ④ 박사 졸업

5. 상담 경력 (주당 평균 3~5사례의 상담 실무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의 상담 경력):
※ 대략적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총 _____년 _____개월
○ 약 _____사례, _____회기

6. 소지한 자격증 종류 (복수응답 가능)
① 전문상담사 1급 ② 전문상담사 2급 ③ 상담심리사 1급 ④ 상담심리사 2급
⑤ 임상심리전문가 ⑥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⑦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⑧ 청소년상담사 1급 ⑨ 청소년상담사 2급 ⑩ 기타_____

7. 선호하는 상담접근 및 이론적 지향 (복수응답 가능)
① 정신역동 ② 인지행동 ③ 인간중심 ④ 실존주의 ⑤ 게슈탈트 ⑥ 체계이론
⑦ 기타_____

8. 선생님의 상담 접근과 평소 선생님께서 하시는 상담을 떠올리시면서 아래 질문에 7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 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다소 아니다	보통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신역동적 접근(정신분석,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애착이론 등) 및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역전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다.	1	2	3	4	5	6	7
2)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를 잘 자각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상담 중에 경험하는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하여 다루는 즉시성 개입을 익숙하고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1	2	3	4	5	6	7

<부록 4>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

○ 본 연구에서 <역전이>란 상담 중에 내담자의 특정한 관계방식과 행동으로 인해 자극을 받으면서 상담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적·외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또한 <역전이 상황에서 즉시성 개입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여기에서의 상담관계 및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사의 내적·외적 경험을 치료적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선생님께서 최근 상담 중에 경험하셨거나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 경험을 떠올려 주십시오. 당시 선생님께서 역전이 반응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역전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즉시성 개입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셨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선생님께서 생생하고 대표적인 역전이 개방 경험이라고 여기시는 한 가지 사례의 장면으로 면담이 시작되지만 특정한 회기 장면에 국한하지 않고 내담자와의 여러 회기에 걸친 경험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사례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사례에서의 경험을 포괄하여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 아래는 대략적인 면담 흐름에 참고하실 수 있는 질문 개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담을 하실 때는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편안하고 자유롭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연구자에게 진술하실 때 그 내용의 범위나 깊이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편하실 경우 언제든 의사를 표현해주시면 존중할 것입니다.

○ 선생님의 면담 내용은 녹음된 뒤 전사기록지의 형태로 정리되고, 수집된 자료는 비밀 보장을 위해 익명화하여 작성되고 분석됩니다.

<길라잡이 질문>

1. 선생님께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사의 역전이를 분명하게 인식했던 사례나 특정 회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2. 당시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역전이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역전이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상담사 또는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3. 당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역전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자각하고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역전이 경험이 무엇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역전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 내담자의 호소문제 및 사례개념화와의 관련성, 상담사 자신의 미해결된 주제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 선생님께서 인식하신 역전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개방하셨습니까?

<초점질문>

선생님께서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셨을 때,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셨습니까?

(상담사에 대한 이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 상담의 단계, 상담관계와 작업동맹, 회기 내 남은 시간 등의 상황적 맥락 및 기타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록 5> 기초진술문 추출 과정 예시

화자	내용	기초진술문 초안
참여자	**내담자가 불러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내담자와 상담사의 상호작용 안에서 불러 일으켜지는, 역동 안에서 일으켜지는 것은 최대한 치료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불편감이 감지되면 이제 그때 딱 재는거죠. 이 세 개 중에 어떤 사안이냐.	9-120.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9-121. 이 역전이는 내담자와 상담사의 상호작용 역동 안에서 불러 일으켜진 것이므로 치료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연구자	아 네. 내 거냐 내담자 거냐 아니면 둘 다가 얽혀있는 거냐.	
참여자	네	
연구자	그럼 그 중에서 내담자 거이거나 둘 다 일 때는 하는 거고	
참여자	그렇죠 내담자 꺼가 거기에 꼭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자	그리고 그 내담자 거라 함은 이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까요?	
참여자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내지는 **내담자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호소는 안했을 수도 있어요.**	9-127.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9-128.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내담자가 스스로는 호소하지 않았어도 바깥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다.
연구자	아, 호소는 안 했을 수도 있고. 호소는 아니었어도.	
참여자	응. 왜냐하면 통찰을 못하니까. **인식을 못하지만 상담사가 생각하기에 이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라**	9-130. 내 역전이와 관련된 내담자의 주제를 내담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일 수 있죠. 그러면 하죠. **라포가 형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다루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든다. 9-131. 내담자와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
연구자	네	
참여자	이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담사의 준비도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 순수하게 내담자로부터 비롯된 어려움이면 상담사 준비도가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할 수는 있지만.. 내담자 이슈 플러스 상담사 이슈일 때는 **상담사가 그 내담자와의 관계 역전이에서 건드려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치료적 경험을 이미 한 사람이어야 그것을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지..** 아니면은 이제 반응적 개입을,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치료적 개입이 아니라 그냥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9-133.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역전이로 건드려진 나의 부분에 대해 내가 이미 치료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연구자	반응을 한다는 건	
참여자	화를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회피를 한다거나.. 치료적 개입과는 다른 비효과적인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연구자	네네	
참여자	그때 내가 이걸 다루고 싶다.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이거를 다뤄야 할까 말까 할 때도 자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감정에 함몰되어서 반응을 하게 될 거라면은 다루지 않는 게 더 나으니까.**	9-137.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룰 때 내 감정에 함몰되어서 반응하게 될 것 같다. (역방향 진술문)

<부록 6> 대표진술문 적절성 평정 자료

대표진술문 적절성 평정 안내문 및 작업시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의 '진술문 적절성 평정자'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숙련상담사가 상담 중에 경험한 역전이를 치료적인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으로,

1) 상담경력이 10년 이상인 상담사이고
2) 정신역동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담사(3가지 문항을 통해 참여자 선별)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13명의 면담 전사자료에서 초점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기초진술문들을 추출하였고, 많은 양의 기초진술문들을 비슷한 진술문끼리 묶는 작업을 통해 대표진술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표진술문 목록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정을 선생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트 탭)

○ 본 연구의 '역전이'의 정의: 상담 중에 내담자의 특정한 관계방식과 행동으로 인해 자극을 받으면서 상담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적/외적 반응
○ 본 연구의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의 정의: 지금-여기에서의 상담관계 및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사의 내적/외적 경험을 치료적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는 것

○ 면담 초점질문: 선생님께서 자신의 역전이를 인식하셨을 때, 역전이를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셨습니까?
(상담사에 대한 이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 상담의 단계, 상담관계와 작업동맹, 회기 내 남은 시간 등의 상황적 맥락 및 기타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각 진술문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적절합니까? 5점 척도로 평정해 주십시오.
   1 (매우 부적절) — 5 (매우 적절)

2.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술문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기재해 주세요.
   1) 각 진술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가?
   2) 여러 진술문들의 의미가 중복되어 통합이 필요한가? (예: 3과 13을 ~~라는 진술문으로 합치면 좋겠음)
   3) 한 진술문에 2개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분리가 필요한가?

번호	대표진술문 목록	1. 진술문 적절성 평정	2. 진술문 수정 의견
1	내담자가 인지적으로 유연하므로 내 피드백이 이해가 되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겠다.		
2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느낌이나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3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감정에 압도되어 액팅아웃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4	내담자가 내 역전이 개방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피드백을 자기이해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바로 수긍해서 삼켜버리거나 자책으로 가지 않을 힘이 있다.		
	(이하 생략)		

3. 기타 의견: 진술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 등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부록 7>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자료

진술문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안내문 및 작업 시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 연구의 목적은 숙련상담사가 상담 중에 경험한 역전이를 치료적인 목적에서 내담자에게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을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담을 통해 숙련상담사가 고려하는 내용들을 수집하였고, 총 70개의 진술문 목록이 도출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실 작업은 진술문 목록의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입니다. 전체적인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문 유사성 분류 작업 (2~6쪽)
2. 진술문 중요도 평정 작업 (7~10쪽)

예상 소요시간은 약 1시간 내외입니다.

작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주시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김현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010-0000-0000)
지도교수: 김창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1. 진술문 유사성 분류 (안내문)

※ 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 작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70개의 진술문 카드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카드끼리 자유롭게 분류해 주십시오.

2) 분류한 묶음, 즉 범주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진술문 카드들을 전부 단일한 묶음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즉, 70개 카드를 한 묶음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한 묶음에는 두 개 이상의 진술문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한 개의 진술문만으로 한 묶음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각 진술문은 한 개의 묶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한 진술문이 두 개의 묶음에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묶음으로 넣어주세요.)

3) 분류를 마치신 후에는 한 묶음씩 해당 묶음의 진술문 카드들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해당 묶음으로 분류하신 이유를 고려하셔서 범주 제목을 붙여주시고, 다음 쪽의 기록 시트에 범주 제목과 진술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4) 마지막으로 모든 묶음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1. 진술문 유사성 분류 (기록 시트)

※ 70개의 진술문 카드에 대한 유사성 분류 결과를 기록해 주십시오.
첫 번째 칸의 예시와 같이, 한 칸에 한 묶음씩 범주 제목과 진술문 번호들을 적어 주십시오. 칸은 넉넉하게 준비해둔 것이니 모든 칸을 채우실 필요가 없으며, 혹시 칸이 부족하신 경우 직접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록이 끝난 후, 모든 묶음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는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범주 제목 (또는 주요 주제)	*상담사의 진솔성*
진술문 번호	1, 9, 20, 48, 53

<진술문 유사성 분류 결과>

묶음 1	범주 제목 (또는 주요 주제)	
	진술문 번호	

묶음 2	범주 제목 (또는 주요 주제)	
	진술문 번호	

묶음 3	범주 제목 (또는 주요 주제)	
	진술문 번호	

(이하 생략)

2. 진술문 중요도 평정

※ 각각의 진술문이 숙련상담사가 경험한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하기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 평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체 목록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진술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덜 중요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먼저 진술문 목록을 빠르게 한 번 훑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점부터 7점까지 가능한 모든 점수를 사용하여 평정해주십시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4 (보통) ------- 7 (매우 중요하다)

진술문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1.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	2	3	4	5	6	7
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역동과 나의 역동이 상호작용 안에서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1	2	3	4	5	6	7
3. 나에게 이런 역전이를 불러일으키는 내담자의 행동 이면의 욕구와 마음이 이해가 된다.	1	2	3	4	5	6	7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 반응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1	2	3	4	5	6	7
5. 내담자가 접촉하기 어려워하는 감정과 욕구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역전이를 개방해야겠다.	1	2	3	4	5	6	7
6. 내가 역전이를 개방한 이후에 내담자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1	2	3	4	5	6	7
(이하 생략)							

<부록 8> 개념도 시각화를 위한 R 코드

dataset.csv 데이터 구조

name.3d	name.2d	dimension.1	dimension.2	dimension.3	cluster
Statement 1	1	1.7126	0.6369	-0.4076	Cluster 6
Statement 2	2	-0.6349	-1.4222	-0.6722	Cluster 4
Statement 3	3	-0.9919	-0.0227	-1.4013	Cluster 1

```
# 1. 3D 시각화
# 1.1. 패키지 불러오기
library(tidyverse)
library(plotly)
library(htmlwidgets)
library(RColorBrewer)

# 1.2. 데이터셋 불러오기 및 군집 지정
data <- read.csv("./data/dataset.csv")
data$cluster <- as.factor(data$cluster)
levels(data$cluster) <- c("군집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 "군집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 "군집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 "군집4. 개입 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 "군집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 "군집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 "군집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

# 1.3. 3D 렌더링
p3 <- plot_ly(data,
              x = ~dimension.1, y = ~dimension.2, z = ~dimension.3,
              mode = text, text = ~name.3d,
              color = ~cluster, colors = "Dark2") %>%
  add_markers(opacity = 0.5) %>%
  layout(scene = list(xaxis = list(title = '1차원 (고려대상 축)'), yaxis = list(title = '2차원 (준비도 판단 축)'), zaxis = list(title = '3차원 (개입목적 축)')))
p3
```

```
# 1.4. 렌더링된 위젯을 html 파일로 저장하기
saveWidget(p3, file = "./p3.html")

# 2. 2차원 시각화 (1×2차원, 1×3차원, 2×3차원 각각)
# 2.1. 패키지 불러오기
library(ggplot2)
library(ggrepel)
library(showtext)
font_add_google('Noto Sans KR', 'notosanskr')
showtext_auto()

# 2.2. 데이터셋 불러오기 및 군집 지정
data <- read.csv("./data/dataset.csv")
data$cluster <- gsub("Cluster 1","군집1. 상담사가 역전이 홀딩 및 수용 가능함",
                     data$cluster)
data$cluster <- gsub("Cluster 2","군집2. 진솔한 상담관계를 추구함", data$cluster)
data$cluster <- gsub("Cluster 3","군집3. 개입이 유용하다고 판단함", data$cluster)
data$cluster <- gsub("Cluster 4","군집4. 개입목적 및 방향성이 수립됨",
                     data$cluster)
data$cluster <- gsub("Cluster 5","군집5. 역전이를 통해 내담자가 이해됨",
                     data$cluster)
data$cluster <- gsub("Cluster 6","군집6. 내담자가 정서적 홀딩 및 수용 가능함",
                     data$cluster)
data$cluster <- gsub("Cluster 7","군집7.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신뢰함", data$cluster)

# 2.3. 2차원 도표 표현 (1×2차원)
theme_set(theme_linedraw())
p12 <- data %>%
  ggplot(aes(dimension.1, dimension.2, col = cluster, label = name.2d),
         repel = TRUE) +
  geom_point(size = 5, alpha = 0.6) +
  geom_text_repel(size = 3.5, max.overlaps = Inf) +
  scale_color_brewer(name = "군집", palette = "Dark2") +
  scale_x_continuous(limits = c(-2, 2)) +
  labs(x = "1차원 (고려대상 축)", y = "2차원 (준비도판단 축)") +
```

```
  theme(axis.title = element_text(size = 10.5, color = "black" , face = "bold"))
p12

# 2.4. 2차원 도표 표현 (1×3차원)
p13 <- data %>%
  ggplot(aes(dimension.1, dimension.3, col = cluster, label = name.2d),
         repel = TRUE) +
  geom_point(size = 5, alpha = 0.6) +
  geom_text_repel(size = 3.5, max.overlaps = Inf) +
  scale_color_brewer(name = "군집", palette = "Dark2") +
  scale_x_continuous(limits = c(-2, 2)) +
  labs(x = "1차원 (고려대상 축)", y = "3차원 (개입목적 축)") +
  theme(axis.title = element_text(size = 10.5, color = "black", face = "bold"))
p13

# 2.5. 2차원 도표 표현 (2×3차원)
p23 <- data %>%
  ggplot(aes(dimension.2, dimension.2, col = cluster, label = name.2d),
         repel = TRUE) +
  geom_point(size = 5, alpha = 0.6) +
  geom_text_repel(size = 3.5, max.overlaps = Inf) +
  scale_color_brewer(name = "군집", palette = "Dark2") +
  scale_x_continuous(limits = c(-2, 2)) +
  labs(x = "2차원 (준비도판단 축)", y = "3차원 (개입목적 축)") +
  theme(axis.title = element_text(size = 10.5, color = "black", face = "bold"))
p23
```

※ 본 연구의 3D 개념도 도표는 https://bit.ly/KimHyunryung2022 링크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다운로드 후, 파일을 열면 확인할 수 있음.

<부록 9> 대표진술문 묶음별 기초진술문 목록

대표문 1	내담자는 나와의 작업을 통해 더 깊은 자기이해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인)
7-199	상담사가 자신의 상담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내담자가 믿고 있다.
7-200	상담사가 자신을 치료해줄 것이 확실하다고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7-210	내담자가 여러 회기 경험들을 통해 상담사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다는 신뢰가 있는 상태이다.
10-285	내담자가 상담에서 하는 작업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경험이 충분히 쌓였다.
대표문 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역동과 나의 역동이 상호작용 안에서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3인)
9-121	이 역전이는 내담자와 상담사의 상호작용 역동 안에서 불러일으켜진 것이므로 치료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11-247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과거의 역동, 현재의 역동이 나의 역동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13-62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된 자료들이 쌓여있어서 이 역전이가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표문 3	나에게 이런 역전이를 불러일으키는 내담자의 행동 이면의 욕구와 마음이 이해가 된다. (6인)
1-223	내담자에게 어떠한 욕구가 좌절되었기에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4-50	내담자가 찡찡거린다고 느끼는 내 역전이가 내담자 스스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게 이해가 된다.
4-63	내담자가 찡찡거린다고 느끼는 내 역전이가 내담자 스스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게 이해가 된다.
5-138	나에게 서운함과 원망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내담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면의 욕구와 외로움까지 이해가 된다.
6-187	내가 드는 이 느낌이 내담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의미를 안다.
8-159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이 내담자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다.
8-31	내담자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는 상태이다.
10-109	나를 기분나쁘게 했던 내담자의 행동 이면의 마음이 이해가 되므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10-178	내가 느끼는 역전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쌓였다.
10-252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탐색되었다.
대표문 4	내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면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대안 반응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8인)
1-87	즉시성 개입이 먹힐 것 같다.
1-100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상담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패턴의 발현인 것 같다고 했을 때 내담자가 '어 그런가?' 하면서 함께 그 패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믿음이 있다.
1-127	역전이를 개방하면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다.
1-224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즉시성 개입을 하면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1-251	이 역전이를 개방하면 상담 효과를 내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1-258	나의 역전이를 개방하면 내담자가 본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1-259	나의 역전이를 개방하면 내담자의 상담 동기가 높아지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
2-230-2	오늘 역전이 개방을 하면 효과적으로 잘 될 성공확률이 높다고 가늠이 된다.
3-102	내 역전이를 활용하여 내담자와 다뤄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3-162	내담자가 자기를 꽁꽁 싸는 보호패턴을 넘어서서 내담자의 마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다.
3-169	내담자와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 즉시성 개입이 도움이 되겠다.
5-5	나의 역전이 개방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5-176	내가 내담자에게 가진 가설에 대해 100% 확신이 없더라도 역전이 개방이 개방을 하면 내담자의 핵심문제로 가는 길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5-177	내담자에 대한 내 가설에 100%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설이 벗어나더라도 어찌저찌 풀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5-178	내담자에 대한 내 가설에 100%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설이 벗어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5-309	내담자와 비슷한 주제를 겪고 있지만 내담자처럼 자책에 빠져있지는 않은 한발 나아간 상태이므로, 나의 개방이 내담자가 자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다.
6-407	즉시성 개입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6-408	개입을 통해 내담자에게 교정적 관계경험이 되어 내담자의 대인관계 규칙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10-270	나의 역전이를 다뤄서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11-257	이 개입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다.
11-263	개입을 해서 내담자가 자기를 알아차리게 한 후 대안적인 반응에 대한 개입으로까지 연결이 될 것 같다.
11-354	내 역전이를 점검해보니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개방해서 다루는 개입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든다.
13-173	내가 내담자에게 개입했을 때 내 말이 그냥 날아가버리는 말이 되지 않고 잘 먹힐 것 같다.
13-177	경험이 많이 쌓여서 이제는 내가 너무 헛발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뤄지긴 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
13-192	오늘 회기의 작업을 통해 내담자가 적어도 우리 관계에서 오가는 것 중의 한 부분은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표문 5	내담자가 접촉하기 어려워하는 감정과 욕구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역전이를 개방해야겠다. (4인)
1-164	대화가 욕구 수준으로 내려오려면 내 것부터 툭 까고 진솔해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1-176	나의 역전이를 툭 까놓는 것이 머리싸움이 아니라 욕구와 감정의 대화로 가는 방법이다.
3-13	내담자가 불안한 감정에 접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작으로 실제 내가 드는 느낌들을 이야기해야겠다.
3-19	내담자가 접촉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드는 느낌을 개방해야겠다.
6-79	자기 이야기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끌어내주기 위해 내가 즉시성을 사용하면 좋겠다.
10-132	내담자가 나를 부려먹고 싶은 마음 밑에 있는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화두에 올려야겠다.
10-138	나를 부려먹고 싶었던 내담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
대표문 6	내가 역전이를 개방한 이후에 내담자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2인)
2-91	역전이를 개방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흥분이 더 고조되거나 다시 되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2-97	내가 역전이를 개방한 후에 내담자가 나에게 할 반응이 무엇이든지간에 내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2-134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나에 대해 내담자가 어떤 반응이든 보이면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하고 조율하면서 다뤄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
4-80	역전이를 개방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낼 수 있겠다.
대표문 7	이 역전이가 지금 충분히 차올라서 나에게 생생하게 와 닿는 상태이다. (2인)
8-126	내담자에게 오픈했을 때 빈말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8-132	이 역전이 감정이 이렇게 많이 드는 만큼 내담자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8-145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과 신체감각이 충분히 차서 스스로 생생하게 와 닿는 상태이다.
11-188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역전이지만 오늘 특히 그 느낌이 나에게 생생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므로 다루는 게 좋겠다.
대표문 8	내담자에게 이런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3인)
5-73	내담자에게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나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자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9-159	나도 사람이니까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수용이 된다.
9-179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적 경험을 하는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9-185	내담자에 대한 역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안아주고 있다.

13-154	내가 회기 중에 느끼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표문 9	내 역전이를 유발한 내담자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더 깊게 공감적으로 와닿는다. (3인)
1-197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가 더 분명해졌다.
5-65	역전이 감정을 유발한 내담자의 역동을 공감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
8-152	내담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깊이 이해가 된다.
8-155	내담자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해석을 만들어가면서 가슴에 와 닿게 채워졌다.
8-168	내담자에 대해 여전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내담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8-172	역전이를 소화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가 충분히 느껴진다.
8-175	역전이를 소화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가 훨씬 생동감이 있게 느껴진다.
8-176	역전이를 소화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대표문 10	나도 약점과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 (2인)
2-82	내가 코너에 몰리면 화가 난다는 것을 이상하거나 고쳐야할 점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2-83	코너에 몰리면 화가 나는 역전이를 경험하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
2-101	내담자가 지적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2-115	내가 코너에 몰리고 오해받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이라는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2-117	나도 약점이나 흠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슬픈 사람이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개방할 수 있을만큼 자기 수용이 되어 있다.
2-123	나의 약점과 흠으로 인한 한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미안해할 수 있다.
2-133	나라는 사람에 대해 바꾸거나 포장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다.
2-137	여기까지가 나인데 내담자가 괜찮아하지 않아도 이게 나니까 할 수 없다.
7-73	상담사인 나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에 마음이 편안하므로 자유롭다.
7-74	나를 이상화된 상담사로 포장해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자유롭다.
대표문 11	역전이를 느끼면서도 내가 아닌 내담자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5인)
1-214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담자의 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3-144	초점이 내가 아닌 내담자에게 가있는 상태이다.
4-109	내담자에게 몰입하여 내담자 초점을 잘 유지하고 있다.
5-295	역전이 감정이 강렬할 경우라도, 나의 요소와 내담자의 요소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으니 개입해도 괜찮겠다.
10-227	내가 내담자를 정말 이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다.
10-299	이 역전이를 오픈해서 다룰 때 내담자 초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문 12	내담자가 밖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간적이고 진솔한 관계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2인)
6-385	내담자와의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이다.
13-8	진솔한 관계경험이 매우 없는 내담자여서 상담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내담자 앞에서 주고 싶다.
13-10	전문가적인 상담을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내담자에게 진솔하고 일치성있게 반응해주고 싶다.
13-11	전문가적인 상담을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진솔하고 일치성있게 반응해주는 것이 이 내담자에게 필요하다.
13-13	내담자 주변에 내담자에게 진솔하게 반응해줄 사람이 없고 받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진솔한 관계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다.
13-19	상담관계에서 진솔한 대상이 되어주는 경험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13-20	진솔한 관계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 상담에서 해야 할 일이다.
대표문 13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두 사람의 역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2인)
4-339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순간에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5-105	역전이를 느끼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할 문제가 아니라,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역동의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5-91	내가 느끼는 역전이는 내담자의 이슈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 이슈와도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표문 14	내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2인)
3-130	내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6-433	내가 감정에 압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내담자에게 해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대표문 15	지금은 내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3인)
1-152	상담사의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1-162	역전이를 진솔하게 꺼내지 않으면 이 회기는 망한다.
1-178	지금은 역전이 개방을 하는 것 밖에는 옵션이 없다.
2-146	이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는 내가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 밖에는 할 게 없다.
2-166-2	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이 유일한 상담전략이다.
6-11	역전이를 오픈해서 즉시성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대표문 16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지금 회기중에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진다. (2인)
4-415	내가 오픈할 내용이 내담자가 방금 전에 스스로 뱉었던 내용과 계속 연결되는 흐름에 있다.
8-56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세션 중에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진다.
대표문 17	내담자가 내 역전이 개방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피드백을 자기이해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7인)
3-67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하지 않으므로 즉시성 개입을 해도 괜찮겠다.
4-143	자아 강도가 괜찮은 내담자이다.
4-147	내담자가 직면적이고 도전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아가 건강한 상태이다.
4-378	내담자가 나의 역전이 개방에 좀 아프고 민망하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자기이해로 작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5-212	아무리 나약하고 병리적인 내담자라 할지라도 그 내담자 안에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8-34	내담자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역전이를 표현해도 괜찮겠다.
10-216	상담사의 역전이 개방에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것으로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내담자이다.
10-242	내담자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를 계속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10-281	상담사의 작업에 순간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감정을 돌아보고 자기 이해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내담자이다.
11-74	내담자가 자아강도가 있다.
12-57	내담자는 내적인 강도가 있어서 즉시성 개입을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12-258	내담자가 나의 역전이 개방을 견뎌낼 힘이 있다.
대표문 18	지금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속마음에 접촉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다. (2인)
2-237	오늘 내담자의 상태가 좋아서 내 이야기에 습관적인 자기비난이나 액팅아웃으로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2-241	내담자가 사실만 이야기하거나 비난을 많이 하지 않고, 감정에 뿌리를 둔 이야기를 하고 있다.
2-247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과 기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등 자기말, 속마음에 붙어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를 자료로 삼아 본인을 성찰할 수 있을 것 같다.
2-254	내담자가 지금 정직하고 진실하게 상담사를 만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나도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겠다.
10-210	내담자도 자신의 어떤 행동이 상담사의 역전이를 유발했다는 것에 대해 인지가 되는 상태이다.
대표문 19	내담자가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진정이 되었으므로 내 말이 귀에 들릴 것 같다. (2인)
11-128	내담자가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으므로 즉시성 작업을 할 만하다.
11-163	내담자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즉시성 개입을 버틸 수 있겠다.
13-91	내담자가 위기에서 진정이 되어 내 이야기를 들을 정신이 좀 생긴 상태이다.
13-116	내담자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서 나의 역전이 경험을 전달했을 때 내담자 귀에 들릴 것 같다.
대표문 20	내담자가 자신의 관계패턴을 확인한 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바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실행력이 있다. (2인)

11-211	즉시성 개입을 통해 역동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면 내담자가 그 통찰을 활용할 것 같다.
11-371	내담자가 개입을 다 소화하지 못해도 나중에라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12-212	첫회기 상담이더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알아들을 만한 힘이 내담자에게 있으므로 역전이를 다뤄도 괜찮겠다.
12-218	자신의 관계패턴을 확인하고 새로운 변화가 도움이 되겠다고 느끼면 바로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내담자이다.
대표문 21	지금 역전이를 사용하여 개입하려는 것이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이 확실하다. (3인)
4-44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반응은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4-96	역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 있으므로 개입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11-254	이 개입이 최소한 내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
11-256	역전이를 오픈하는 것이 내 역동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12-306	내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역전이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12-308	내담자에게 나를 드러내서 확인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역전이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대표문 22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연결이 된다. (5인)
1-46	지금 이 상황은 내담자가 전에 보였던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연관이 있다.
1-70	내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3-35	지금 내 느낌이 내담자의 호소문제나 핵심이슈와 연결되어 있다.
3-46	나에게 드는 느낌이 내담자의 핵심 호소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다.
5-252-1	나에게만 강렬히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담자의 주호소문제와 연결이 된다.
5-67-1	내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연결이 된다.
6-189	내 역전이가 내담자의 주호소와 관련이 있다.
6-198	내가 인식한 역전이가 내담자가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주호소문제와 연결된다.
9-127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표문 23	나의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주기 어려운 피드백을 내가 대신 줄 수 있을 것이다. (2인)
2-190	내담자의 주변인들이 내담자에게 이야기해주기 곤란한 피드백을 나의 경험을 통해 직접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다.
2-197	내담자 자신도 모르고 다른사람들도 모르거나 또는 내담자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말해주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그들을 대신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겠다.
7-28	내담자에게 불편감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멀어지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상담사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표문 24	내담자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패턴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되어줘야겠다. (3인)
2-20	내담자에게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개별화되어가는 과정이 거절당하는 경험이 아님을 내담자가 깨닫기를 바란다.
7-46-2	밖에서도 나와 비슷한 사람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데 내 역전이 개방이 도움이 되겠다.
12-148	내담자가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통해 익숙한 패턴대로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12-164	내담자의 새로운 행동 패턴으로 넘어가는 전환 작업을 위해 나라는 도구를 쓸 수 있다.
12-166	내담자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위험하게 느껴질 새로운 행동패턴을 나와의 안전한 대상에서 먼저 해볼 수 있게 돕기 위해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다.
12-168	내담자의 중요한 패턴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역전이로 경험하는 것을 사용하여 내가 타겟팅이 되어줘야겠다.
대표문 25	내담자가 나에게 가졌던 기대와 좌절 등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겠다. (2인)
1-38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게 좌절되어 실망감과 서운함 등을 느끼고 있음을 다루는 대화로 가야한다.
1-39	내담자 입에서 상담사에게 가졌던 기대와 바람, 그 과절로 인한 실망과 서운함이 나올 수 있도록 상담의 물꼬를 틀어서 데려가야겠다.
10-234	역전이 개방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묵히지 않고 꺼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대표문 26	내 역전이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 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 (4인)
5-44	상담사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내담자의 반응에 깜짝 놀라지 않지 않고 의연한 상태이다.
6-293	내가 내 역전이 감정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다.
8-138	역전이 감정의 게이지가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감정이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9-139	내가 이 역전이 주제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안정감이 있다.
9-143	역전이를 일으킨 나의 주제에 대해 정서 조절이 가능한 상태이다.
대표문 27	이 역전이가 내 안의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것인지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3인)
1-213	내가 자주 걸려넘어지는 무능감 주제를 또 건드리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자각하고 있으므로 홀딩이 된다.
5-121	내 안에 건드려 진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으므로 역전이를 사용해도 괜찮겠다.
5-122	이 역전이가 내 안의 무엇이 자극되고 건드려지는 것인지 감정의 정체를 알고 있는 상태이다.
9-178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적 경험을 하는 나를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표문 28	이 역전이는 나를 힘들게 했었던 주제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통찰하고 소화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다. (3인)
5-125	이 역전이 감정은 너무 힘들고 미치게 아프지는 않은 수준 정도로 해결되어 있는 감정이다.
5-248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역전이 감정은 이미 소화가 되고 성찰이 된 감정이다.
5-302	역전이와 관련된 나의 모습에 대해 자책하지 않고 수용하는 상태이므로 편안하게 개방이 가능하다.
5-52	이 역전이가 올라오게 된 나의 핵심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 상태이므로 역전이를 활용해서 다룰 수 있다.
9-111	지금 느끼는 역전이가 내 삶에서 한때 힘들었던 주제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주제가 힘들어서 역전이를 오픈하려는 마음은 아니다.
9-133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역전이로 건드려진 나의 부분에 대해 내가 이미 치료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9-144	역전이를 일으킨 나의 주제에 대해 내가 스스로 통찰이 가능한 상태이다.
9-151	이 역전이는 상담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서 소화가 된 주제이다.
9-154	이 역전이와 관련된 나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수용이 되는 상태이다.
13-149	나의 미해결된 주제가 해결이 되어 내가 지금-여기에서 내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다.
대표문 29	내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각, 감정, 신체감각은 대부분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4인)
5-71	내가 역전이를 느낄 때 한 95%는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
5-81	그간의 경험을 통해 나에게 역전이가 일어나는 경우 그 역전이는 대부분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엮여 있다는 것을 안다.
8-177	나에게 느껴지는 모든 생각, 감정, 상상, 이미지는 전부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1-104	내담자가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했으므로, 상담사의 역전이가 그 패턴인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패턴 자체에 대한 궁금함으로 전환될 것 같다.
10-157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 단서, 신체 느낌 등의 변화는 모두 내담자와 연결되어 있다.
10-158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10-300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대표문 30	내담자가 상담에서 힘들더라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작업하려는 의지가 있다. (6인)
4-199	힘들어도 자기 감정들 들여다보려는 의지가 있는 내담자이다.
5-466	내담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나와 작업을 하려는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는 채로 상담에 온 내담자이므로 1회기라도 역전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6-193	내가 느낀 역전이와 관련된 내담자의 특성에 대해 내담자가 다룰 동기가 있다.
9-259	내담자가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마음 자세가 있다.
10-214	상담사의 개입에 대해 생각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내담자이다.
대표문 31	역전이를 개방하여 개입하는 것은 내담자의 핵심역동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이다. (2인)

2-129	역전이가 인식이 되고 나면 역전이를 개방하지 않는 것보다 개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166-1	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상담전략이다.
5-182	역전이는 내담자에 대한 가설을 체크하고 내담자의 좌절된 핵심원트까지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5-492	역전이로 가는게 가장 빠른 길이다.
대표문 32	오늘 회기 안에 내 역전이를 개방하여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5인)
13-131	역전이를 다룰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다.
4-244	격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회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5-428	회기 안에서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을 때 역전이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6-338	한 회기 안에서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룰 시간이 충분하다.
9-213	역전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최소 30분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13-131	역전이를 다룰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표문 33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성찰능력이 있다. (8인)
2-211	상담사의 역전이를 자료로 삼아 성찰을 해보라는 의도에서 개방할 때 내담자가 추상화로 넘어가지 않고 성찰을 할 것 같다.
2-222	이 내담자는 내가 역전이 개방을 했을 때 그걸 재료로서 사용해서 성찰로 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5-456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어떤 핵심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성찰해보고 온 내담자이므로 1회기이지만 바로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6-165	내담자가 성찰 능력이 발달한 상태이다.
6-167	내담자가 자기 마음과 감정에 대해 숙고하고 말로 명료화하는 것을 잘 하는 능력이 생겼다.
7-42	나의 즉시성 사용을 내담자가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탐색과 이해로 들어갈 만한 캐파가 있다.
8-5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수준이 높다.
8-6	내담자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느끼는지를 잘 자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10-212	성찰 능력이 있는 내담자이다.
10-243	내담자가 자기관찰 능력이 있다.
10-266	내담자가 성찰능력이 있다.
10-325	역전이의 정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내담자가 생각할 수 있는 성찰 능력이 있기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다.
10-326	내담자가 역전이를 활용한 즉시성 개입을 받아낼 수 있는 성찰 능력이 있다.
11-106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11-73	내담자가 내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11-76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
11-95	내담자가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역동과 패턴에 대해 자각하고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11-96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담자이다.
11-98	내담자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2-64-1	내담자가 자기 상태에 대해 자각이나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적 강도가 있다.
12-78	내가 내담자와 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찰해보자고 개입했을 때 내담자가 이 상호작용을 관찰할 정서적 여력이 있다.
대표문 34	내담자는 내가 자기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다. (7인)
3-58	내담자가 상담에서 얘기하는 게 괜찮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6-329	내담자가 상담사를 솔직한 사람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
6-330	내담자가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상담사가 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7-197	내담자와의 라포가 형성된 상태이다.
7-206	내담자가 상담사가 진짜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8-36	내담자가 자신의 동기를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작업동맹이 잘 형성되었다.
8-37	내담자와 상담관계에서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9-131	내담자와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
10-265	내담자가 나의 말을 곡해해서 화를 내며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

11-60	내 역전이를 오픈해도 내담자가 그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12-30-1	나와 내담자 사이에 라포가 맺어져 있다.
12-30-2	나와 내담자 사이에 동맹이나 관여가 맺여져 있다.
12-32-1	라포형성이 된 상태이므로 지금-여기에서 역전이를 오픈하여 던져도 내담자가 받아내겠다.
12-32-2	작업동맹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여기에서 역전이를 오픈하여 던져도 내담자가 받아내겠다.
12-38	내담자와 나 사이에 정서적 연결 경험이 있다.
12-40	내담자는 내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나와 정서적으로 연결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12-46	내담자는 내가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있다는 신뢰 경험이 있다.
12-47	내담자는 내가 자신을 공감해준다고 느끼는 신뢰 경험이 있다.
12-48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실에 온 이유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신뢰 경험이 있다.
12-49	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소통된 신뢰 경험이 내담자에게 있다.
12-96-1	내담자와 나 사이에 라포가 맺어져 있어서 역전이를 개방할 수 있겠다.
12-96-2	내담자와 나 사이에 동맹이 맺어져 있어서 역전이를 개방할 수 있겠다.
12-128	내가 역전이를 오픈했을 때 내담자가 그 말을 내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싫어서 밀어내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2-129	내가 역전이를 오픈했을 때 내담자가 그 말을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듣기에 견딜 것이다.
대표문 3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내 말을 자신을 비난하거나 밀어내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6인)
3-56	내담자가 내 말에 비난받거나 잘못을 지적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나와 안정감있는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3-59	상담사가 자신을 혼낼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내담자가 가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3-7	내 느낌을 오픈했을 때 내담자가 내가 자기를 이해못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4-209	이 내담자는 나의 개입을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4-371	내가 역전이를 오픈한 이후에도 내담자가 상담에서 눈치보지 않고 나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낄 것 같다.
5-477	내가 자기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내담자에게 있다.
9-16	내담자가 즉시성을 활용한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거절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9-31	내담자가 나의 피드백을 공격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인다.
9-37	내담자가 이제는 나의 피드백을 공격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 관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도 다르게 반응할 것 같다.
대표문 36	내담자가 내 개입에 수긍만 하지 않고 항변도 하면서 나와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 (3인)
13-70	내가 역전이 개방을 던졌을 때 관계 안에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다룰 만큼의 힘이 내담자에게 있다.
2-230-1	내담자가 회기 중에 자기표현을 하고 맞받아치는 힘이 느껴진다.
3-49	내담자의 사례개념화에 맞게 연결이 되어서 상담사 안에서 한번 더 곱씹어지고 소화되었다.
4-206	내담자가 나의 개입에 수긍만 하지 않고 자기 항변을 하기도 하는 티키타카가 가능한 상태이다.
대표문 37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에 대해 세운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7인)
3-49	내담자의 사례개념화에 맞게 연결이 되어서 상담사 안에서 한번 더 곱씹어지고 소화되었다.
4-100	내담자의 패턴과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례개념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4-426	내담자에게 느끼는 나의 답답함은 내 성질머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사례개념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5-252-2	나에게만 강렬히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담자의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5-67-2	내 역전이가 내담자의 사례개념화와 연결이 된다.
6-67	내담자가 나에게 역전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있다.
9-104	내가 개방하려는 역전이가 내담자가 가진 핵심역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9-108	내가 가진 내담자에 대한 가설이 내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9-99	내담자에게 느끼는 역전이와 역동에 대한 사례개념화가 되어 있다.
10-173	내 역전이가 직관적으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와 연결지어진다.
12-180	나에게 하는 내담자의 행동이 내담자의 핵심적인 역동이고 내가 역전이 타겟팅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대표문 38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9인)
1-48	지금 이 상황은 내담자가 밖에서도 화가날 때 본인이 좌절된 것과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말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공격하는 패턴과 연관이 있다.
1-50	자신이 무엇이 기분이 나쁜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대한 조언과 충고로 표현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내담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담자가 대인관계 불편감을 겪게되는 패턴과 굉장히 맞닿아있다.
1-54	내담자와 같이 이야기했던 내담자의 관계패턴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다.
1-55	이전에 내담자의 다른 사람과의 에피소드에 대해 다루었던 상황이 나와의 관계에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 같다.
1-58	내담자가 어려워하는 관계 패턴이 지금-여기에서도 생생하게 재연되고 있다.
1-117	상담사가 경험한 역전이가 내담자와 합의한 사례개념화에 부합되는 주요한 패턴이라는 확신이 있다.
1-118	내가 경험한 역전이가 내담자와 합의한 사례개념화에 부합되는 주요한 패턴이라는 확신이 있다.
2-185	이 역전이는 평행과정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행동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2-188	내담자가 밖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것일 수 있겠다.
2-203	이 역전이가 평행과정으로 판단되므로 즉시성 개입을 해봄직한 맥락이다.
4-67	내가 느끼는 역전이는 사실 내담자가 별일이 아닌 것을 더 힘들게 경험하는 패턴의 반영임이 확인되었다.
6-213	내가 경험하는 역전이가 내담자가 반복하고 있는 부적응적인 관계패턴이 지금 실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명확하다.
6-215	내담자의 관계패턴 속에서 내담자의 관계 패턴 속에서 대상과 자기의 표상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7-104	내담자가 밖에서 보이는 패턴이 나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드러나려고 하는 상황이다.
7-131	내담자가 밖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관계 패턴을 나와의 관계에서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8-184	내담자가 양육자와의 역전된 대상관계를 나와의 관계에서 상연하는 것 같다.
9-128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역전이가 내담자가 스스로는 호소하지 않았어도 바깥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다.
11-281	나의 역전이가 내담자의 역동으로 인한 관계 패턴을 내담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되겠다.
12-200	내담자가 관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핵심 역동이 나와의 관계에게도 재연된다.
12-204	나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경험의 패턴은 내담자 내부에 갖고 있던 아주 오래된 테마일 것이다.
대표문 39	내 역전이를 사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즉시성 개입을 풀어갈 지에 대해 어느 정도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인)
1-139	역전이를 개방하는 대화를 통해 내담자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종착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
1-140	역전이를 개방해서 내담자의 패턴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 무슨 개입을 해야할지에 대해 생각이 서 있다.
1-146	역전이 개방을 해서 상담이 이런 대화로 이끌어지면 좋겠다는 청사진이 있다.
1-198	이 역전이 현상에서의 내담자의 경험이 더 충분히 이해됨으로써 역전이를 통해 상담이 어디로 가야할지가 명확해졌다.
6-207	즉시성 개입을 사용해 내 역전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목적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1-274	개입 이후에 내담자의 역동을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내담자의 대안반응에 대한 개입 전략이 있다.
11-355	이 개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점검이 되었다.
대표문 40	내 역전이로 인해 내담자에게 반응적으로 액팅아웃하지 않고 감정을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 (6인)
1-291	상담사의 답답함에 말려들지 않고 그 감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원래 하려던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1-292	내가 내 감정을 잘 담아내고 홀딩할 수 있는 상태이다.
3-33	나의 반응이 그냥 반응적 행동이 아닌 내담자를 위한 치료적 목적의 개입임이 확실하다.
3-115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내담자를 비난할 목적이 아니다.
3-121	내 마음에 내담자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마음이 없다.
3-122-1	내 역전이를 다루는 것은 내담자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다.
3-122-2	내 역전이를 다루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느낌을 내담자와 함께 풀어나가는 마음이다.
4-392	역전이가 잘 자각되어서 액팅아웃하듯이 말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4-89	내 감정으로 인해 내담자에게 액팅아웃하지 않을 수 있다.
5-114	내 안에 건드려지는 것들이 뜨끔하는 반응적 태도로 나오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로 있을 수 있다.
5-298	나의 감정이 내담자에게 투사되어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
8-153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 내 역전이 감정에 있는 독소가 처리가 되었다.
9-182	내가 내담자에 대한 역전이로 인해 감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하지 않은 채로 잘 담아내고 버티고 있다.
13-100	나의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어 반응적으로 튀지 않고 딱 담아내고 버티고 있는 마음이다.
13-97	위기 내담자에 대한 나의 무력감과 절망, 내담자의 무력감과 절망을 견디고 홀딩이 되었다.
대표문 41	내 역전이 감정이 너무 뜨겁고 아프거나 격렬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크기이다. (2인)
4-62	내 감정이 너무 격렬하지 않다.
5-64	내 역전이가 너무 뜨겁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견디고 감당할 만한 크기의 감정이다.
대표문 42	내 역전이 감정을 스스로 해석해 나가면서 감정이 소화가 되었다. (5인)
3-140	내 역전이 감정을 처리한 상태이다.
8-110	내 역전이 감정과 감각을 스스로 해석해 나가면서 소화가 되었다.
10-101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소화가 되어 있다.
10-121	내담자가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 소화가 되었다.
10-122	내담자가 이해되어 나의 짜증이 사라졌으므로 관계 자체를 다뤄도 되겠다.
11-353	수퍼비전이나 동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내 역전이 감정이 점검되고 소화가 되었다.
13-103	내 안에서 절망과 무망감의 덩어리가 소화되고 작아진 것이 느껴진다.
대표문 43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내 역전이 경험도 그렇게 왜곡되거나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2인)
3-132	내가 상담 중에 경험하는 느낌은 그렇게 왜곡되거나 이상하지는 않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5-232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내 감정은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번 체험한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문 44	상담이 지지부진하고 꽉 막힌 교착상태에 있을 때는 역전이를 개방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인)
3-50	대화가 막혀있을 때 상담사의 역전이를 꺼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8-186	상담이 교착 상태일 때는 역전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8-190	일반적으로 질문이나 탐색을 통해 작업하는 것이 전혀 안될 때는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8-194	상담이 너무 지지부진할 때는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8-197	지지부진한 상태 자체를 내담자와 같이 논의함으로써 상담을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겠다.
8-199	지지부진한 대화가 아니라 내담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데려오기 위해 즉시성 개입이 필요하다.
대표문 45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바로 수긍해서 삼켜버리거나 자책으로 가지 않을 힘이 있다. (8인)
1-101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담자가 수용을 할 것 같고, 쳐내거나 방어하지는 않을 것 같다.
1-314	살짝 개방을 해보니 내담자가 나의 역전이 개방을 받아줄 심리적인 역량이 되는 것이 보인다.
2-209	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맞아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쑥 들어가버리지 않고 성찰을 할 수 있겠다.
4-186	내담자가 의욕이 있고 감정을 작업할 만한 에너지 수준이 충분히 있다.
4-214	내담자가 에너지가 있는 상태라 격렬할 수 있는 작업도 가능하겠다.

5-470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내담자에게 살짝 보여준 뒤 내담자의 반응이 내담자의 반응을 지켜보니 더 가도 괜찮겠다.
7-179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좀 있는 상태이다.
11-165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내담자가 알아차리는 것을 보니 더 들어가도 되겠다.
11-248	이 역전이를 사용해서 다루는 작업을 내담자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다.
12-280	내가 역전이를 개방해도 내담자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13-50	나의 역전이를 오픈했을 때 내담자가 그것을 수치나 죄책감, 자기 탓으로 가져가지 않고 버틸 수 있겠다.
13-71	내가 역전이를 오픈했을 때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수긍하며 삼켜버리거나 찌그러들지 않을 내적인 힘이 있다.
대표문 46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꺼내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4인)
2-229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도 느끼는 등 내담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내담자가 힘이 생긴 것 같다.
4-196	내담자가 울면서도 자기 감정을 설명할 줄 아는 방향으로 대답을 잘 하고 있다.
12-62	내담자의 셀프가 약하지 않아서 자기 감정에 대한 상태를 설명할 능력이 있다.
12-64-2	내담자가 자기 상태에 대해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적 강도가 있다.
13-79	내담자와 내가 각자의 생각을 다 오픈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담자의 내면적인 힘이 있다.
대표문 47	내담자가 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상담관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다. (2인)
5-476	내담자가 자기와 나의 역동이 얽히고 설켜도 내가 자기를 떠나지 않고 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9-47	내담자가 내가 떠날까봐 두렵다는 이야기를 이제 안하는 것을 보니 상담관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다.
9-51	내담자의 언어반응 속에서 상담사와의 관계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어드는 걸 보니 상담관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다.
대표문 48	이 내담자는 내 표정과 어감의 미묘한 변화도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므로 내 마음의 변화를 솔직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다. (3인)
2-163	내가 진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내담자는 금방 알아챌 것이다.
5-485	너무 진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내담자이므로 내가 역전이 감정을 개방하면 내담자가 나를 더 인간적이고 진솔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
7-18	상담사가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안정성이 필요한 내담자이므로, 내 마음의 변화를 솔직하게 오픈해야 오히려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7-22	이 내담자는 상담사의 미묘한 표정과 어감 변화도 바로 파악하는 사람이므로 내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대표문 49	역전이를 개방해서 개입했다가 성과가 없거나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망하는 것은 아니다. (4인)
4-313	즉시성 개입을 한번에 제대로 충분히 다뤄야 한다는 비장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5-341	역전이를 활용해서 다루었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 망하는 것은 아니다.
6-418	즉시성 개입의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므로 괜찮다.
6-425	개입이 성과 없이 작은 성과 혹은 전혀 먹히지 않는 성과로 끝날지라도 괜찮다.
6-426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다뤘을 때 안 들어가지면 아직 다룰 때가 아닌가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6-429	개입을 해서 성과가 없어도 괜찮다는 편안함이 있다.
7-164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루다가 이 배가 절벽으로 가더라도 괜찮다.
7-165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루다가 겪게 될 최악의 상황은 종결밖에 없으니 괜찮다.
대표문 50	내가 상담관계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개방하여 다루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에 내담자와 합의가 되어 있다. (2인)
2-16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좋은 대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오픈하여 그것을 놓고 같이 다루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합의가 되어 있다.
2-166-3	상담사가 역전이를 개방하는 것이 합의된 개입 방향이다.
2-167	이 내담자와의 상담은 상담사가 가능하면 진솔한 태도로 자신을 점검하고 그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주제인 상담이다.

2-168	내담자의 주제 자체가 역전이를 다루고 대상관계로 다뤄야 하는 주제이다.
11-338	내담자가 역동을 다루는 상담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다.
대표문 51	내가 역전이를 개방했을 때 내담자가 감정에 압도되어 액팅아웃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5인)
1-64	이 역전이는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이다.
1-315	내담자가 상담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자아강도가 있다.
2-253	내담자가 오늘 이 순간에 과잉반응이나 과소반응을 하지 않고 머물러있을 수 있을 것 같다.
3-47	나에게 드는 느낌이 내담자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돌려줄 만한 의미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3-48	나에게 드는 느낌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다.
3-52	상담에서 질문이나 공감으로 작업을 했는데도 지속되는 막힌 느낌은 뭔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이 든다.
3-80	내담자가 상담사의 즉시성 개입에 액팅 아웃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3-99	내담자가 내가 오픈했을 때 나의 반응에 무서움으로 확 압도되지 않고 버틸 것 같다.
3-103	내담자가 자기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액팅아웃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
7-177	내담자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심리적 스페이스가 생긴 것이 보인다.
10-93	상담사가 인식한 역전이를 내담자가 인지하고 못하는 상태이지만 상담에서 나와야 할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10-163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0-164	이 역전이는 뭔가 더 생각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자료이다.
10-272	내담자가 너무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다.
10-274	내담자가 나의 개입에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할 것 같지는 않다.
대표문 52	이 역전이는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6인)
4-238	내 감정을 활용해서 즉시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내담자한테 치료적으로 필요하다.
4-394	나의 감정을 오픈하는 것이 지금 내담자가 알아차리면 도움이 될 자료이다.
4-407	내담자에 대해 느끼는 내 감정이 활용할 만한 자료라는 증거가 확인이 되었다.
4-410	오늘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경험한 감각이 회기 중의 몇 번의 상호작용으로 활용할 만한 자료라는 확인이 된 상태이다.
5-6	회기 초반이거나 시간이 얼마 안남았거나 관계없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역전이를 즉시적으로 오픈할 수 있다.
9-130	내 역전이와 관련된 내담자의 주제를 내담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든다.
대표문 53	내가 역전이 감정에 압도되거나 매몰되지 않은 채로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5인)
1-203	더 이상 상담사의 무력감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4-88	내 감정으로 인해 내가 너무 압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6-288	내가 역전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상태이다.
9-137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룰 때 내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반응할 수 있겠다.
9-138	내가 이 역전이를 꺼내서 내담자와 작업해도 내 감정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겠다.
11-184	내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압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역전이를 활용할 수 있겠다.
대표문 54	이 역전이는 내 것이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9인)
3-146	나의 불편감이 내담자가 나를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4-101	내 역전이가 상담사 것인지 내담자 것인지가 정리된 상태이다.
5-404	내담자에게 이성적으로 끌리는 역전이가 내담자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것을 보니, 나만의 선호가 아니라 내담자가 유발한 것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
6-181	내 역전이가 나의 것이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보내는 것임이 명확해졌다.
8-20	평소 내담자의 불일치를 볼 때 내가 느끼는 반응보다 강한 감정이 올라오니 이 역전이는 내담자와 관련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8-44	내가 개인적 주제로 걸려들 거리가 없는데도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내담자의 중요한 어떤 자료일 수 있다.
9-120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10-61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담자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11-191	이 역전이가 내담자의 역동에서 생겨난 것임이 확인이 된다.
11-196	이 역전이는 나만의 주제가 아니라 내담자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12-24	이 역전이가 내담자 것인지 내 것인지를 자문해 보니 내담자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12-262	역전이에 대해 스스로 질문했을 때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표문 55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에서의 역동을 밖에서의 관계 경험과 연결지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2인)
3-61	내담자가 자기의 어떤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입해야겠다.
9-86	내담자가 상담사가 개방한 느낌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같다는 것을 통찰하게 돕기 위해 즉시성 개입이 필요하겠다.
9-94	나와의 관계에서의 역동을 내담자가 밖에서 겪는 관계경험과 연결지어 통찰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대표문 56	내담자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진실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다. (2인)
3-170	내담자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다.
3-171	내담자의 마음자리를 같이 연결해서 느끼고 싶은 마음이다.
3-172	내담자와 연결되는 것이 상담에서 도달해야 하는 가장 핵심 지점이라는 믿음이 있다.
8-230	내담자와 생생하고 진실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대화를 추구한다.
8-232	상담사에게 느껴지고 흘러나오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추구한다.
대표문 57	내담자에게 해석이나 직면을 했을 때 수용적인 것을 보니 역전이 개방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2인)
4-166	질문이나 해석 등 다른 개입을 할 때 내담자의 반응이 더 이상 자책으로 가지 않는 걸 보니 이제 즉시성 개입을 할 준비가 되었다.
9-29	내담자의 모습에 대해 직면을 시켰을 때 예전과는 다른 성찰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보인다.
9-35	내담자에게 직면했을 때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어떻게 다르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달라진 것이 보인다.
9-110	즉시성이 아닌 직면과 같은 사전 워밍업 작업을 통해 내담자가 준비되었다.
대표문 58	자기에게만 빠져있던 내담자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자기와 관계맺는 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2인)
11-112	내담자가 이전과 달리 나의 표정과 자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을 보니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것 같다.
11-124	내담자가 자기 집중에서 벗어난 것 같다.
11-126	내담자가 점점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주변 타인들의 입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11-130	너무 자기에만 빠져 있던 내담자가 눈을 들어서 타인을 보기 시작한다.
11-131	내담자가 타인의 관점을 조망하는 능력이 생겼다.
11-134	내담자의 에피소드들에서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 보인다.
11-369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행동이 변한 것을 보니 상담이 다음 단계로 가서 즉시성 개입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13-106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내담자가 고개를 들고 자기 속에서 나와서 나를 보고 있으니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13-113	고통과 절망에 혼자 빠져있던 내담자가 나를 자기 앞에 있는 한 존재로서 확 인식을 하는 순간이 왔다.
대표문 59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 있다. (2인)
11-389	내담자와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진솔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 있다.
13-73	내담자가 나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관계맺음이 있다.
13-81	내담자와 나 사이에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오픈할만큼 소통의 질이 깊으므로 이 정도는 다룰 수 있을 만하다.
대표문 60	이 역전이는 내담자가 숨기고 방어하고 싶은 감정이 나에게 오는 투사적 동일시인 것 같다. (2인)
7-102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 같고 내담자가 이에 대해 통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8-105	내가 느끼는 이 압박감은 내담자가 침투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아온 압박감일 것이다.

8-84	내가 지금 느끼는 역전이 감정은 내담자가 숨기고 싶고 방어하고 싶은 감정이 나에게 오는 것 같다.
대표문 61	내 역전이를 개방해서 다루더라도 내담자가 적어도 드랍되지는 않겠다. (3인)
9-22	나의 역전이 이슈를 꺼내도 내담자가 드랍되지 않겠다.
10-275	내담자가 나의 개입에 상담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11-145	즉시성 개입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드랍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11-147	즉시성 개입을 하면 내담자가 불편하더라도 드랍되지는 않겠다.
대표문 62	역전이를 다루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담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다. (2인)
3-54	즉시성 개입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관계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
4-61	역전이를 다루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상담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다.
대표문 63	오늘 작업한 후에 내담자가 최소한 자책이나 나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로 끝나지는 않도록 매듭 지어줄 시간이 남아 있다. (6인)
3-105	내담자가 상담사의 즉시성 개입에 대해 확 반응하더라도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겠다.
4-442	작업을 해서 헤쳐놔도 내담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드랍되지 않을 정도의 매듭은 지어줄 시간적 여유가 있다.
4-443	작업을 해서 헤쳐놔도 내담자의 다른 중요한 일들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매듭은 지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
6-344	내담자의 역동을 다룬 이후 상담사에 대해 불편하거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작업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9-214	역전이와 관련된 주제를 작업한 후에 치료적으로 봉합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다.
9-222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역동을 자기 탓으로 여긴 채로 회기가 끝나버리지 않을 수 있겠다.
9-223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안은 채로 회기가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
9-235	내가 역전이를 오픈하면 촉발될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한 잠재우는 작업은 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11-157	내 역전이를 오픈했을 때 내담자의 상처를 헤집어놓고 드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관계를 수습할 수 있겠다.
13-183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오픈해서 다뤘을 때 어찌저찌 이번 회기 안에 수습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13-191	오늘 회기의 작업을 통해 문제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담자가 오해받는 느낌인 채로 회기가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
대표문 64	즉시성 개입으로 인해 내담자가 현재 삶에서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2인)
4-253	지금 즉시적으로 하는 작업들의 여파로 내담자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과업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9-247	이 작업으로 인해 내담자가 일상에서 당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업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
9-260	내담자가 이 주제에 대해 피상적이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대표문 65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느낌이나 상담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2인)
4-321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의 관계 경험에 대해 다룬 자잘한 경험들이 이미 쌓여있다.
6-145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의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이다.
6-149	내담자가 상담이 상담사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6-151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개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6-152	그동안 상담관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담관계를 다루는 것에 내담자가 익숙하다.
6-153	상담관계를 다루는 것에 내담자가 익숙하므로, 상담관계에서의 경험을 서로 개방해서 나누면서 개입 방향을 함께 상의해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6-157	상담사에 대해 불편하게 느낀다는 이야기도 잘 하는 내담자이다.
대표문 66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느낀 감정을 나도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다. (4인)

1-267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상담목표가 주변인과의 갈등이고 내 역전이도 주변인들과 비슷한 반응이 나온 것이다.
2-183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나도 내담자 앞에 있는 제3자로서 같은 경험을 또 느끼고 있다.
2-189	내담자 주변의 제3자들이 내담자에게 느낀 느낌을 내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나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6-363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내담자의 타인이 겪었을 감정이 내 역전이와 일치하는 연결지점이 보인다.
11-66	내가 내담자에게 느낀 불편감을 나만 느낀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주변인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1-67	내담자의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담자에게 느낀 감정은 내담자가 불러일으키는 역동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표문 67	내담자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먼저 도마에 올렸으므로 그에 반응해주어야 한다. (2인)
7-114	상담시간을 내담자 자신을 탐색하는 데 쓴다는 암묵적 규칙을 내담자가 먼저 깼으므로 내가 반응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7-116	내담자가 상담사와의 인터렉션을 하고 싶어할 때는 그에 기꺼이 반응해주어야 내담자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다.
7-181	내담자의 입에서 내담자의 관계패턴이 우리 관계에서 재연되는 것과 관련된 정확한 워딩이 나왔으므로, 그 워딩을 활용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순간이다.
10-74	내담자쪽에서 상담사와의 관계를 먼저 도마에 올렸다.
10-75	내담자가 상담사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즉시성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대표문 68	내가 지금 경험하는 역전이와 같은 감정을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다. (4인)
5-137	내담자가 나에게 이런 감정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내담자 주변에도 나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이해가 된다.
5-236	내 주제로 인해 나에게 더 강렬한 감정이 일어났다해도 내담자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어느 정도는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7-46-1	내담자 주변에 나 같은 역전이를 느끼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다.
9-85	나의 개인적인 주제로 인한 역전이이기도 하지만 내담자의 다른 대상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12-102	내담자가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겪는 느낌과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대표문 69	역전이를 개방하여 개입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튕겨내거나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을 교류하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 (2인)
3-134	즉시성 개입에 내담자가 이해를 못하거나 튕겨내더라도, 그러면 또 그런대로 마음을 교류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다.
3-160	문을 열기 전에는 그 다음에 어떤 길이 펼쳐질 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교류하며 연결되는 과정이다.
5-373	역동을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갔다 나올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니 괜찮다.
5-383	때로 내담자의 것보다 내 것이 더 과하게 들어오더라도, 내담자의 것과 나의 것이 계속 오고가고 핑퐁이 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표문 70	내담자의 바깥에서의 경험과 패턴에 대해 이전에 이미 다룬 적이 있다. (2인)
1-90	내담자와 이전에 내담자의 패턴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했다.
1-99	내담자의 패턴에 대해 이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적이 있으므로 즉시성 개입에 수용적일 것 같다.
1-109	이미 이전 회기에서 내담자의 패턴, 바깥에서의 경험에 대해 다뤄본 적이 있다.
12-110	내담자의 트라우마 경험을 작업하면서 벗어나는 과정을 좀 거쳐왔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의 관계패턴에 대한 이해가 있어 역전이를 지금-여기로 전달할 수 있겠다.
12-122	내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작업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다루며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 대해 역전이를 오픈해도 알아듣겠다.
12-123	내담자의 트라우마가 부모 및 현재 관계에서의 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 대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 대해 역전이를 오픈해도 알아듣겠다.

<부록 10> 대표진술문 목록의 3차원 좌표값

진술문 번호	1차원 좌표값	2차원 좌표값	3차원 좌표값
1	1.713	0.637	-0.408
2	-0.635	-1.422	-0.672
3	-0.992	-0.023	-1.401
4	-0.033	-1.645	0.796
5	0.042	-1.780	0.364
6	-1.089	1.248	0.594
7	-1.259	1.034	-0.611
8	-1.291	1.332	0.255
9	-0.728	-0.605	-1.433
10	-1.325	1.164	0.528
11	-1.292	1.299	-0.115
12	0.213	-1.228	1.348
13	-0.394	-0.651	1.668
14	-1.249	1.306	0.290
15	-0.314	-1.673	-0.350
16	-0.619	-0.807	-1.426
17	1.621	0.681	-0.197
18	0.723	0.391	-1.526
19	1.540	0.767	-0.566
20	1.557	0.740	-0.561
21	-1.271	0.818	-0.851
22	-0.531	-0.787	-1.489
23	0.000	-1.722	-0.463
24	0.008	-1.746	-0.363
25	0.021	-1.766	-0.226

진술문 번호	1차원 좌표값	2차원 좌표값	3차원 좌표값
26	-1.291	1.278	-0.031
27	-1.298	1.255	-0.101
28	-1.293	1.274	-0.038
29	-0.828	-1.342	0.531
30	1.505	0.764	-0.463
31	-0.552	-1.123	1.184
32	-0.419	-0.314	1.780
33	1.508	0.692	-0.612
34	1.567	0.597	0.371
35	1.553	0.742	0.120
36	1.573	0.720	-0.245
37	-0.607	-0.804	-1.385
38	-0.320	-1.051	-1.315
39	-0.613	-1.062	1.145
40	-1.275	1.270	-0.033
41	-1.271	1.254	-0.068
42	-1.275	1.270	-0.033
43	-1.309	1.071	0.422
44	-0.449	-1.103	1.252
45	1.506	0.772	-0.181
46	1.463	0.714	-0.580
47	1.419	0.601	0.653
48	0.722	-0.888	-0.977
49	0.095	-0.178	1.666
50	0.918	0.198	1.409

진술문 번호	1차원 좌표값	2차원 좌표값	3차원 좌표값
51	1.442	0.842	-0.139
52	-0.804	-1.310	-0.301
53	-1.257	1.266	-0.031
54	-1.221	0.383	-0.993
55	0.042	-1.597	-0.576
56	-0.044	0.078	1.687
57	1.473	0.747	-0.268
58	1.326	0.403	0.831
59	0.371	-0.084	1.684
60	-0.689	-0.705	-1.302
61	1.420	0.817	-0.069
62	-0.113	-0.827	1.416
63	-0.383	-0.263	1.717
64	1.380	0.829	0.029
65	0.946	0.191	1.341
66	-0.284	-0.915	-1.388
67	-0.051	-1.088	-1.061
68	-0.347	-1.001	-1.264
69	-0.047	-0.490	1.588
70	1.393	0.558	-0.556

Abstract

Factors affecting experienced counselor's decision to use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 A concept mapping study -

Kim, Hyunryu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counselor's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means that the counselor immediately discloses his/her 'here and now' internal and external experiences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counseling process to the client for therapeutic purposes. Through this, we can reach the core dynamic of the client, break the stuck in counseling process, and help the client reach self-reflection, awareness, and emotional integration(Ginot, 2007; Hajeong, 2016; Jurist, 2008; Seligman, 2007). However, although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is

known to be very effective, it can negatively affect therapy outcome if used improperly, and is also an intervention that is particularly difficult for novice counselors to use.

Therefore, in order to help counselors to effectively use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it is useful to examine procedural knowledge and structural knowledge which experienced counselors have about using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know what experienced counselors consider when they decide to use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and how their knowledges are linked and organized. In this study, ideas about the factors that experienced counselors consider when deciding to use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were examined by concept mapping.

Participants were experienced counselo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nd a high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utilization of countertransference from the psychodynamic perspective.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13 participants, research team generated 532 statements and synthesized them into 78 statements through keyword coding. After receiving ratings of the relevance of the 78 statements and reflecting the feedback, 70 representative statements were finally confirmed. Afterwards, similarity classification and importance rating were performed by 12 interviewees, and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imilarity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participants to recognize the structure of experienced counselors' perception about decision to use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As a result, three-dimensions solution was adopted. Dimension 1 (X-axis) describes whom to consider and is named by 'Considering the counselor factors - Considering the client factors'. Dimension 2 (Y-axis)

describes the judgment for readiness and is named by 'Judging cognitive readiness - Judging emotional readiness'. Dimension 3 (Z-axis) describes the purpose of intervention and is named 'Pursuing client's insight - Pursuing sincer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other words, experienced counselors decide whether to use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through active self-reflection. At this time, experienced counselor examines the factors of the counselor or client, the two subjects of counseling (Dimension 1), and considers whether the two subjects are cognitively or emotionally prepared enough to engage in immediacy using countertransference (Dimension 2), and whether immediacy is appropriate to achieve his purpose to provide insight to client or to provide sincere therapeutic relationship (Dimension 3).

In addition, by the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using Ward's method, 7 cluster categories were found to be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clusters. 7 clusters are 'Cluster 1. Counselor can hold and accept countertransference', 'Cluster 2. Pursuing sincere therapeutic relationship'. 'Cluster 3. Thinking immediacy using countertransference is useful', 'Cluster 4. Intervention purposes and directions are established', 'Cluster 5. Understanding the client through countertransference', 'Cluster 6. Client can hold and accept his emotion', 'Cluster 7. Client trusts on therapeutic relationship'.

As the experienced counselors rat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representative statements, It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countertransference should be identified as a useful material for the client, and that counselor should be able to contain and hold his countertransference emotion while maintaining the focus on the client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e countertransference. On the other hand, whether the client trust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whether the counselor pursue an sincere therapeutic relationship were recognized as relatively the least important fac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n understanding of various factors and contexts that counselors should consider in order to effectively use immediacy during countertransference. How the results can be used to counselor education are discussed in detail in the discussion chapter. It is hoped tha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concept mapping methodology in the field of counseling, by conducting very strict procedures to obtain reliability and validity in the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process and providing the detailed method to implement an 3D interactive visualization for three-dimensional concept map.

keywords : countertransference, immediacy, counselor's decision making, experienced counselor

Student Number : 2015-31122